


2000 연구보고서 210-5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연구자 : 김 원 홍 연구위원
 김 해 영 연구원
 김 은 경 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오늘날 대의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현실 여건상 ‘국민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의견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감시’, ‘정치엘리트 충원 및 선거활동 지원’, ‘정치적 교육 및 계몽활동’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금번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는 16명(5.9%)의 여성의원이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는 여성국회의원 전세계 평균비율 13.1%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제15대 총선당시의 여성의원 비율 3.0%(9명)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2000년 5월 자료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177개국 중 90위로, 작년에 비해 5위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명시하였고, 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을 보다 많이 지역구에 후보로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당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나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의 당직 확대를 위한 노력에 있어 정당 차원의 공식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나라 정당 내 여성들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정당에서 여성당원은 전체 당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내 간부로서 부총재, 당무위원, 고문, 지구당 위원장, 각종 위원회 내 임원으로서의 여성당직자 비율은 대체로 10-20% 수준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당직자들은 정당에서 여성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 내 정책결정 과정에의 영향력 및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여성당직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

당들이 부총재, 당무위원, 부대변인 등 고위 당직에 여성을 일부 임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정치선진국에서 본 바와 같이 당내 여성 당직자의 참여가 확대될 때, 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당직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당, 정치인, 여성단체 등에 널리 활용되어 여성의 당내 의사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하여 정당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에 성의껏 응해주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남녀당직자와 특히 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 여성국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0년 6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박민덕

목 차

탈간사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5	
3. 정당 및 당직자에 대한 이해 / 6	
가. 정당의 개념과 기능과 조직 / 6	
나. 당직자의 정의, 범주, 충원방법 및 장애요인 / 8	
4. 연구의 제한점 / 12	
II.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15
1. 새천년민주당 / 18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 18	
나. 정당조직 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 / 26	
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 29	
2. 한나라당 / 30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 31	

- 나. 정당조직 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 / 38
- 다. 여성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 40
- 3. 자유민주연합 / 42
 -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 42
 - 나. 정당조직 내 여성당직자 참여현황 / 50
 - 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 53
- 4. 주요 정당들의 여성 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 55
 - 가. 여성당직자의 현황에 대한 비교 평가 / 55
 - 나.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비교 평가 / 58

Ⅲ.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3

- 1. 조사에 관한 개요 / 65
 - 가. 조사대상자 및 인원수 / 65
 - 나. 질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 66
 - 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66
- 2.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관한 의견 / 70
 - 가.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 70
 - 나.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 / 71
 - 다.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 71
 - 라.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만족/불만족 요인 / 73

마. 정당내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 77
바. 정당의 여성당직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평가 / 78
사. 남녀당직자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 79
3. 여성당직자 진출에 대한 의견 / 80
가. 당직자 여성비율 증대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 80
나.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 81
다. 소속 정당의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 82
라. 여성당직자 진출 확대에 필요한 요인 / 83
마. 여성당직자를 늘여나가는 제도적 방법 / 84
4. 여성당직자의 고위당직 참여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 86
가. 여성의 고위당직 진출 저해 요인 / 86
나. 남녀당직자의 자신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 88
다. 고위 당직 임명의 저해 요인 / 89
5.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 전망 / 90
가. 선거 입후보자 희망 여부 / 90
나. 소속정당 공천가능성 / 92
6. 남녀당직자의 성역할의식 비교 / 93
7.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요구 / 94
가. 여성정당인 정치교육에 대한 당직자 의견 / 94
나. 여성정당인에 대한 정치교육 요구도 / 96
8. 요약 / 100

IV. 외국정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05

1. 미국 / 107
 - 가. 민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07
 - 나. 공화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11
2. 영국 / 113
 - 가. 노동당의 조직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13
 - 나. 보수당의 조직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20
3. 독일 / 124
 - 가. 사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24
 - 나. 연합90/녹색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27
 - 다. 기민/기사 연합의 여성당직자 현황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30
 - 라. 자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33
4. 스웨덴 / 135
 - 가. 사회민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35
 - 나. 보수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36
 - 다. 기독교민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39
 - 라. 중앙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41
 - 마. 녹색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42
5. 뉴질랜드 / 145
 - 가. 노동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45
 - 나. 국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149
6. 요약 및 시사점 / 151

V.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153
1.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과제 / 156	
가.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과 매력적인 정책정당으로의 변화 / 156	
나. 남성 정치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57	
2.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57	
가. 여성의 각급 의회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157	
나. 각급 의회 및 당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확보 / 159	
다.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164	
라. 여성당직자 및 여성정치인 발굴·지원 강화 / 165	
마. 총재 직속의 독립된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 / 166	
바.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 / 167	
VI. 결론 및 제언	169
1. 결론 / 171	
2. 제언 / 172	
참고문헌	175
부록	179
부표 / 181	
질문지 / 203	

표 목 차

<표 Ⅱ-1>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조직기구표	22
<표 Ⅱ-2>	새천년민주당 시·도지부 조직표	24
<표 Ⅱ-3>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조직표	26
<표 Ⅱ-4>	새천년민주당 정당 조직 내 여성참여 현황	27
<표 Ⅱ-5>	새천년민주당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의 여성부위원장 현황	28
<표 Ⅱ-6>	한나라당 중앙당 조직표	34
<표 Ⅱ-7>	한나라당 시·도지부 조직표	36
<표 Ⅱ-8>	한나라당 지구당 조직표	37
<표 Ⅱ-9>	한나라당 중앙당 여성당직자 현황	39
<표 Ⅱ-10>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여성 운영위원 현황	40
<표 Ⅱ-11>	자민련 중앙당 조직표	46
<표 Ⅱ-12>	자민련 시·도지부 조직표	48
<표 Ⅱ-13>	자민련 지구당 조직표	50
<표 Ⅱ-14>	자민련 중앙당 여성당직자 현황	51
<표 Ⅱ-15>	자민련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여성 당직자현황	52
<표 Ⅱ-16>	자민련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여성 당직자현황	53
<표 Ⅱ-17>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현황 비교	57
<표 Ⅱ-18>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지원정책 내용	61
<표 Ⅲ-1>	조사대상자	66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8
<표 Ⅲ-2-1>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70
<표 Ⅲ-2-2>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	71
<표 Ⅲ-2-3>	남녀별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72
<표 Ⅲ-2-4>	정당활동기간별 정당활동 적극성 정도	73

<표 III-2-5>	중앙·지방의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74
<표 III-2-6>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75
<표 III-2-7>	정당활동의 만족도와 활동의 적극성 관계	75
<표 III-2-8>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요인	76
<표 III-2-9>	정당활동의 불만족 요인	77
<표 III-2-10>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78
<표 III-2-11>	정당의 여성당직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평가	79
<표 III-2-12>	남녀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야	79
<표 III-2-13>	남녀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1순위	80
<표 III-3-1>	여성당직자 확대의 적정비율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81
<표 III-3-2>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82
<표 III-3-3>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83
<표 III-3-4>	여성당직자 진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84
<표 III-3-5>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데 대한 동의정도	85
<표 III-3-6>	여성당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	86
<표 III-4-1>	여성의 고위당직 진출 저해 요인	87
<표 III-4-2>	당직자 본인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88
<표 III-4-3>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89
<표 III-4-4>	자신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90
<표 III-5-1>	중앙·지방의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91
<표 III-5-2>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91
<표 III-5-3>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92
<표 III-5-4>	소속 정당의 공천 가능성	93

<표 III-6-1>	남녀당직자의 성역할의식 비교	94
<표 III-7-1>	여성정당인 교육에 대한 남녀당직자의 요구	95
<표 III-7-2>	여성정당인 교육에 대한 중앙·지방당직자 교육 참여 의사 ...	95
<표 IV-1>	영국 정당조직내 남녀비율(1992)	115
<표 IV-2>	독일 기사당(CSU)의 여성 당직자 비율	132
<표 IV-3>	스웨덴 보수당의 위원회와 여성당직자	137
<표 IV-4>	유럽국가의 주요 정당내 여성당원비율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당규정	144
<표 IV-5>	뉴질랜드 노동당 당직의 여성비율	146
<표 IV-6>	뉴질랜드 국민당 주요위원회 남녀구성원	150

그림목차

<도표 1> 정치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96
<도표 2>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97
<도표 3> 리더십개발 영역 요구도	98
<도표 4> 남녀평등 의식개발 영역 요구도	98
<도표 5> 정보화 교육 요구도	99

부표목차

<부표 1>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181
<부표 2>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181
<부표 3> 지위별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182
<부표 4> 남녀별 정당활동의 만족도	182
<부표 5> 지위별로 본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183
<부표 6>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183
<부표 7> 중앙·지방의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184
<부표 8> 중앙·지방의 남녀당직자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184
<부표 9> 남녀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185
<부표 10> 지역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185
<부표 11> 활동년도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186
<부표 12> 학력에 따른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186
<부표 13> 여성당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소속정당 평가	187
<부표 14> 지역별 여성당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소속정당 평가	188
<부표 15> 남녀당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1순위	188
<부표 16> 남녀당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2순위	189
<부표 17>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189
<부표 18>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의 걱정비율에 대한 의견	190
<부표 19> 소속 정당의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190
<부표 20> 지위별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191
<부표 21>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191
<부표 22> 지위별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에 가장 필요한 요인	192
<부표 23> 지역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데 대한 동의정도	192

<부표 24> 지위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 데 대한 동의정도	193
<부표 25>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193
<부표 26> 지위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194
<부표 27> 중앙·지방의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194
<부표 28> 활동년도별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195
<부표 29> 지위별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196
<부표 30> 연령별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196
<부표 31> 중앙·지방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197
<부표 32> 중앙·지방의 자신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197
<부표 33> 남녀별 선거입후보 의사 여부	198
<부표 34> 지위별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198
<부표 35> 남녀별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198
<부표 36> 지위별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199
<부표 37> 공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지위	199
<부표 38> 지위별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참여 의사	200
<부표 39> 지위별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요구도	200
<부표 40> 정치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201
<부표 41>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201
<부표 42> 리더십 개발 영역 요구도	202
<부표 43> 남녀평등 의식개발 영역 요구도	202
<부표 44> 정보화 교육 영역 요구도	20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맞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시민의식의 함양과 함께 '통일된 사회,' '복지사회,' '정보화사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 '남녀평등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및 정당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유엔과 정부의 여성정책에 힘입어 많은 여성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 여성의 정치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1999년 UNDP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HDI(인간개발지수 : Human Development Index)의 경우 우리나라는 174개국 중 30위, GDI(여성개발지수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143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의 질 수준이 많이 향상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GEM(여성권한척도 : 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경우 조사대상국 102개국 중 78위를 차지하여 정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¹⁾

유엔은 1995년까지 정치·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30%를 참여토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0년 4월 실시한 16대 총선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국회위원의 비율은 5.9%로, 이는 1999년 현재 전세계 국회의원(하원) 평균비율 13.1%에 비하여 7.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5대 총선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 3.0%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나마 16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5대 총선때 보다 약 2배정도 늘어나게 된 것은 2000년 2월 정치권이 정당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도입하고, 주요 정당들이 과거의 어느 때 선거보다 많은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대의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여성

1)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1999 여성백서」, pp.322-323.

4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권획득을 기본목표로 하면서, ① 국민에 대한 여론조성 및 의견수렴, ②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감시, ③ 정치엘리트 충원 및 선거활동 지원, ④ 정치적 교육 및 계몽활동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있어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우리 나라 정당내 여성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주요 정당에서 여성당원은 전체 당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내 당직자로서 총재, 부총재, 당무위원, 당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및 부총장, 원내총무 및 부총무,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대변인 및 부대변인, 국회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임원, 각종위원회 임원 등에 있어 여성당직자 비율은 낮은 상황으로 대체로 10-20% 수준이다. 특히, 당내 비중이 높은 고위당직자로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여성당직자는 한 명도 없다. 최근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당들은 부총재, 당무위원, 부대변인 등의 고위 당직에 여성을 일부 임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색 맞추기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당직자들은 정당에서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4장의 외국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내 여성당직자의 비율이 높아질 때, 당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각급 의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내 여성당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출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당직자의 개념과 범주 및 충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현황에 대해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실제 정당들이 여성당직자 확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정당활동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여성당직자들의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성의 당직자 진출 저해요인 및 확대 방안 등이다. 넷째, 외국 정당의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이다. 대상국의 선정기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진 정치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이다. 다섯째, 이러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당직자의 개념, 정당의 기능과 조직, 당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과 외국 정당의 조직,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여성의 당직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정당에 대한 조사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여성국장과 조직국장내지 기획조정국장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정당의 조직과 기능, 여성당직자 비율과 현재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해 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질문지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중앙당과 시·도 당지부, 지구당의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당직 현황과 장애요인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 사례연구로서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 및 대상국의 정당을 대상으로 전화 및 E-mail 을 통해 알아보았다.

3. 정당 및 당직자에 대한 이해

가. 정당의 개념과 기능과 조직

정당은 그 성립과 발전과정이 시대적·지역적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의 또한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당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주의와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정당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인 당원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당법 제2조에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²⁾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면 현대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체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에 대한 권력의 매개체로서의 소극적 기능의 단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등의 강력한 통합기능을 가진다. 둘째, 정당이 나아갈 방향과 이념·정치적 입장 등을 밝히는 정강정책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개별적인 이해를 집약하고 통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정치사회에 표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넷째,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지도자의 선택과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정당의 의회 내에서의 정강정책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정당은 정부활동의 지지 또는 감독기능을 갖는다.³⁾

결국, 정당은 주의나 주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단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당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과 당원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정당은 존재 자

2) 최현수(1993), 「현대정당론」(서울 : 을유문화사), pp.59-60.

3) 양무목(1983), 「한국정당정치론-정강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서울 : 법문사), pp.21-26.

체의 의미가 사라진다.

여기서 정당의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필수기관으로 중앙당(수도에 소재)과 지구당(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을 두도록 되어있다. 단지, 지구당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수를 가지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중 5개 이상에 분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이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되어있다.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기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당 지부를, 구·시·군, 읍·면·동에 당 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⁵⁾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은 모두 임의기관으로 16개 시·도에 당지부를 두고 있으며, 구·시·군, 읍·면·동에 당 연락소를 두고 있다.

둘째, 정당은 당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현재 우리 나라 정당들의 전체 당원 수는 5,807,3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4%로, 전체 유권자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당의 평균 당원 수는 5,251명이다.⁶⁾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⁷⁾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정당·정치자금법령집」, pp.44-46, <정당법 제25-27조>

5) 위의 책, pp.8-14, <정당법 제2-3조>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9), 「'98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수록」, pp.13-14.

7) 정당법 제6조에 의하여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제외한다.

②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앞의 책, pp.13-14.

당원은 기본적으로 소속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서명 날인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당원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⁸⁾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기본적으로 ①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당직 피선거권, ②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③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④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⑤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할 권리, ⑥ 입당·탈당에 있어 자유로울 권리 등을 지닌다. 아울러 당원이 지녀야 할 의무로는 ①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②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③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④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⑤ 정령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⑥ 당규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⁹⁾

나. 당직자의 정의, 범주, 충원방법 및 장애요인

1) 당직자의 정의 및 범주

당원은 일반 당원과 당직자로 나누어진다. 일반 당원은 주로 지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내지 친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평당원이다. 우리 나라 주요 정당 내 여성당원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당직자는 정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당간부로 정의할 수 있다. 당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당원이 지니는 권리 및 의무와 당내 의사결정과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고,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거나 공직선거의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당직자들은 때로는 일반 당원 보다 많은 당

8) 정당법 제19조(강제입당의 금지), 제20조(입당) 참조.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앞의 책, p.66, 새정치국민회의(1998.6), 「강령·당헌·당규집」, pp.40-42.

비를 내기도 한다. 당직자의 경우 그 직책이 높을수록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당 정책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도지부 및 지구당의 당직자보다는 중앙당의 당직자들이 보다 크다. 그 이유로는 우리 나라의 정당체제가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큰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직자의 범주로는 중앙당의 경우 당을 대표하는 총재, 명예총재, 부총재, 당고문, 총재 자문위원, 당무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원내총무 및 부총무, 사무총장 및 부총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 및 부대변인, 정치연수원장 및 부원장, 국회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임원¹⁰⁾과 사무처 실·국장 등을 당간부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대의원과 전당대회 대의원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직자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중 총재, 명예총재, 부총재, 당고문, 총재 자문위원, 당무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원내총무 및 부총무, 사무총장 및 부총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 및 부대변인, 정치연수원장 및 부대변인, 국회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고위 당직자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중앙당의 당직자 수는 정당에 따라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고 있다.

2) 당직자의 충원방법

중앙당의 당직자 충원은 정당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나, 대체로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자치단체장, 해당 소속조직의 실·국장 등 당연직 인사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총재나, 원내총무,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경선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당고문,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당직은 총재나 당내 고위층이 직접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당의 고위층이나 해당 실·국의 추천에 의하여 당내·당의 인사로 충원되기도 한다.

10) 우리 나라 주요정당내 각종 위원회의 임원의 범주를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를,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회 위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례로 당의 최고결기기구인 당무위원의 경우 국회의원, 시·도지부 위원장, 자치단체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충원되는 경우와 당외 인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서 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원회 의장 등의 고위당직자에 의해 추천되어 충원되기도 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내 당직자의 경우 국회의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구당 위원장, 당 소속 해당 실·국장, 전문위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충원되는 경우와 외부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때 당 외부 인사의 발골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등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는 경향이 많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당외의 사회 저명인사로 충원되는 경향이 많다.

시·도지부 당직자로는 시·도지부장 및 부지부장, 시·도지부 고문, 시·도지부 자문위원, 시·도지부 운영(상무)위원회 임원, 사무처장 및 실·국장, 부장, 각종 위원회 임원 등을 들 수 있다. 시·도지부의 당직자들도 당연직으로 광역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연직 당직자로 충원되는 경우와 시·도지부장 및 고문, 자문위원 등의 추천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원과정은 중앙당과 유사하다.

지구당 당직자로는 지구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구당 고문, 지구당 자문위원, 지구당 운영위원회 임원, 사무국장, 연락소장 등을 들 수 있다. 지구당 당직자들도 당연직으로 기초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연직 당직자로 충원되는 경우와 지구당 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등의 추천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당에 비하여 지구당 위원장의 주변 인물로 충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당직자들은 정당과 당직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0~20% 수준이다. 이는 여성당원 비율 50% 이상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여성당직자들은 중앙당보다는 시·도지부나 지구당의 여성부장이나 통·반책으로 임명되어, 주로 선거나 행사시 동원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이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자기발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선거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여성들이 공직선거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¹¹⁾

3) 여성당직자의 참여 장애요인

이처럼 우리 나라의 정당 내 여성당직자가 적고 여성당직자들이 주로 여성관련 부서에 제한 배치되는 주요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남녀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한정하는 성역할에 대한 이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잘못된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성 고정관념과 함께 남성 정치지도자들 또한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주요 당직이나 비중 있는 당직에 여성을 임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²⁾ 따라서 여성들은 주로 여성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한정된 일만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 정당의 여성당직자 발굴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2000년 5월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의 여성당원 비율은 50%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당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그 동안 각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표를 모으기 위해 여성을 위한다는 취지의 대여성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현재 주요 정당중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부총재, 당무위원 등 제한된 고위 당직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보다 다양한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정치에 나서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정치문화는 고비용, 밀실정치, 패거리 정치문화의 양태를 보이고 있어, 여성들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11) 이화영(1998), "한국여성정치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연구-정당의 성별 분업 형태의 잠재성과 한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2-30.

12) 김원홍(1995, 4, 2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현황과 확대방안", 「대한 간호정의학회지」, (서울: 대한간호정의회), pp.34-38.

불신과 함께 정당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당들도 앞으로 보다 매력적인 정당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당들이 여성당직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서 오는 제한점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내 각종 당직에 있어 여성의 참여현황에 관한 통계였다. 그러나 중앙당 고위당직자에 관한 통계를 제외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심지어 각 정당들이 매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당원 수 및 당직자와 관련된 자료에서도 여성에 관한 통계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내 제한된 범주의 여성 관련 통계만을 수집 활용하였다. 이에 의해 정당별 통계 수집이 가능한 당직과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여성당직자의 통계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여성당직자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 여성당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외국사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 사례 중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선택기준은 정치선진국이면서 우리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대선거구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전세계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 소선거구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을 선택하였고, 태평양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뉴질랜드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외국 정당의 여성당직자에 관한 통계자료나 이의 개선을 위한 외국 정당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료는 국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권 국가중 일부 국가를 연구내용에 포함시

키려 하였으나, 1997년에 IPU가 조사한 각국의 여성당직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 관한 기본통계 및 기초자료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정치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본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관련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어서 아시아권의 국가는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Ⅱ.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금번 16대 총선은 지역구 227명, 전국구 비례대표제 46명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경우 지역구는 전체 1,038명의 후보중 33명(3.2%)¹³⁾이었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전체 140명의 후보중 여성이 36명(25.7%)이었다. 여성후보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5명(새천년민주당 4명, 한나라당 1명),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당선된 사람은 11명(새천년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민주국민당 1명)으로 모두 16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5.9%의 비율로, 제15대 총선결과 3.0%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비율이다. 이처럼 금번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규정하였고, 과거에 비해 여성들을 보다 많이 지역구 후보로 공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16대 총선기간 중 후보로 공천되거나 당선된 여성후보들의 직업으로는 여성운동가, 정당인, 기업가, 판사, 교수, 국회의원 등으로, 상당수가 정당 안에서 당직자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앞으로 각급 공직선거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당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여기서는 현존하는 11개 정당 중¹⁴⁾ 15대 국회 당시 교섭단체로 있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3) 16대 총선에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 수는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전체 225명 중 6명(2.6%),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225명 중 5명(2.2%), 자민련은 전체 170명 중 3명(1.8%), 민주국민당은 전체 124명 중 3명(2.4%), 희망의 한국신당은 전체 21명 중 0명(0%), 공화당은 4명 중 0명(0%), 기독교민당은 전체 0명 중 0명(0%), 민주노동당은 21명 중 0명(0%), 애국번영당은 전체 0명 중 0명(0%), 청년진보당은 전체 46명 중 12명(26.1%), 통일한국당은 전체 0명 중 0명(0%), 무소속은 전체 202명 중 4명(2.0%) 등 총 33명(3.2%)이었다.

14) 2000년 5월 현재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 한국신당, 공화당, 기독교민당, 민주노동당, 애국번영당, 청년진보당, 통일한국당 등 11개 정당이다.

1. 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 26일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고 16개 시·도에 시·도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있는데, 현재 지구당은 225개이다. 또한 지구당은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과 기능, 정당 조직내 여성당직자 참여현황,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1) 중앙당

민주당의 중앙조직은 크게 대외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뉘어진다. 대외기관으로는 전국 대의원대회와 대의원대회 수임기구로 중앙위원회가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외기관으로, 그 기능은 ① 당헌의 제정 및 개정, ②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③ 총재의 선출, ④ 대통령후보자 선출, ⑤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등이다.¹⁵⁾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는 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② 당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안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집행기관으로 당무위원, 총재,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지도위원,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지방자치위원회, 홍보위원회, 연수원, 상설·비상설 각종 위원회 및 사무처를 두고 있다.

15) 전국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의 자격으로는 ① 중앙위원 ② 각 지구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15명, ③ 16개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15명, ④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 ⑤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 ⑥ 중앙당 실·국장, 각 시·도지부의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각 지구당 사무국장, ⑦ 당 소속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명, ⑧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500명 이하의 대의원 등이다. 이중 여성 대의원으로는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15인의 대의원과 시·도지부에서 선출하는 15인의 대의원 중 여성 당원이 30% 이상, 40세 이하의 당원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강령, 당규집」, pp.101-102.

당무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① 법률안을 포함한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②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③ 지구당 조직책의 선정과 지구당 위원장의 인준, ④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후보자 추천과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자의 인준, ⑤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제정할 안건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⁶⁾

총재의 경우 당의 최고책임자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총재는 약간 명의 상임고문, 고문, 21세기 국정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주요 당무에 대하여 총재와 협의하고, 당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 정책의 개발 및 입안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정책위원회가 있다. 정책위원회는 ① 의장, ② 부의장 약간 명, ③ 당 소속 국회의원, ④ 당 소속 국무위원, ⑤ 정책조정위원장, ⑥ 당 소속 시·도지사, ⑦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⑧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제정으로 총재가 임명하는 약간 명을 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14개 분과위원회는 ① 법제사법분과위원회, ② 정부분과위원회, ③ 재정경제분과위원회, ④ 통일외교통상분과위원회, ⑤ 국방분과위원회, ⑥ 행정자치분과위원회, ⑦ 교육분과위원회,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회, ⑨ 문화관광분과위원회, ⑩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⑪ 산업자원분과위원회, ⑫ 보건복지분과위원회, ⑬ 환경노동분과위원회, ⑭ 건설교통분과위원회이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가 있다. 의원총회는 ①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대책의 심의·의결, ②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③

16) 중앙당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구성은 ① 총재, ② 대표최고위원, ③ 최고위원, ④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⑤ 중앙위원회 의장, ⑥ 사무총장, ⑦ 정책위원회 의장, ⑧ 원내총무, ⑨ 지방자치위원장, ⑩ 홍보위원장, ⑪ 연수원, ⑫ 중앙당 윤리위원장, 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7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무위원에는 여성과 45세 이하의 위원이 15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책, pp.105-106 (당헌 제19조<지위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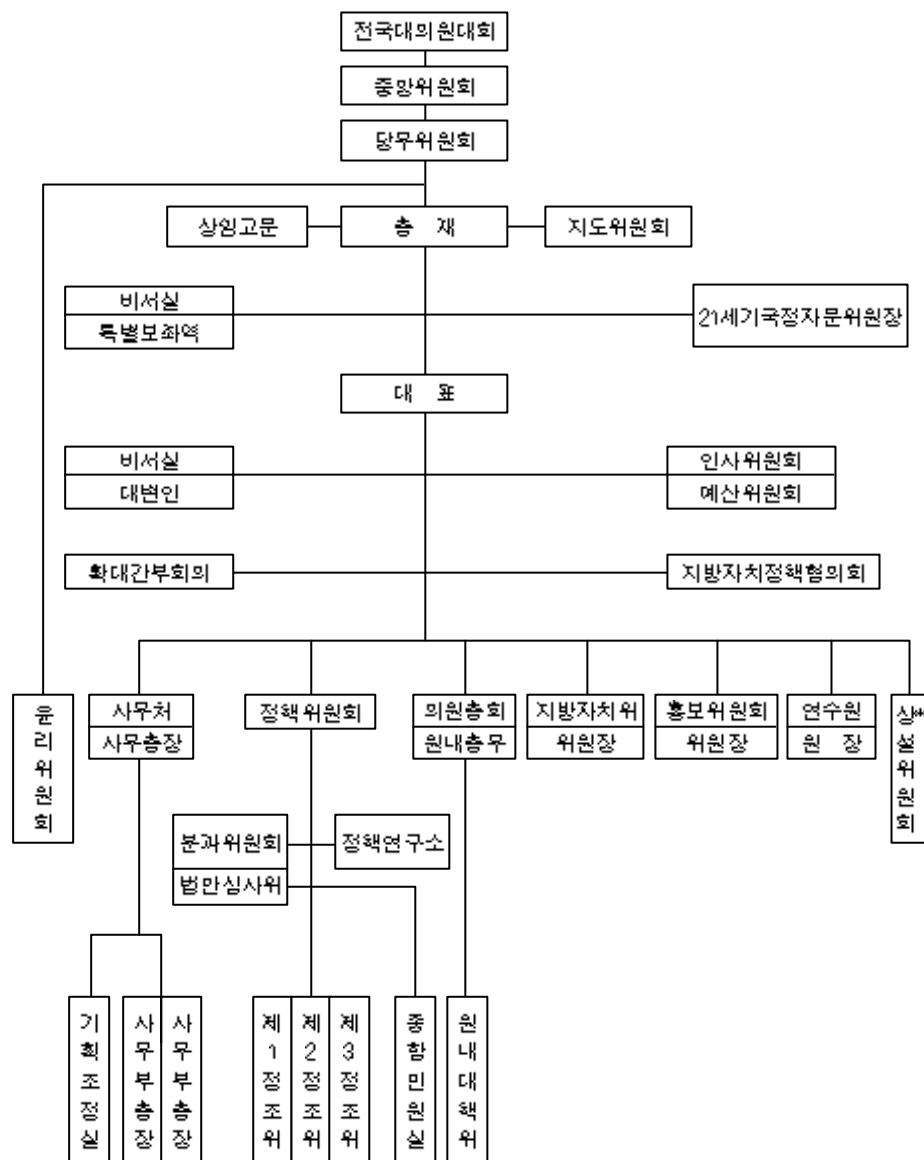
당무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보고 청취, ④ 정당법 제3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원총회에는 원내총무와 약간 명의 원내 부총무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기획, 지방자치 연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활동의 홍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홍보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약 20명의 부위원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은 없다. 당원의 교육과 훈련을 관장하기 위한 연수원을 두고 있으며, 당원의 상·벌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각종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둘 수 있는데,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비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현재 민주당의 상설위원회 및 비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 이외에 10-20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위원은 두고 있지 않다. 2000년 2월 현재 상설위원회로는 ① 직능위원회, ② 여성위원회, ③ 청년위원회, ④ 인권위원회, ⑤ 시민사회위원회, ⑥ 국제협력위원회, ⑦ 안보위원회가 있다. 비상설위원회로는 ① 노동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③ 문화예술위원회, ④ 노인복지위원회, ⑤ 체육위원회, ⑥ 농업대책위원회, ⑦ 해양수산대책위원회, ⑧ 환경위원회, ⑨ 장애인위원회, ⑩ 종교위원회, ⑪ 정보통신위원회, ⑫ 교통위원회, ⑬ 벤처위원회, ⑭ 중소기업위원회, ⑮ 이북 7도민위원회, ⑯ 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약간 명, 기획조정실과 업무수행상 필요한 국을 두고 있다. 현재 사무처에는 5명의 사무부총장과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내 기획조정국이 있음), 경제분석국, 전산국, 총무국, 재정국, 조직기획국, 조직1국, 조직2국, 여성국, 청년국, 직능국, 국제협력국, 안보국, 인권사회국이 있다. 사무처에는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총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재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¹⁷⁾

여성위원회 및 여성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위원회는 여성조직의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둘째, 여성국은 기획부, 조직부, 홍보부, 대외협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기획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여성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② 조직부는 당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홍보부는 당의 여성정책의 홍보와 서무에 관한 사항, ④ 대외협력부는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2000년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국은 '2000년 주부모니터단'을 조직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16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바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중앙당 조직은 <표 II-1>과 같다.

17) 위의 책, p.113 (당헌 제40조<인사위원회>)



* 상설위원회(7개) : 직능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인권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안보위원회

2) 시·도지부

새천년민주당의 시·도지부에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시·도지부 대의원대회¹⁸⁾가 있다.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는 ① 지부장의 선출, ②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제정, ③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선출, ④ 기타 시·도지부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등이다. 시·도지부의 대의원 수는 시·도에 따라 수백명에서 3,000명까지 달한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대의원수는 약 700명이다.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수입기구로서 상무위원회가 있다.¹⁹⁾ 상무위원회의 기능은 ① 시·도지부 간부의 임명에 대한 인준, ②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③ 지구당이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④ 기타 시·도지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시·도지부장 선거와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 및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출 등이다. 상무위원회 의장은 시·도지부장이 된다. 서울시 지부의 경우, 상무위원회 위원수는 약 200명인데, 이중 50명 정도가 여성위원이다. 시·도지부에는 지부장과 약간 명의 부지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지부의 경우, 부지부장은 9명인데, 여성은 없다.

시·도지부에는 간부회의가 있다. 간부회의의 권한은 ① 시·도지부의 중요한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② 시·도지부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③ 지구당에 대한 당무감사와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제정, ④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후보자에 대한 의견개진, ⑤ 각급 대의기관에 제정할 안건의 심의·의결, ⑥ 각급 대의기관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의결 등이다. 시·도지부에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와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시·도지부에 사무처와

18)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① 시·도지부 상무위원, ②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20명, ③ 당소속 구·시·군의회 의원, ④ 사무처와 정책실의 간부 약간명 등이다. 이중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20명의 대의원 중 여성당원은 30% 이상, 40세 이하의 당원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위의 책, pp. 125-126.

19) 시·도지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① 시·도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 ② 지구당위원장, ③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의회 의원 및 구·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④ 각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이다. 다만, 시·도 관할구역 내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5개 이하인 경우는 2명을, 3개 이하인 경우는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3) 지구당

2000년 5월 현재 민주당은 225개의 지구당을 두고 있다. 지구당의 최고결기 관으로 지구당 대의원대회가 있다. 지구당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① 지구당위원장의 선출과 부위원장의 인준, ② 전국대의원대회,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선출, ③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제정, ④ 당해 지구당의 구역 내에서 선출하는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등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의 추천은 시·도지부 간부회의의 의견을 붙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도록 되어 있다. ⑤ 기타 지구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등이다. 지구당 대의원은 100인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²⁰⁾

지구당 대의원대회 수임기구로서 지구당 상무위원회²¹⁾가 있다. 상무위원회의 기능은 ①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② 지구당 부위원장 인준, ③ 지구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④ 지구당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⑤ 지구당 위원장 및 각급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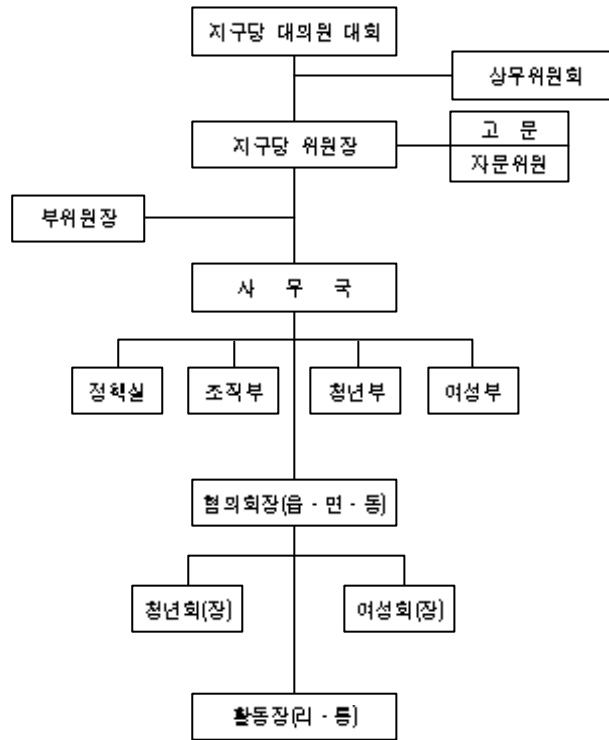
지구당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사무국, 정책실,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구당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여성부를 둔 경우 주로 여성단체와 연계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사업을 한다. 아울러 지구당의 경우,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이기는 하나 사무국장, 정책실장, 홍보부장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천년민주당의 지구당 조직은 <표 II-3>과 같다.

20) 지구당 대의원의 구성원은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② 상무위원과 윤리위원, ③ 사무국과 정책실의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 ④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연락소장 또는 책임자, ⑤ 지구당 당적을 가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⑥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당원이다. 지구당위원장이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당원 중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30% 이상, 40세 이하의 당원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책, p123.

21)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은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② 지구당의 당적을 가진 중앙위원, ③ 시·도지부 상무위원, ④ 지구당의 당적을 가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 ⑤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연락소장 또는 책임자, ⑥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 등이다.

<표 II -3>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조직표



나. 정당조직 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

2000년 5월 현재 민주당 전체 당원 수는 약 150만명 정도이다. 이중 여성 당원의 비율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대의원 대회의 대의원 수와 중앙위원회 위원 수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다. 여성 당직자의 경우, 여성 당무위원은 총 41명 중 6명(14.6%), 여성 지도위원(부총재급)은 총 15명 중 2명(13.3%), 여성 상임고문은 총 7명 중 0명(0%), 여성 고문은 18명 중 2명(11.1%), 여성 부대변인은 12명 중 2명(16.7%), 정책위원회내 여성 위원장·부 위원장은 전체 16명 중 0명(0%)이다.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 국회의원 115명 중 9명(7.8%)이며, 지구당위원장은 225명 중 6명(2.7%)이다. 여성 전문위원

은 22명중 2명(7.4%), 여성 연구위원은 0명이다.

당무를 집행하는 사무처내 여성 당직자는 실·국장 33명중 1명(3.0%), 부국장 27명중 2명(7.4%), 부장 86명중 16명(18.6%), 차장 10명중 3명(30.0%)이다<표 II-4>.

<표 II-4> 새천년민주당 정당 조직 내 여성참여 현황 (2000년 5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당무위원	41	6	14.6
지도위원	15	2	13.3*
상임 고문	7	0	0
고문	18	2	11.1
부대변인	12	2	16.7
정책위원회 의장·부의장단	16	0	0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위원장	23	1	4.3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부위원장	361	52	14.4**
국회의원	115	9	7.8
지구당 위원장	225	6	2.7
전문위원	21	2	9.5
연구위원	8	0	0
사무처			
실·국장	31	1	3.2
부국장	25	2	8.0
부장	86	16	18.6
차장	10	3	30.0
당보기자	7	2	28.5
사무원	262	96	36.6

* 부총재급임.

** 2000년 2월 현재 기준

2000년 5월 현재 민주당의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여성위원장은 23명 중 1명(4.3%)이다. 그리고 2000년 2월 현재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여성 부위원장은 361명 중 52명(14.4%)이다. 그런데 여성 부위원장들의 경우, 많이 임명되어 있는 분야는 과학기술위원회(30.0%), 교육위원회(28.6%), 문화예술위원회(26.7%), 장애인위원회(25%)로 나타났다. 여성 부위원장의 경우,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임명된 사람은 없다.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의 여성 부위원장 현황은 <표 II -5>와 같다.

<표 II -5> 새천년민주당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의 여성부위원장 현황 (2000년 2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직능위원회	23	0	0
여성위원회	20	20	100
청년위원회	19	2	10.5
인권위원회	10	1	10
시민사회위원회	21	1	4.8
국제협력위원회	23	2	8.7
안보위원회	26	0	0
노동위원회	17	2	11.8
교육위원회	14	4	28.6
문화예술위원회	15	4	26.7
노인복지위원회	13	1	7.7
체육위원회	14	1	7.1
농업대책위원회	15	3	20
해양수산대책위원회	13	0	0
환경위원회	13	1	7.7
장애인위원회	12	3	25
종교위원회	16	2	12.5
정보통신위원회	13	1	7.7
교통위원회	14	0	0
벤처위원회	12	1	8.3
중소기업위원회	18	0	0
이북7도민위원회	10	0	0
과학기술위원회	10	3	30.0
총 계	361	52	14.4

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민주당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당강령 및 당헌·당규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의 여성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당강령 [10] 여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공동사회의 건설'과 '기본정책 Ⅲ. 여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공동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 국회의원 비례대표 30%와 정무직 공무원 20-30% 여성할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는 남성과 함께 여성이 주역이 되는 사회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여, 성차별 없는 공동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 당무위원회는 70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당헌 제19조(지위와 구성)에 의하면 당무위원중 여성과 45세 이하의 위원이 15인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헌 제40조(인사위원회)에 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10인 중 여성위원장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²²⁾ 아울러 당직자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당헌 제74조 등에 의하면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각 지구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15인의 대의원과 시·도지부에서 선출하는 15인의 대의원중 여성 당원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부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20명의 대의원중 여성당원은 30% 이상 포함되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고, 지구당의 경우도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당원중 30%를 여성대의원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²³⁾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를 확대 하려는 노력이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번의 16대 총선거 지역구에 225명

22) 새천년민주당(2000, 2), 앞의 책, pp.105-113.

23) 위의 책, pp.125-126 (당헌 제74조<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소집>).

의 후보중 여성후보를 6명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다.²⁴⁾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43명의 전체후보중 여성후보를 14명(32.6%)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 8명의 심사위원중 1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성 당직자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금번 총선공약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책적으로 당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일부 여성을 포함한 것 이외에 원내총무는 경선을 통해 총원하고 있다.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하는데, 대체로 다선 의원을 임명하기에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도위원, 고문, 정책위원회, 각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일부 여성들이 들어가고는 있으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적고, 경력이 짧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당직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에 있어 사무처 당직자의 경우만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다.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당고위층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는 실·국의 추천으로 총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여성 당직자를 발굴하려는 인력 풀은 없는 상태이고, 지구당 차원에서 여성당원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부나 지구당의 부위원장 등 영향력이 있는 직책에 여성당직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 모범적인 여성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상위 당직자로 승진시키거나 포상을 별도로 주는 프로그램은 없다.

2. 한나라당

1997년 11월 21일 창당한 한나라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고 16개 시·도 단위에 시·도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있는데, 현재

24)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는 추미애(서울 광진을),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장영신(서울 구로을), 최경순(대구 북구을), 김정천(광주광역시 동구), 한영애(전남 보성·화순) 6명이고, 이중 당선된 사람은 추미애, 김희선, 장영신, 김정천의원이다.

지구당은 225개이다. 지구당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조직과 기능, 정당 조직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1) 중앙당

한나라당의 중앙조직으로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대회가 있다. 전당대회는 ① 당강령, 선언 및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② 총재의 선출, ③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④ 당헌의 채택 및 개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²⁵⁾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는 중앙위원회가 있다.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① 당강령, 기본정책 및 당면정책에 대한 건의, ② 각계 기능분야 및 조직과의 교류활동, ③ 대국민 당론 전파 활동, ④ 국정에 관한 민의수렴 및 건의, ⑤ 기타 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건의 등이다.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연합회 및 지구당지회를 둘 수 있다.²⁶⁾

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는 ① 국제통일분과위원회, ② 재정경제분과위원회, ③ 교육분과위원회, ④ 문화·체육분과위원회, ⑤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⑥ 행정자치분과위원회, ⑦ 통상산업분과위원회, ⑧ 정보과학분과위원회, ⑨ 건설분과위원회,

25) 전당대회 대의원의 구성은 ① 총재, ② 명예총재, ③ 부총재, ④ 상임고문, ⑤ 당무위원, ⑥ 당소속 국회의원, ⑦ 지구당위원장, ⑧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⑨ 국제자문위원, ⑩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 ⑪ 시·도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⑫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⑬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은 ① 시·도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②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당원으로서의 대의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 한나라당 (1998, 11, 26), 「당헌·당규집」, pp.30-32.

26)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0,00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성원은 ① 총재, ② 명예총재, ③ 부총재, ④ 상임고문, ⑤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⑥ 당무위원, ⑦ 당소속 국회의원, ⑧ 지구당 위원장, ⑨ 국제자문위원, ⑩ 재정위원 및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 ⑪ 중앙당 및 시·도지부 사무처 3급 이상의 당직자와 지구당 사무국장, ⑫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⑬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⑭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장, ⑮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 2,000명 이내, ⑯ 시·도지부가 추천하는 당원 각 20인 이내, ⑰ 지구당이 추천하는 당원 각 20명이다.

⑩ 교통분과위원회, ⑪ 환경분과위원회, ⑫ 노동분과위원회, ⑬ 보건복지분과위원회, ⑭ 중소기업진흥분과위원회, ⑮ 여성분과위원회, ⑯ 청년분과위원회, ⑰ 이북5도민분과위원회가 있다. 중앙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의 배정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이 있다.

한나라당의 최고책임자는 총재이다. 총재는 총재단 회의를 거쳐 당무를 처리한다. 총재단 회의는 총재와 부총재로 구성되며, 총재가 의장이 된다. 총재의 임기는 2년이다. 당에 명예총재를 둘 수 있으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²⁷⁾ 그리고 총재 자문기구로서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전직 군 장성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사중에서 총재가 임명하는 국책자문위원회가 있다.

또한 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당무회의가 있다. 당무회의는 ① 각종 선언과 전당대회에 상정할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②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심의, ③ 전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임, ④ 당의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당 정책을 심의하고, 입안하는 기관인 정책위원회가 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는 ① 당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②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③ 의원 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④ 당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등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① 정무위원회, ② 재정경제위원회, ③ 통일위원회, ④ 외교통상위원회, ⑤ 법무위원회, ⑥ 국방위원회, ⑦ 행정자치위원회, ⑧ 교육위원회, ⑨ 과학기술위원회, ⑩ 문화관광위원회, ⑪ 농림위원회, ⑫ 산업자원위원회, ⑬ 정보통신위원회, ⑭ 보건복지위원회, ⑮ 환경위원회, ⑯ 노동위원회, ⑰ 건설교통위원회, ⑱ 해양수산위원회, ⑲ 여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과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가 있다. 원내총무가 위원장이며 수석부총재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원내 총무를 둘 수 있다. 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7) 위의 책, p.38 (당헌·당규집 제28조<부총재>).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두고 있다. 위원회로는 ① 기획위원회, ② 홍보위원회, ③ 중앙당기위원회, ④ 인권위원회, ⑤ 재정위원회, ⑥ 국책자문위원회, ⑦ 여성위원회, ⑧ 청년위원회, ⑨ 지방자치위원회, ⑩ 대외협력위원회, ⑪ 이북도민위원회, ⑫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으며, 총재는 필요에 따라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기구로 ① 중앙당기위원회, ② 재정위원회, ③ 평화통일위원회, ④ 재해대책위원회, ⑤ 여의도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당원의 정치교육을 위한 중앙연수원이 있다. 중앙연수원에는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명이 있으며, 사무총장의 추천과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재정국, 기획조정국, 총무국, 조직국, 여성국, 청년국을 두고 있다. 여성국 안에는 여성부를 두고 있다. 여성부의 업무는 ① 여성대책활동 기본계획 수립 ② 여성조직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 ③ 신생 여성 유권자, 직장근로자여성 및 여대생에 관한 사항 ④ 여성관련 홍보물 개발 ⑤ 여성위원회 활동지원 ⑥ 기타 여성 관련 사항 등이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내에 여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① 여성정책개발 및 공약발표, ② 정부 여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여성정책 방향을 총괄·수립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앙당 조직은 <표 II-6>과 같다.

2) 시·도지부

한나라당의 시·도지부의 의결기관으로서는 시·도대회가 있다. 시·도대회의 기능은 ①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② 중앙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③ 시·도지부 위원장의 선출, ④ 지구당대회가 건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이다.²⁸⁾ 1999년 현재 16개 시·도 대의원은 총 6,880명 인데, 이중 여성 대의원은 1,451명(2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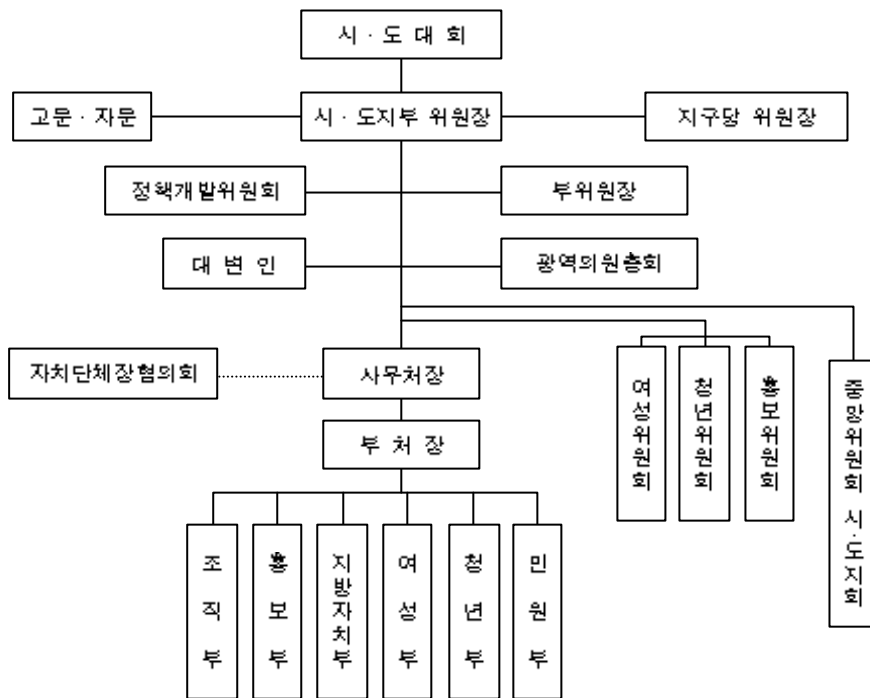
시·도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도대회 운영위원회 기능은 ① 시·도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② 시·도지사 후보자 심의, ③ 시·도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시·도지부 위원장의 선출, ④ 시·도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 등이다.²⁹⁾

시·도지부에는 시·도지부 위원장이 있으며, 약간명의 부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부에는 각종 분과위원회 및 정책개발위원회, 자치단체장협의회, 광역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시·도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가 있다. 사무처 내에는 조직부, 청년부, 여성부 등을 두고 있다. 시·도지부에는 여성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도지부의 여성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구당 여성부장이 있으며, 시·도 위원장이 위촉한 여성위원이 있다. 한나라당의 시·도지부 조직은 <표 II-7>과 같다.

28)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① 관할지구당 위원장, ②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③ 지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④ 당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⑤ 당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⑥ 시·도지부의 사무처 당직자 및 관할 지구당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 등이다. 그런데,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당원과 지역별로 선출되는 직능대표의 시·도대회 대의원 정수는 150명 이상 300명 이내에서 인구 2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제주도는 100명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위의 책, pp.245-246.

29) 시·도지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① 시·도지부 위원장과 부위원장, ② 관할 지구당 위원장, ③ 당소속 시·도 자치단체장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 ④ 시·도의회 부의장, ⑤ 광역의원 총회 원내총무, ⑥ 시·도지부 사무처 당직자, ⑦ 시·도지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부 대의원의 5분의 1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다.

<표 II -7> 한나라당 시·도지부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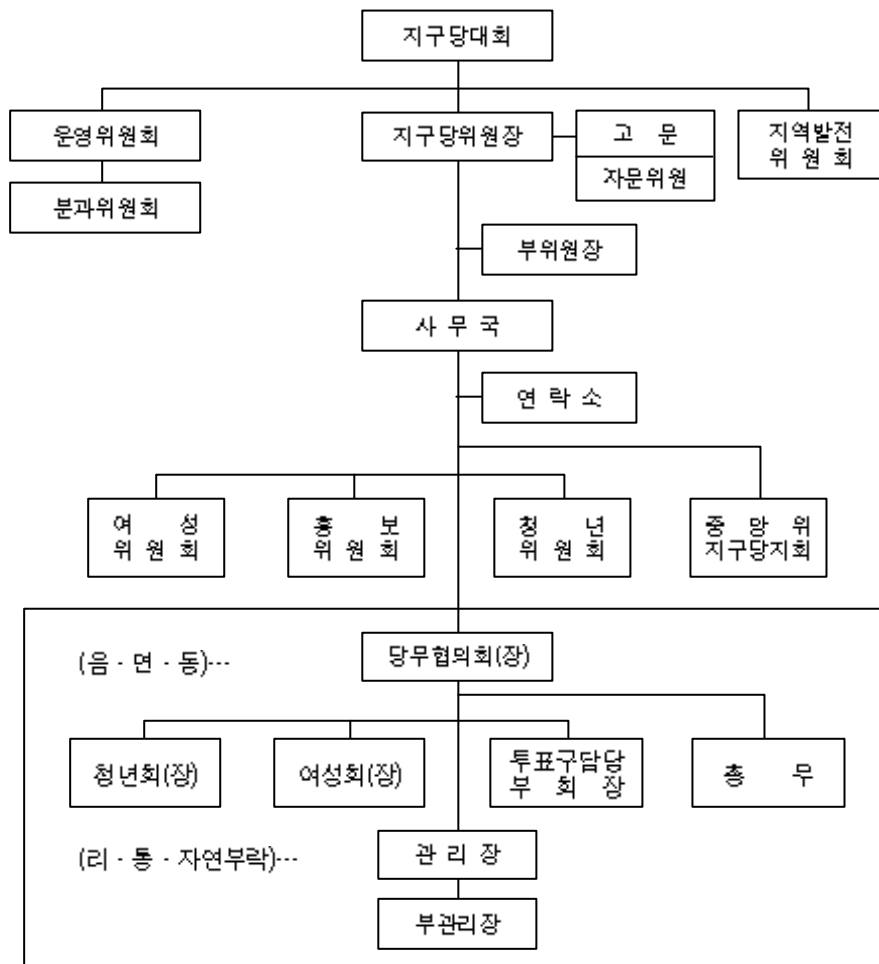


3) 지구당

한나라당의 지구당은 225개이며, 지구당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구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있다. 대의원 정수는 100명에서 150명 이내에서 인구 1,500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구당 대의원대회 수입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① 지구당 대회의 위임사항의 처리, ②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심의, ③ 지구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등이다. 구성은 ① 지구당 위원장, ② 부위원장, ③ 관할지역내 소속 시·도의회 의원, ④ 시·군·구 자치단체장, ⑤ 지구당 사무국 당직자 및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지구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30인이상 50인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다. 지구당에는 지구당위원장 및 약간명의 부위원장, 고

문과, 자문위원과 여성위원회, 홍보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약간의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지구당에는 사무국, 지구당 연락소와 읍·면·동단위에 당무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회장과 리·통단위에 관리장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지구당 조직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한나라당 지구당 조직표



나. 정당조직 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

한나라당의 전체 당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 5월 현재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대의원 총수는 7,684명이고, 이 중 여성은 1,895(24.7%)이다. 중앙위원회의 정수는 10,000명이며, 의장 1명과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부의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11,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1,000명(9.1%)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 의장의 자문기구로 10명 이내의 고문과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내 여성은 부의장 14명 중 2명(14.3%), 고문은 전체 9명 중 2명(22.2%), 자문위원은 17명 중 4명(23.5%), 총간사는 17명 중 3명(17.6%)이다.³⁰⁾ 국책자문위원회는 총 138명이 있는데, 이 중 1명(0.7%)이 여성이다. 2000년 5월 현재 11명의 고문 중 여성은 3명(27.3%)이며, 11명의 부총재 중 여성은 2명(18.2%), 55명의 당무위원³¹⁾ 중 여성은 3명(5.5%)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 중 여성은 30명(13%)인데, 전부 여성정책위원회 소속이다.³²⁾ 원내부총무 9명 중 여성은 없다. 그리고 여성국회의원 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33명 중 6명(4.5%)이며, 지구당 위원장은 225명 중 5명(2.2%)이다. 정책연구위원 15명 중 여성은 없다.

당무를 집행하는 사무처 내 여성당직자는 국장 23명 중 1명(4.3%), 부국장 23명 중 3명(13.0%), 부장 42명 중 5명(11.9%), 차장·간사 61명 중 10명(16.4%)이다.<표 II-9>.

30) 한나라당 여성국 자료 제공.

31) 당무위원은 총재, 부총재, 전당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총무, 시·도지부위원장, 당소속 시·도지사, 총재가 지명하는 당원 등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32) 정책위원회의 구성은 ① 당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②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실장, ③ 당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④ 당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⑤ 정책관련 팀장, ⑥ 연구위원, ⑦ 수석전문위원, ⑧ 전문위원, ⑨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는 약간명 등이다.

<표 II-9> 한나라당 중앙당 여성당직자 현황 (2000년 5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전당대회 대의원	7,864	1,895	24.7
당무위원	55	3	5.5
부총재	11	2	18.2
고문	11	3	27.3
국책자문위원	138	1	0.7
부대변인	8	1	12.5
중앙위원회 위원	11,000	1,000	9.1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	505	84	16.6*
정책위원회 위원	230	30	10.5
원내부총무	9	0	0
국회의원	133	6	4.5
지구당 위원장	225	5	2.2
정책연구위원	15	0	0
사무처			
국장	23	1	4.3
부국장	23	3	13.0
부장	42	5	11.9
차장·간사	61	10	16.4

* 2000년 2월 현재 기준임.

2000년 5월 현재 중앙위원회에는 2,00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을 둘 수 있고,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37명의 정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많은 분과위는 여성분과 100%(19명), 행정자치분과 36.7%(11명), 문화체육분과 19.4%(7명), 보건복지분과 18.5%(5명), 교통분과 17.2%(5명) 등이다. 이들 분과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다음의 <표 II-10>과 같다.

<표 II -10>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여성 운영위원 현황 (2000년 2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국제통일	34	5	14.7
개정·경제	30	5	16.7
교육	34	4	11.8
문화체육	36	7	19.4
농림해양수산	29	3	10.3
행정자치	30	11	36.7
통상산업	18	2	11.1
정보과학	39	5	12.8
건설	35	4	11.4
교통	29	5	17.2
환경	23	4	12.1
노동	20	0	0
보건복지	27	5	18.5
중소기업진흥	35	2	5.7
여성	19	19	100.0
청년	37	0	0
이북도민	20	3	15.0
합 계	505	84	16.6

자료 제공 : 한나라당 여성국.

다. 여성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한나라당의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당강령 및 당헌·당규의 규정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의 여성 정치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당의 기본정책 제7조 ‘여성 참여기회의 확대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과 제7조 2항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선출직과 정부의 임명직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 진출을 보장한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³⁾ 한나라당에는 현재 당

헌·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규정이 있다. 실제, 당헌 28조(부총재)에는 '부총재는 12인 내외로 하며, 1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당직자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집 제8조(구성)에 의하여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중 여성을 30%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6대 총선에서의 공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16대 총선에서 대 여성공약으로 '여성의 정치 및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기본 명제하에 ① 전국구 비례대표제 30% 할당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가능한 한 많이 추천하고, ② 선거법을 개정하여 여성단체들이 출마한 여성에게 선거자금을 모금·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국고지원의 배분율을 여성의석 수 또는 여성출마자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④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에 대한 인재은행제도 도입과 공직후보 추천시 반드시 여성을 포함·추천토록 제도화하는 공약 등을 제시한 바 있다.³³⁾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를 30% 공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한나라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번 16대 총선시 지역구에 225명의 후보 중 여성후보를 5명 공천하였고, 이중 1명이 당선되었다.³⁴⁾ 15대 총선시 지역구에 공천한 여성은 1명이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46명의 전체 후보중 여성후보 11명(23.9%)을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16대 총선시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6명의 심사위원중 1명에 전직 여성장관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한나라당은 여성 당직자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부총재에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지원 정책은 없다. 한나라당은 원내총무, 부총재의 경우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정책

33) 한나라당(1998, 11, 26), 앞의 책, pp.19-20.

34) 한나라당(2000, 3), 한나라당 여성공약.

35) 16대 총선에서 여성공천 신청자는 박근혜(대구 달성), 임진출(경북 경주), 양경자(도봉갑), 오양순(고양 일산갑), 홍사임(서울 동대문갑), 한승민(서울 동대문갑), 허남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김영선(서울 양천갑)씨였고, 이중 박근혜, 양경자, 오양순, 한승민, 허남주씨가 후보로 공천되었고, 박근혜의원만이 당선되었다.

위원회 의장은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하는데, 대체로 다선 의원이 임명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직자 층원에 있어 고위당직자인 부총재의 경우 여성을 1명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당무위원, 고문,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당고위층의 추천에 의해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내 각종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실·국에서 추천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위원회의 위원만 제외하고, 해당 관리부서에서 부위원장을 일부 추천하는데, 거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와 여성국에서는 현재 2002년 지방선거에 여성후보 1,00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3. 자유민주연합

1995년 5월 31일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으며, 16개 시·도단위에 시·도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170개 지구당을 두고 있다. 현재 지구당에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자민련의 조직과 기능, 정당 조직 내 여성당직자 참여현황, 여성의 정치 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의 조직과 기능

1) 중앙당

자민련의 중앙당 조직으로 당의 최고결기관인 대의원 전당대회가 있다.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결기구이다. 전당대회의 기능으로는 ① 강령, 선언 및 기본정책의 채택 및 개정, ② 총재의 선출, ③ 대통령 후보자 선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적능별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중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19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 그리고 운영위원 10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있다. 19개의 분과위원회는 ① 법제사법분과위원회, ② 행정분과위원회, ③ 재정경제분과위원회, ④ 통일외교분과위원회, ⑤ 내무분과위원회, ⑥ 국방분과위원회, ⑦ 교육분과위원회, ⑧ 문화체육공보분과위원회, ⑨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⑩ 통상산업분과위원회, ⑪ 정보통신과학기술분과위원회, ⑫ 환경노동분과위원회, ⑬ 보건복지분과위원회, ⑭ 건설교통분과위원회, ⑮ 중소기업진흥분과위원회, ⑯ 이북5도분과위원회, ⑰ 해외교포분과위원회, ⑱ 여성분과위원회, ⑳ 청년분과위원회이다.

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당무회의를 두고 있다. 당무회의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당헌, 강령, 기본정책 및 각종 선언의 심의, ② 당규의 제정 또는 개정, ③ 대통령 후보자의 제정, ④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심의, ⑤ 주요 당직자의 임명에 대한 제정 및 동의, ⑥ 전당대회 당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이다.³⁶⁾

자민련의 조직으로 당을 대표하는 총재가 있다. 총재는 전당대회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 또는 의원총회의 제정으로 전당대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총재와 관련된 기구로는 총재를 역임한 명예총재, 최고고문, 상임고문 및 고문,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단이 있다. 2000년 2월 현재 총재직속 자문기구로 몇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로는 ① 내각책임제 추진위원회, ② 총재 및 명예총재 자문위원회, ③ 경제대책위원회, ④ 여성정치발전위원회, ⑤ 청년정치발전위원회가 있다. 위원의 구성은 총재 및 명예총재 자문위원회의 경우만 원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내 및 원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여성정치발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② 당의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추진, ③ 기타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등이다.³⁷⁾ 현재 이들 위

36) 자유민주연합(1998, 7), 「당헌·당규집」, pp.42-45.

37) 자유민주연합 여성발전위원회 규정.

원회의 위원들을 총원 중에 있으나, 여성정치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는 전혀 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자민련은 당정책을 심의하고 입안하는 기구로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당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 당정책의 홍보 등이다. 위원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하여,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연구실장, 전문위원,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위원회에는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2월 현재 14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분과위원회는 ① 법제사법분과위원회, ② 정부분과위원회, ③ 재정경제분과위원회, ④ 통일외교통상분과위원회, ⑤ 국방분과위원회, ⑥ 행정자치분과위원회, ⑦ 교육분과위원회,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회, ⑨ 문화관광분과위원회, ⑩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⑪ 산업자원분과위원회, ⑫ 보건복지분과위원회, ⑬ 환경노동분과위원회, ⑭ 건설교통분과위원회이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활동과 당무 및 정책활동을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타 기구로는 ① 당기위원회(20명 이내), ② 재정위원회(100명 이내), ③ 통일위원회(30명 내외), ④ 인권위원회(30명 내외), ⑤ 교육개혁위원회(30명 내외), ⑥ 환경보전위원회(30명 내외), ⑦ 사회복지위원회(30명 내외), ⑧ 노동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⑨ 해외동포위원회(30명 내외), ⑩ 재해대책위원회(30명 내외), ⑪ 이북5도민위원회(30명 내외), ⑫ 청년위원회(30명 내외), ⑬ 국제협력위원회(30명 내외)가 있다. 이 중 여성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교육개혁위원회(1명), 사회복지위원회(1명)에 불과하다. 또한 총재는 필요에 따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재 구성되어있는 특별위원회는 ① 중소기업대책특별

38) 1999년 12월 현재 총재자문기구인 내각책임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하이며, 현재 구성된 인원은 11명이나, 여성은 없다. 총재 및 명예총재 자문위원회의 경우 현재 47명의 위원(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률, 외교안보, 종교, 지방자치분과위원회 전체 인원)이 있는데,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경제대책위원회의 경우 30명 이내에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현재 8명의 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여성은 없다. 여성정치발전위원회의 경우 3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선임 중이다. 청년정치발전위원회의 경우도 30명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선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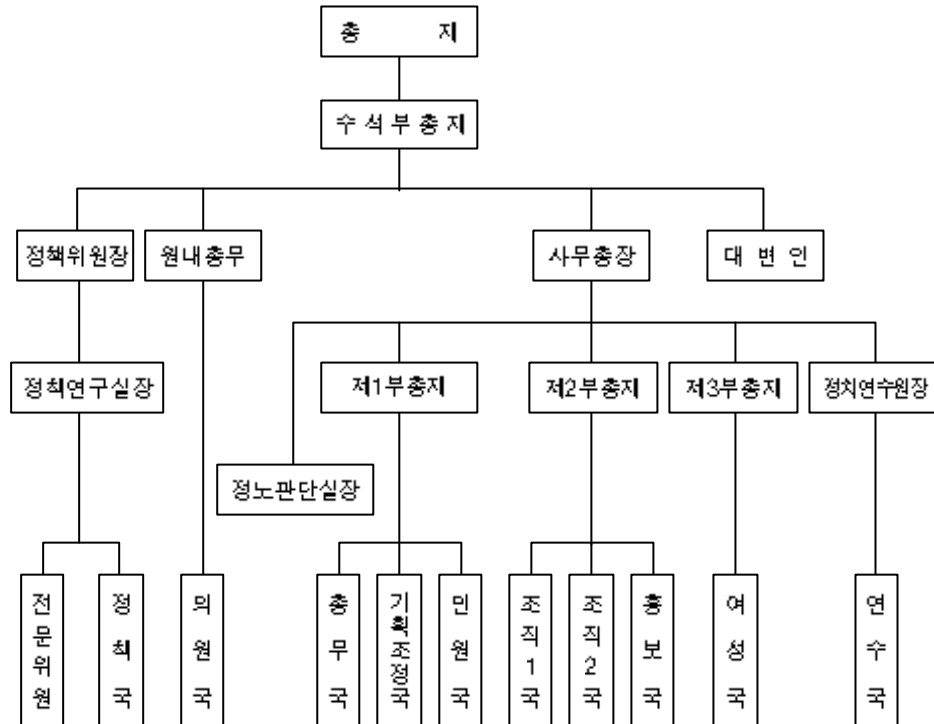
위원회(30명 내외), ②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③ 정치개혁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④ 안보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⑤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⑥ 당 개혁추진특별위원회(30명 내외), ⑦ 월드컵 특수경제특별위원회(30명), ⑧ 당 발전특별위원회(현재 56명)이다. 이 중 여성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당 발전특별위원회(6명) 뿐이다. 사무총장 직속위원회로는 ① 민원위원회(30명 이내), ② 정세분석위원회(50명 내외) 등이 있다. 민원위원회에 여성은 9명이 있으며, 정세분석위원회에는 여성이 1명 있다.³⁹⁾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다.⁴⁰⁾

또한 당무를 집행하는 사무처가 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3명의 부총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조직으로는 기획조정국, 총무국, 조직국, 청년국, 홍보국, 직능종교팀, 여성국, TF팀, 대변인 행정실이 있으며, 사무총장 직할로 정세분석위원회 및 정치연수원을 두고 있다. 여성국은 제3부총장이 관장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여성정치발전위원회와 지원부서인 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국은 여성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여성부는 ① 여성대책 활동 기본계획 수립, ② 여성 관련 홍보물 제작, ③ 여성단체, 여성 관련 연구기관 대책수립 및 협조, ④ 여성조직 활동계획 수립, ⑤ 여성정치발전위원회의 활동지원, ⑥ 여성봉사단 활동계획 수립 및 지원, ⑦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⑧ 여성 대외기구 활동 지원, ⑨ 신생 여성유권자, 직능여성 및 여대생 관련 대외협력 및 지원, ⑩ 의원 부인, 지구당위원장 부인 활동 지원, ⑪ 기타 여성대책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자민련의 중앙당 조직은 <표 II-11>과 같다.

39) 자민련(2000), 각종위원회 현황 자료.

40)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1999), 「정책위원 수첩」, pp.131-134.

<표 II -11> 자민련 중앙당 조직표



2) 시·도지부

자민련은 16개 광역시에 시·도지부를 두고 있다. 시·도지부의 주요 기능으로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업무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이면서, 지구당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시·도지부의 당원수는 지구당수에 따라 다른데, 자민련 경기도지부의 경우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으며, 충남지부의 경우 약 10만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 여성당원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약 70% 정도를 여성당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시·도지부에는 최고결기기관으로 시·도지부 대회가 있다. 기능으로는 ① 시·도지부 위원장의 선출, ② 전당대회 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③ 지구당대회가 건의하는 사항의 심의, ④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등이다. 대의원의 구성은 ① 관할 지구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④ 시·도지부 사무처 및 지구당 사무국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 ⑤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등이다. 대의원 정수는 300명 이상 70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⁴¹⁾ 자민련의 경우, 여성을 분리하여 만든 통계가 없다.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의 수임기구이며 시·도지부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① 시·도지부 대의원대회 위임사항 처리, ②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추천 건의 등이다.⁴²⁾ 경기도나 충남 등 대부분의 시·도지부의 운영위원회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시·도지부의 최고집행기구로는 시·도지부 위원장이 있다. 위원장의 보좌기구로 부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은 시·도지부 내 지역구 위원장 등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지부장의 자문기구로 고문이 있다. 고문은 약 20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충남지부의 경우, 고문은 12명인데, 이 중 여성은 없다. 시·도지부의 경우, 자문위원을 30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지부의 경우 여성 자문위원은 없다. 시·도지부에는 시·도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성은 시·도지부 위원장 및 시·도 자치단체장, 시·군·구 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총무단, 시·도지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부에는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의회 의원총회를 두고 있다. 시·도에는 상황에 따라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⁴³⁾ 충남지부의 경우, 청년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 30명이다. 이 중 여성은 없다.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약 35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지부의 여성위원회는 지구당의 여성부장 내지 여성위원회의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위원회는 선거철이 아닌 평상시에는 도내에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회의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선거시에는 선거운동을 한다. 시·도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가 있다. 사무처 하부조직으로는 조직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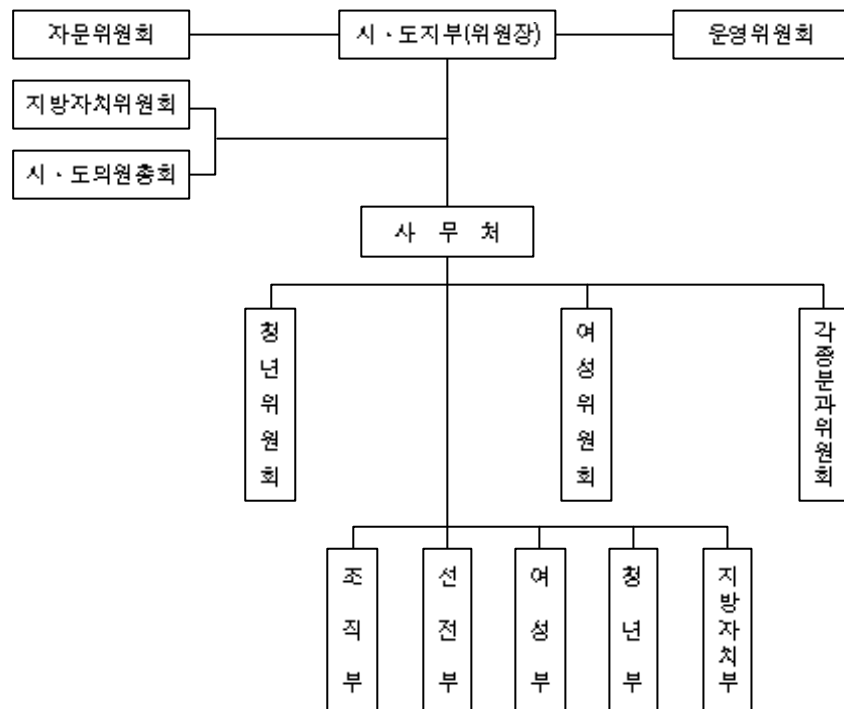
41) 자유민주연합(1995, 6, 7), 당 규정 제정(안): 제 2차 당무회의심의자료, p1.

42) 시·도지부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① 시·도지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자문위원장, ② 시·도 자치단체장, ③ 시·군·구 자치단체장, ④ 시·도의회 의원, ⑤ 시·군·구의회 의원, ⑥ 시·도지부 사무처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 ⑦ 지구당 사무국장 및 시·도지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시·도지부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지방조직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3) 자유민주연합(1998.7), 앞의 책, pp.78-83.

전부, 여성부, 청년부, 지방자치부를 둘 수 있는데, 예산관계상 없는 조직이 많다. 2000년 2월 현재 16개 시·도지부의 사무처 직원의 경우 부국장급 이상인 사무처장은 14명이 있는데, 여성은 없다. 부국장급인 사무차장의 경우 전체 2명 중 여성은 1명이 있다. 조직부장의 경우 17명의 조직부장 중 여성부장은 2명이 있다.⁴⁴⁾ 자민련의 시·도지부의 조직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자민련 시·도지부 조직표



3) 지구당

2000년 5월 현재 자민련의 지구당수는 170개이다. 지구당의 당원수는 지구당에 따라 차이가 큰데, 적은 지역은 1,000명 미만에서부터 20,000명이 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자민련의 지구당은 지구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의결기능을 가지

44) 중앙당 총무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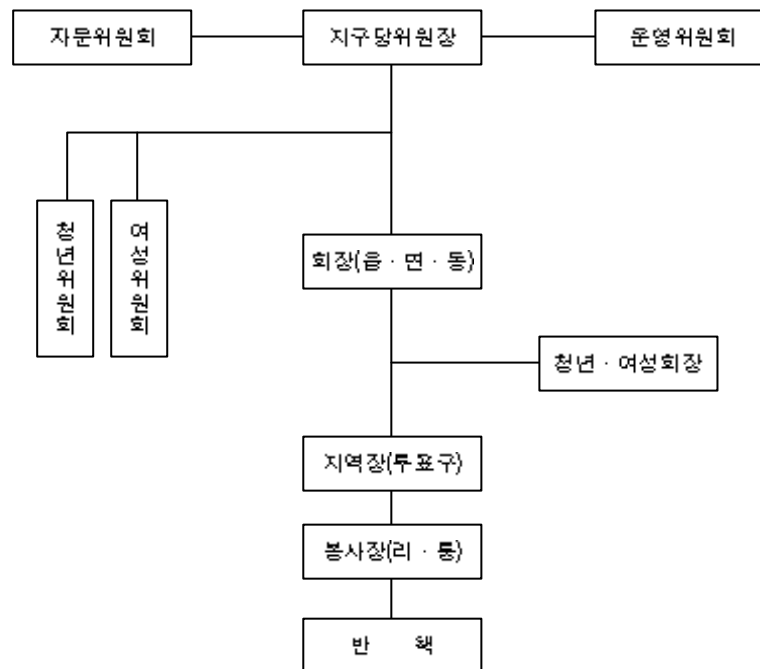
는 지구당대회가 있다. 지구당대회의 대의원수는 200명 이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다. 지구당 대의원은 읍·면·동 당회의에서 선출하는데, 남녀간 정확한 통계는 없다.

지구당 대회의 수입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⁴⁵⁾ 위원은 70명 내외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당을 대표하는 지구당위원장 등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고 있다.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위원장의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지구당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이 있는데, 10명 이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다. 사무국과 약간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약간의 부장을 두고 있다. 지구당 사정에 따라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인원은 30-40명 규모이다. 청년위원회에는 여성이 없고, 여성위원회에만 여성이 있다. 지구당 기간조직으로 읍·면·동 단위에 회장, 청년·여성회장, 투표구 단위에 지역장, 리·동 단위에 봉사장, 반 단위에 반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⁴⁶⁾ 그런데 선거가 없는 평상시의 경우, 사무국장을 제외한 청년위원회, 여성회장의 경우 실제 조직이 없는 지구당이 많은 실정이다. 자민련 지구당의 조직은 <표 II-13>과 같다.

45)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구당 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장, 시·군·구 자치단체장,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 의원,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읍·면·동 당회장, 지구당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46) 자유민주연합(1998, 7), 앞의 책, pp.83-88.

<표 II -13> 자민련 지구당 조직표



나. 정당조직 내 여성당직자 참여현황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의 전체 당원은 약 150만명인데, 여성 당원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⁴⁷⁾은 약 5,000명인데, 여성 대의원은 과소하고 있지 않다. 중앙위원회의 정수는 5,00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⁴⁸⁾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의 중앙위원회 위원정수는 2,551명이다. 이 중 여성 위원은 약 300명(11.7%)이다. 자민련은 70명 이내에서 당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2월 현재 전체 당무위원은 63명이며, 이 중 2명(3.1%)이

47) 전당대회 대의원의 구성은 정당 내 총재, 고위 당직자와 사무처 당직자,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여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48) 구성은 총재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장, 의원, 중앙당 사무처 부국장 이상의 당직자와 시·도지부 사무처장, 당무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이다. 부총재단은 15명 이내에서 둘 수 있으며, 현재 9명이 있는데, 이 중 3명(33.3%)이 여성이다. 부대변인은 전체 11명인데, 이 중 여성은 1명(9%)이다. 당고문은 전체 8명인데, 여성은 없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전체 16명이 있는데, 이 중 여성정치발전특별위원장 1명이 여성이다. 중앙당 사무처 요원 중 여성 실장은 없다. 다만 여성은 국장 12명 중 1명(8.3%), 부국장 24명 중 1명(4.2%)이 있으며, 부장 17명 중 여성은 없다. 차장 20명 중 여성은 9명(45%)이며, 간사 5명 중 여성은 1명(20%)이다<표 II-14>.

<표 II-14> 자민련 중앙당 여성당직자 현황 (2000년 2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당 원	1,500,000	.	.
전당대회 대의원	5,000	.	.
당무위원	63	2	3.1
부총재단	9	3	33.3
부대변인	11	1	9
당고문	8	0	0
상설위원회 위원장	16	1	6
정책자문위원	50	0	0
중앙위원회 위원	2,551	300	11.7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446	59	13.2
국회의원	17	0	0
지구 당위원장	170	3	1.8
사무처			
실·국장	15	1	6.6
부국장	24	1	4.2
부장	17	0	0
차장	20	9	45
간사	5	1	20

2000년 2월 현재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인원은 총 446명인데, 이 중 여성위원은 59명(13.2%)이다. 여성이 분과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해외교포

분과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회이며, 부위원장이 있는 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공보 분과위원회(전체 8명 중 여성 1명), 통상산업분과위원회(전체 6명 중 여성 1명), 건설교통분과위원회(전체 14명 중 1명), 통상산업분과위원회(전체 6명 중 1명), 해외교포위원회(전체 7명 중 4명), 여성분과위원회(6명 중 6명)이며, 여성이 간사로 있는 위원회는 통상산업분과위원회뿐이다.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많은 분과위원회는 여성분과위원회 100%(25명), 해외교포분과위원회 63%(13명), 통상산업분과위원회 16.7%(3명), 교육분과위원회(14.3%)이다. 특히, 해외교포분과위원회에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위원장이 여성이라는 측면이 크다. 자민련의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여성위원 현황은 <표 II-15>와 같다.

<표 II-15> 자민련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여성 당직자현황 (2000년 2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법제사법분과위원회	25	0	0
행정분과위원회	25	0	0
재정경제분과위원회	26	2	7.7
통일외교분과위원회	19	1	5.3
내무분과위원회	29	3	10.3
국방분과위원회	21	1	4.8
교육분과위원회	21	3	14.3
문화체육공보분과위원회	23	2	8.7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27	0	0
통상산업분과위원회	18	3	16.7
정보통신과 학기술분과위원회	15	0	0
환경노동분과위원회	18	0	0
보건복지분과위원회	24	2	8.3
건설교통분과위원회	43	1	2.3
중소기업진흥분과위원회	17	0	0
이북5도분과위원회	18	2	11.1
해외교포분과위원회	20	13	65
여성분과위원회	25	25	100
청년분과위원회	16	1	6.3
19개 분과위 총계	430	59	13.7
전체 운영위원회 총계	446	59	13.2

자료제공 : 자민련 조직국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 정책위원회에는 1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14개의 분과위원회의 총 위원수는 560명이다. 이 중 여성 위원은 21명(3.8%)이다. 14개의 분과위원회 중 여성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1개뿐이다. 14개 분과위원회 중 여성이 많은 분과위는 보건복지 20%(8명), 교육 7.1%(3명) 정도이다. 자민련의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여성위원 현황은 <표 II-16>과 같다.⁴⁹⁾

<표 II-16> 자민련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여성 당직자현황 (2000년 2월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인원(명)	여성(명)	여성비율(%)
법 제 사 법	30	0	0
정 무	36	1	2.7
재 정 경 제	47	0	0
통일외교통상	41	2	4.9
국 방	36	0	0
행 정 자 치	42	0	0
교 육	42	3	7.1
과학기술정보통신	27	0	0
문 화 관 광	40	4	10
농림해양수산	47	0	0
산 업 자 원	41	1	2.4
보 건 복 지	40	8	20
환 경 노 동	34	2	5.9
건 설 교 통	57	0	0
합 계	560	21	3.8

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자민련의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49)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1999), 「정책위원 수첩」, pp.15-130 정리.

첫째, 당장령 및 당헌·당규내용을 들 수 있다.

자민련의 여성 정치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민련의 기본정책 제8조 제3항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그 능력이 사회에서 힘껏 발휘되게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자민련은 당헌·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둘째, 16대 총선과 관련된 공약이다. 자민련은 금번 16대 총선에 앞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 당직자 확대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다. 자민련은 기본적으로 공적 부문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① 국회의원 비례대표 30% 이상 여성 공천 및 지역구 중 당선가능한 지역에 다수의 여성후보를 공천, ② 정당 내 고위직에 여성 당직자를 30% 이상 임명, ③ 여성 정치지도자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후보자의 발굴을 위해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후보자 교육에 지원, ④ 여성 정치후보생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풀시스템 개발 지원 등이다.⁵⁰⁾ 그러나 자민련은 16대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30%를 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자민련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번 16대 총선시 지역구에 170명의 후보 중 여성후보를 3명 공천하였으나⁵¹⁾,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은 지역구에 2명을 공천하였고,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33명의 후보 중 여성후보는 6명(19.4%)을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여성은 없다. 자민련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는 달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민련은 여성 당직자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당헌·당규에 명시 없이 고위당직자인 당무위원, 고문,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당고위층의 추천에 의해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민련은 원내총무의 경우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하는데, 대체로 다선 의원이

50) 자민련(2000, 3), 자민련 여성공약.

51) 16대 지역구 여성공천자 3명은 신은숙(서초 갑), 김을동(성남시 수정구), 김문자(부산 북강서울) 후보이다.

임명된다. 당내 각종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실·국에서 추천하기도 한다. 자민련은 여성정치발전위원회와 여성위원회의 위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국에서 여성당직자를 추천하거나 또는 협의 없이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국, 조직국에서 부위원장을 일부 추천하는데, 거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소속 위원회의 장이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위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련은 기획조정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로 각급 선거와 관련하여 자민련이 해야 할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자민련의 중장기계획에는 여성당직자의 확대 및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수립한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자민련은 2000년 2월 9일 '여성의 정치참여의 세력화, 조직화, 전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6대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4. 주요 정당들의 여성 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한

가. 여성당직자의 현황에 대한 비교 평가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 내 여성 당직자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해 왔으나, 아직 비중있는 당직이나 고위당직에 대한 여성 참여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의 여성당직자는 당직의 종류에 따라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전체의 30%선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각종 당직에 있어 여성 당직자 비율은 10%선이 가장 많았다. 실제 세 당의 여성당직자의 참여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당 내 중앙당 여성 당직자비율은 2000년 5월 현재 당무위원의 경우 14.6%, 상임고문 0%, 고문 11.1%로 1995년 당시 당무위원 9.9%, 고문 0%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⁵²⁾ 그리고 민주당의 부총재급인 지도위원은 13.3%, 정

52) 장성자·김원홍(1995),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68.

책위원회 의장·부위원장 0%, 부대변인 16.7%,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위원장 4.3%, 상설 및 비상설위원회 부위원장 14.4%, 국회의원 7.8%, 지구당 위원장 2.7%, 사무처 실·국장 3.2%, 부국장 8.0%, 전문위원 9.5%, 부장 18.6%, 차장 30% 수준이다. 특히, 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당무위원의 비율과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0년 5월 현재 한나라당의 여성 당직자비율은 당무위원 5.5%, 고문 30%, 부총재 18.2%, 부대변인 12.5%, 국제자문위원 0.7%, 정책위원회 위원 13%, 중앙위원회 위원 9.1%, 국회의원 4.5%, 지구당 위원장 2.2%, 사무처 국장 4.3%, 부국장 13.0%, 부장 11.9%, 차장 16.4%, 정책연구위원 6.7% 수준이다. 1995년 당시 중앙당의 주요 여성 당직자의 비율은 당무위원 4.4%, 고문 10%, 국제자문위원 2.9%, 중앙위원회 위원 7.4%, 각급 위원회 10.7%, 지구당 위원장 0.8%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비율이다.⁵³⁾ 한나라당의 경우, 세 당 중 고문의 여성고문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의 중앙당 여성 당무위원 비율은 3.1%, 고문 0%, 부총재단 33.3%, 부대변인 9%, 상설위원회 위원장 6%, 중앙위원회 위원 11.7%,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13.2%, 정책위원회 분과위원 3.8%이다. 그리고 2000년 5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없고, 지구당 위원장은 1.8%이다. 2000년 2월 현재 사무처 실·국장 1명, 부국장 4.1%(1명) 등으로, 1995년 당시 당무위원 8.1%, 총재특보 10.1%에 비하여 떨어진 상황이다.⁵⁴⁾ 자민련의 경우, 세 당 중 부총재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 당의 여성 당직자의 참여율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원회처럼 비중이 높은 당직일수록 참여가 거의 없고, 비중이 낮은 당직이나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당무위원이나 부총재, 부대변인 등의 당직에 여성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구색 맞추기식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 당의 중앙당 여성 당직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여성 당직자의 비율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

53) 위의 책, p.58.

54) 위의 책, p.85.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자민련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현황 비교 내용은 <표 II-17>과 같다.

<표 II-17>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현황 비교

단위 : %, (명)

당직 내용	새천년민주당 (여성/전체)	한나라당 (여성/전체)	자민련 (여성/전체)
당 원	50%이상(전체 당원수 150만명 : 추정치)	미확인	50%이상(전체 당원수 150만명 : 추정치)
전당대회 대의원	미확인	24.7% (1,895명/17,684명)	미확인
당무위원	14.6%(6명/41명)	5.5%(3명/55명)	3.1%(2명/63명)
부 총 재	없는 당직임	18.2%(2명/11명)	33.3%(3명/9명)
지도위원(부총재급)	13.3%(2명/15명)	없는 당직임	없는 당직임
상임고문	0%(0명/7명)	없는 당직임	없는 당직임
고 문	11.1%(2명/18명)	27.2%(3명/11명)	0%(0명/8명)
자문위원	미확인	0.7%(1명/138명) (국책자문위원)	0%(0명/50명)
부대변인	16.7%(2명/12명)	12.5%(1명/8명)	9%(1명/11명)
원내 부총무	미확인	0%(0명/9명)	미확인
중앙위원회의 위원	미확인	9.1% (1,000명/11,000명)	11.7%(300명/2,551명)
중앙위원회의 분과 위 운영위원	미확인	16.6%(84명/505명)	13.2%(59명/446명)
정책위원회의 위원	3.7%(1명/16명) (의장, 부의장단)	13%(30명/230명) (여성정책위원회)	3.8%(21명/560명) (분과위원회의 위원)
각종 분과위원회	4.3%(1명/23명) (상설·비상설위원회의 위원장) 14.4%(52명/361명) (상설·비상설위원회 부위원장)	미확인	6%(1명/16명)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국회의원(16대)	7.8%(9명/115명)	4.5%(6명/133명)	0%(0명/17명)
지구당위원장	2.7%(6명/225명)	2.2%(5명/225명)	1.8%(3명/170명)
전국구 후보(16대)	32.6%(6명/225명)	23.9%(5명/225명)	19.4%(3명/170명)
실·국장	3.2%(1명/31명)	4.3%(1명/23명)	6.6%(1명/15명)
부 국 장	8.0%(2명/25명)	13.0%(3명/23명)	4.2%(1명/24명)
부 장	18.6%(16명/86명)	11.9%(5명/42명)	0%(0명/17명)
차 장	30.0%(3명/10명)	16.4%(10명/61명)	45%(9명/20명)

나.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비교 평가

정당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정당 내 여성당원은 과반수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의 여성의 당직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들은 당의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 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은 없다. 단지 여성의 당직 확대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성의 일부를 당직에 참여하도록 당헌·당규에 명시한 정도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및 시·도지부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의 경우 선출하는 대의원의 30% 이상을 여성 대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무위원회 여성과 45세 이하의 위원 15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무처 인사와 관련하여 총재의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에 10명 이하의 위원 중 여성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지구당 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중 여성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총재 12인 중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정도이다. 자민련의 경우, 여성 당직자의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번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주요 정당들이 노력해 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공천한 여성후보자의 수는 민주당의 경우 6명을 공천하여 15대 총선때의 6명과 같았으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부 여성을 공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5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지난 15대 총선때 1명 공천하였던 것에 비하여 4명 늘었고, 자민련은 3명으로 지난 15대 총선때에 비해 1명 더 공천하였으나, 당선율은 민주당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은 43명의 후보 중 여성후보를 14명(32.6%) 공천하였고, 이 중 5명이 당선되었다.⁵⁵⁾ 한나라당은 46명의 전체 후보 중 여성후보 11명(23.9%)을 공천하

55) 민주당의 14명의 전국구 여성후보의 순번과 당선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2번(최영희),

였고, 이 중 5명이 당선되었다.⁵⁶⁾ 자민련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33명의 후보 중 6명(19.4%)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⁵⁷⁾ 15대 총선 당시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자 공천비율은 새정치국민회의 15%, 한나라당 15%, 자민련 7%였다. 16대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주요 정당들의 여성공천 비율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금년 2월에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한 데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지킨 정당은 새천년민주당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 8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토록 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공천심사위원 6명 중 여성을 1명 포함시킨 바 있다. 자민련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는 달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여성공천비율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순이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공천에 있어 공약으로 30%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여성후보의 육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 냈다. 우리 나라의 정당사는 정권획득을 주요 목표로 둔 역사적 상황에서 그 동안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교육이나 훈련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정당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여성 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들은 선거 당시에만

5번(한명숙), 8번(이미경), 11번(허운나), 14번(김방림), 20번(김화중), 23번(조배숙), 26번(안상현), 29번(송화섭), 32번(박금자), 35번(안희숙), 37번(안순덕), 39번(김영주), 42번(유승희)이었고, 당선자는 2번(최영희), 5번(한명숙), 8번(이미경), 11번(허운나), 14번(김방림)이다.

56) 한나라당의 11명의 전국구 여성후보의 순번 및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여성후보는 3번(이연숙), 9번(전재희), 13번(김정숙), 19번(임진출), 21번(손희정), 22번(김영선), 31번(김경환), 35번(최경희), 38번(박윤숙), 43번(정은숙), 46번(안성화)이며, 당선자는 3번(이연숙), 9번(전재희), 13번(김정숙), 19번(임진출), 21번(손희정)이다.

57) 자민련의 6명의 전국구 여성후보의 순번은 다음과 같다. 여성후보 순번은 8번(황산성), 12번(이미영), 16번(김창희), 18번(김종희), 29번(김용남), 31번(김종례)이었고,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정치훈련전담기구의 설치 내지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거의 그 공약은 없던 것이 된다. 현재 주요 정당들은 당내 연수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실제,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연수원에서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없다. 단지 새천년민주당은 정기적으로 1달에 한번씩 시·도지부 여성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한 '주부 모니터팀단' 발대식을 갖고, 연수기회를 가진 정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집권당 시절에는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1박 2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성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제3차 동시 지방선거까지 1,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매기마다 50-60명의 당직자 내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중 당직자의 비율이 약 60% 정도 된다고 한다. 동 교육은 1개기 8주과정을 원칙으로 진행하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자민련의 경우도 연수원을 두고 있으나, 여성 당직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다. 단지 금년 3월 초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정치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고작이다. 우리의 여성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이나 훈련 없이 여성후보만 찾다보니 출마 여성 후보들도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금년 제16대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들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은 방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대의원 및 당무위원, 부총재 등의 당직에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여성의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정당마다 차별적으로 여성의 당직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이루어 온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세 당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현상으로 정당 내 여성당직자들은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원내총무 등 비중있는 당직자에는 한 명도 포함됨이 없이, 주로 여성 관련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여성 당직자를 발굴 및 충원

하려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당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의 내용은 <표 Ⅱ-18>과 같다.

<표 Ⅱ-18>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지원정책 내용

구 분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당헌·당규에 보장	-전국대의원 대회 및 시·도지부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의 경우 선출하는 대의원의 30% 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 -당무위원에 여성과 45세 이하의 위원을 합하여 15명 이상 포함 -인사위원회 10명 이하의 위원 중 여성위원장이 당연직 참여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중 여성을 30% 이상 구성 -부총재 12명 중 1명 이상의 여성 포함	-내용 없음
교육·훈련	-내용 없음	-2002년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 1,000명을 목표로 '여성정치아카데미'운영	-내용 없음
기타	-16대 총선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의원 1명 포함	-16대 총선공천심사위원회에 전직 여성장관 1명 포함	-내용 없음

Ⅲ.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 조사에 관한 개요

가. 조사대상자 및 인원수

질문지 우편 조사방법을 통하여 중앙 당직자 300명 지방 당직자 300명 총 6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51명 정도였다. 설문지를 통해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현황, 여성의 당직자 진출과 주요 당직으로의 진출에 대한 의견 및 정치활동 전망, 남녀 성역할 의식 그리고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중앙 및 시·도지부, 지구당의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12월 초부터 2000년 1월 중순 까지 한달 반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3개 정당의 여성국에서 중앙당직자 중 일부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도와 주었으며, 나머지 중앙 당직자의 설문은 직접 본원에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⁵⁸⁾ 이렇게 해서 회수된 설문지를 정당별, 남녀별, 중앙/지방별로 분류하면 <표 Ⅲ-1>에서와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97명(27.6%), 한나라당 118명(33.6%), 자유민주연합 136명(38.7%)이고, 이를 중앙과 지방당직자로 분류하면 중앙당직자는 144명(41.0%), 지방 당직자는 207명(59.0%)이다. 그런데 총 351명 중 11명이 성별을 표기하지 않아 성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누락시켰다.

58) 질문지 우편조사에서는 다수의 설문지가 이사 및 주소불명으로 설문응답이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표 III

.단위 : 명

구 분	정 당 명	남성	여성	계
중앙	새정치국민회의 ⁵⁹⁾	16	15	32
	자유민주연합	30	26	56
	한나라당	18	34	52
	소 계	64(45.7%)	75(54.3%)	140(100.0%)
지방	새정치국민회의	20	40	60
	자유민주연합	21	56	77
	한나라당	22	41	63
	소 계	63(31.5%)	137(68.5%)	200(100.0%)
전체		127(37.4%)	213(62.6%)	340(100.0%)

나. 질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질문지는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인의 정당활동, 여성의 당직자 진출, 여성의 주요당직자 진출에 대한 당직자 의견,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전망, 남녀당직자의 성 역할 의식 비교,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요구도 파악, 개인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2 를 활용하였으며, 성역할 의식은 t-test, 그리고 태도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분석 대상자는 남성 127명, 여성 213명 총340명이다. 정당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92명(27.1%), 자유민주연합 133명(39.1%), 한나라당 115명 (33.8%)이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127명(37.4%), 여성 213명(62.6%)로 남성 대 여성의 4:6의 비율로 볼 수 있다. 연령은 20대 37명(10.9%), 30대 91명(26.8%), 40대 116명(34.2%), 50대 68명(20.1%), 60세 이상이 27명(8.0%)으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학

59) 조사시기에는 새천년민주당의 당명이 새정치국민회의였음.

력은 중졸 6명(1.8%), 고졸 86명(25.3%), 전문대졸 47명(13.8%), 대졸 151명(44.4%), 대학원졸 47명(13.8%)이 응답하여 대졸, 고졸이 주를 이루었다.

생활정도에 대하여는 상류층(풍족한 편)은 25명(7.4%), 중산층(보통수준) 289명(85.3%), 하류층(곤란한 편)은 25명(7.4%)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정도를 중산층(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당활동 지속년도에 대하여는 1-2년 67명(19.8%), 3-4년 67명(19.8%), 5-7년 64명(18.9%), 7-10년 42명(12.4%), 10년-15년 52명(15.4%), 15년 이상 46명(13.6%)으로 나타나 응답자 전체(338명) 중 5년 이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당직자는 204명으로 60.4%가 된다. 이는 정당활동에 비교적 지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활동을 하면서 당적을 옮긴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옮긴 적이 있다 79명(23.4%), 옮긴 적이 없다 259명(76.6%)이고 당적을 옮긴 이유에 대하여는 합당이 되어서 42명, 타당에서 주요직 제의가 있어서 7명, 당시의 업무가 못마땅해서 6명, 소속했던 정당이 야당이 되어서 8명, 기타에 11명이 응답하였다.

정당 내에서의 현재의 지위에 대하여는 주요당직자(총재단, 당무위원, 고문, 정책위원, 국책위원, 중앙위원회 임원, 공천심사위원회 등)는 44명(13.2%), 일반당직자 86명(25.7%), 전당대회 대의원 28명(8.4%), 지구당 대의원 24명(7.2%),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처 당직자 133명(39.8%), 기타 19명(5.7%)으로 나타나 사무처 당직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주요당직자 지위에도 44명이 있다.

한편 현재의 정당활동에서의 당직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37명(40.1%)이 다른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자영업(사업가) 90명(30.3%),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에 24명(8.1%), 판매/서비스직(외판원, 영업사원 등) 22명(7.4%), 행정/관리직(주요직 회사원) 8명(2.7%), 생산직(노동/일용직) 3명(1.0%)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정당활동을 자신의 작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113명(33.4%), 인천 16명(4.7%), 부산 11명(3.3%), 강원 26명(7.7%), 대전 21명(6.2%), 충남 8명(2.4%), 충북 22명(6.5%), 광주 29명(8.6%),

전남 5명(1.5%), 전북 17명(5.0%), 대구 24명(7.1%), 경북 9명(2.7%), 경기 28명(8.3%), 제주 9명(2.7%)이었다. 서울 지역은 중앙당 당직자와 서울지부가 같이 소속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127(36.2)	213(60.7)	340(100.0)
연령	20-29세	5(3.9)	32(15.1)	37(10.9)
	30-39세	52(40.9)	39(18.4)	91(26.8)
	40-49세	51(40.2)	65(30.7)	116(34.2)
	50-59세	12(9.4)	56(26.4)	68(20.1)
	60세이상	7(5.5)	20(9.4)	27(8.0)
	소계	127(100.0)	212(100.0)	339(100.0)
학력	초등학교졸	-	-	-
	중학교졸	-	6(2.8)	6(1.8)
	고등학교졸	12(9.4)	74(34.7)	86(25.3)
	전문대졸	10(7.9)	37(17.4)	47(13.8)
	대학교졸	73(57.5)	78(36.6)	151(44.4)
	대학원졸	32(25.2)	15(7.0)	47(13.8)
	기타	-	3(1.4)	3(0.9)
	소계	127(100.0)	213(100.0)	340(100.0)
결혼상태	미혼	18(14.4)	34(16.3)	52(15.6)
	유배우자	107(85.6)	155(74.2)	262(78.4)
	배우자사망	-	17(8.1)	17(5.1)
	이혼	-	3(1.4)	3(0.9)
	소계	125(100.0)	209(100.0)	334(100.0)
생활정도	상류	7(5.5)	18(8.5)	25(7.4)
	중류	106(83.5)	183(86.3)	289(85.3)
	하류	14(11.0)	11(5.2)	25(7.4)
	소계	127(100.0)	212(100.0)	339(100.0)
정당활동기간	1-2년	22(17.5)	45(21.2)	67(19.8)
	3-4년	26(20.6)	41(19.3)	67(19.8)
	5-7년	22(17.5)	42(19.8)	64(18.9)
	7-10년	15(11.9)	27(12.7)	42(12.4)
	10-15년	19(15.1)	33(15.6)	52(15.4)
	15년이상	22(17.5)	24(11.3)	46(13.6)
	소계	126(100.0)	212(100.0)	338(100.0)

(계 속)

Ⅲ. 우리나라 주요정당의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9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127(36.2)	213(60.7)	340(100.0)
당적을 옮긴 경험	있다	35(27.8)	44(20.8)	79(23.4)
	없다	91(72.2)	168(79.2)	259(76.6)
	소계	126(100.0)	212(100.0)	338(100.0)
당적을 옮긴 이유 (이동경험자만)	합당이 되어서	24(70.6)	18(45.0)	42(56.8)
	주요직(당직)제외가 있어서	1(2.9)	6(15.0)	7(9.5)
	당시의 업무가 못마땅해서	1(2.9)	5(12.5)	6(8.1)
	소속정당이 야당이 되어서	2(5.9)	6(15.0)	8(10.8)
	기타	6(17.6)	5(12.0)	11(14.9)
	소계	34(100.0)	40(100.0)	74(100.0)
정당내 지위	주요당직자	12(9.5)	32(15.4)	44(13.2)
	일반당직자	27(21.4)	59(28.4)	86(25.6)
	전당대회 대의원	8(6.3)	20(9.6)	28(8.4)
	지구당 대의원	2(1.6)	22(10.6)	24(7.2)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처 당직자	69(54.8)	64(30.8)	133(39.8)
	기타	8(6.3)	11(5.3)	19(5.7)
	소계	115(100.0)	213(100.0)	297(100.0)
당직 외의 직업	없음	47(40.9)	90(49.5)	137(46.1)
	전문직	6(5.2)	18(9.9)	24(8.1)
	행정/관리직	3(2.6)	5(2.7)	8(2.7)
	사무직	7(6.1)	6(3.3)	13(4.4)
	판매/서비스직	5(1.7)	17(9.3)	22(7.4)
	자영업	47(40.9)	43(23.6)	90(30.3)
	생산직	-	3(1.6)	3(1.0)
	소계	115(100.0)	213(100.0)	297(100.0)
거주지	서울	45(35.7)	68(32.1)	113(33.4)
	인천	8(6.3)	8(3.8)	16(4.7)
	부산	2(1.6)	9(4.2)	11(3.3)
	강원	8(6.3)	18(8.5)	26(7.7)
	대전	7(5.6)	14(6.6)	21(6.2)
	충남	1(0.8)	7(3.3)	8(2.4)
	충북	4(3.2)	18(8.5)	22(6.5)
	광주	5(4.0)	24(11.3)	29(8.6)
	전남	1(0.8)	4(1.9)	5(1.5)
	전북	8(6.3)	9(4.2)	17(5.0)
	대구	13(10.3)	11(5.2)	24(7.1)
	경북	5(4.0)	4(1.9)	9(2.7)
	경기	14(11.1)	14(6.6)	28(8.3)
	제주	5(4.0)	4(1.9)	9(2.7)
	소계	126(100)	212(100)	338(100)

2.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관한 의견

가.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정당활동을 하게 될 경우 주로 주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당가입을 권유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남성당직자와 여성당직자 각각 44.1%, 29.1%의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본인 스스로'이며, 다음으로는 '동창/선후배/친구', '정당원'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11.087$ df=6 p=.086).

이러한 응답은 중앙과 지방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부표 1>, 중앙에서의 남녀와 지방에서의 남녀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응답대상이 당직을 맡고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정당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의 여성당직자와 지방의 여성당직자를 비교해 보면, 중앙 여성당직자는 '본인 스스로'가 많은 반면, 지방의 여성당직자는 '동창/선후배/친구'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중앙당직자와 차이를 보였다. 남성당직자의 경우에서도 지방보다 중앙에서 본인 스스로 정당가입을 결정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본인 스스로	56(44.1)	62(29.1)	118(34.7)
후보자	11(8.7)	27(12.7)	38(11.2)
지역유지	8(6.3)	17(8.0)	25(7.4)
친척	3(2.4)	15(7.0)	18(5.3)
동창, 선후배, 친구	29(22.8)	49(23.0)	78(22.9)
정당원	16(12.6)	37(17.4)	53(15.6)
기타	4(3.1)	6(2.8)	10(2.9)
계	127(100.0)	213(100.0)	340(100.0)

$\chi^2=11.087$ df=6 p>.05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나.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

정당활동을 하기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당 가입 이전의 직업을 알아보았다. 남녀당직자는 경력 또는 일을 해온 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chi^2=34.361$ df=7 p=.000), <표 Ⅲ-2-2>에서와 같이 남성의 경우 자영업 39.2%, 사무직 15.2%, 전문직 1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는 무직에 2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18.9%, 전문직 14.2%, 사무직 10.8%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당직자의 경우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무직의 비율은 지방에서 31.4%로 중앙의 12%보다 높았으며, 전문직의 비율도 중앙이 26.7%로 지방의 7.3%보다 훨씬 높았고, 자영업의 비율도 지방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전문직(교수, 의사)	9(4.3)	7(1.3)	16(2.8)	20(26.7)	10(7.3)	30(14.2)	46(13.6)
행정/관리직(고위직)	5(7.9)	4(6.5)	9(7.2)	3(4.0)	5(3.6)	8(3.6)	17(5.0)
사무직(일반직)	8(2.7)	11(7.7)	19(15.2)	2(2.7)	21(15.3)	23(10.8)	42(12.5)
판매/서비스직(외관원 등)	4(6.3)	4(6.5)	8(6.4)	3(4.0)	13(9.5)	16(7.5)	24(7.1)
자영업(사업가)	25(39.7)	24(38.7)	49(39.2)	18(24.0)	22(16.1)	40(18.9)	89(26.4)
생산직(노동/일용직)	-	-	-	-	2(1.5)	2(0.9)	2(0.6)
무직	3(4.8)	4(6.5)	7(5.6)	9(12.0)	43(31.4)	52(24.5)	59(17.5)
기타	9(4.3)	8(12.9)	17(13.6)	20(26.7)	21(15.3)	41(19.3)	58(17.2)
계	63(100.0)	62(100.0)	125(100.0)	75(100.0)	137(100.0)	212(100.0)	387(100.0)

* $\chi^2=1.049$ df=6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35.323$ df=7 p<.01

다.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정당내에서 자신의 정당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스스로에게 평가하여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에 남성 59.1%, 여성 45.0%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에 속한다는 응답에서 남성은 34.6%, 여성은 39.3%의 응답을 보여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 3.50, 여성 3.26으로 남성·여성당직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으며 남성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하여 보면, 남성당직자($\chi^2=2.476$ df=3 p=.480)는 중앙과 지방의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당직자($\chi^2=14.140$ df=3 p=.003)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중앙에서는 60.5%, 지방에서는 36.3%로 여성의 경우, 지방당직자 보다는 중앙 당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남녀별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36(56.3)	39(61.9)	75(59.1)	46(60.5)	49(36.3)	95(45.0)	170(50.3)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24(37.5)	20(31.7)	44(34.6)	26(34.2)	63(46.7)	89(42.2)	133(39.3)
주로 선거때만 참여	3(4.7)	1(1.6)	4(3.1)	1(1.3)	13(9.6)	14(6.6)	18(5.3)
가입만 함	1(1.6)	3(4.8)	4(3.1)	3(3.9)	10(7.4)	13(6.2)	17(5.0)
계	64 (100.0)	63 (100.0)	127 (100.0)	76 (100.0)	135 (100.0)	211 (100.0)	338 (100.0)
평균값	3.48	3.51	3.50	3.51	3.12	3.26	3.35

* $\chi^2=2.476$ df=3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14.140$ df=3 p<.05

◆ 평균값은 남성·여성당직자의 적극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에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에 3점, 주로 선거때만 참여에 2점, 가입만 함에 1점을 주어 구함.

한편, 정당활동 지속년도와 활동의 적극성은 관계가 있는지를 <표 Ⅲ-2-4>에 서와 같이 알아본 결과($\chi^2=63.524$ df=15 p=.000),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활동을 오래한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당직자의 경우 7년이상 집단부터 66.7%이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해 정당활동을 오래한 집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4> 정당활동기간별 정당활동 적극성 정도

단위 : 명(%)

항 목	1-2년		3-4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8 (36.4)	10 (22.7)	15 (57.7)	13 (31.7)	10 (45.5)	15 (36.6)	13 (66.7)	18 (66.7)	11 (57.9)	23 (69.7)	17 (77.3)	16 (66.7)
적극적인 편	10 (45.5)	20 (45.5)	10 (38.5)	25 (61.0)	12 (54.5)	19 (46.3)	2 (13.3)	7 (25.9)	6 (31.6)	9 (27.3)	4 (18.2)	8 (33.3)
주로 선거때만	3 (13.6)	5 (11.4)	-	1 (2.4)	-	6 (14.6)	-	2 (7.4)	1 (5.3)	-	-	-
가입만 함	1 (4.5)	9 (20.9)	1 (3.8)	2 (4.9)	-	1 (2.4)	-	-	1 (5.3)	1 (3.0)	1 (4.5)	-
계	22 (100.0)	44 (100.0)	26 (100.0)	41 (100.0)	22 (100.0)	41 (100.0)	15 (100.0)	27 (100.0)	19 (100.0)	33 (100.0)	22 (100.0)	24 (100.0)

$\chi^2=63.524$ df=15 $p<.01$

라.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만족/불만족 요인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chi^2=13.178$ df=4 $p=.010$), 남성당직자가 매우 만족 18.3%, 다소 만족 53.2%, 여성당직자가 매우만족 19.3%, 다소 만족 34.3% 응답을 보여 남성당직자의 만족에 대한 응답률은 71.5%인 반면, 여성당직자의 만족율은 53.6%였다. 이를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남성 3.80, 여성 3.56으로 두 집단이 모두 만족한 가운데 남성당직자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부표 4>.

<표 Ⅲ-2-5>에서와 같이, 이를 중앙($\chi^2=5.860$ df=4 $p=.210$)과 지방($\chi^2=11.219$ df=4 $p=.024$)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앙당 남성당직자의 만족율은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을 합하여 70.3%이고, 여성당직자의 만족율은 51.3%이며, 지방에서는 남성 72.6%, 여성 54.9%의 만족률로 남성과 여성당직자간에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당직자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으나,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만족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성과 여성당직자간에는 남성이 훨씬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당직자 간에는 지방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방당

직자의 활동범위가 대면적 친밀도가 높은 소규모 조직인 시·도 지부나 지구당이므로, 중앙당 조직에서 활동하는 당직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I-2-5> 중앙·지방의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항 목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매우 만족	14 (21.9)	11 (14.5)	25 (17.9)	9 (14.5)	29 (22.1)	38 (19.7)
다소 만족	31 (48.4)	28 (36.8)	59 (42.1)	36 (58.1)	43 (32.8)	79 (40.9)
그저그렇다	12 (18.8)	24 (31.6)	36 (25.7)	14 (22.6)	47 (35.9)	61 (31.6)
다소 불만족	5 (7.8)	7 (9.2)	12 (8.6)	2 (3.2)	9 (6.9)	11 (5.7)
매우 불만족	2 (3.1)	6 (7.9)	12 (8.6)	1 (1.6)	3 (2.3)	4 (2.1)
계	64 (100.0)	76 (100.0)	140 (100.0)	62 (100.0)	131 (100.0)	193 (100.0)
평균값	3.78	3.41	3.61	3.97	3.66	3.70

* $\chi^2=5.860$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11.219$ df=4 $p<.05$

◆ 평균값은 정당활동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에 5점, 다소 만족한다에 4점, 그저그렇다에 3점, 다소 불만족한다에 2점, 매우 불만족한다에 1점을 주어 구함.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정당활동 지속년도와 비교해 볼 경우($\chi^2=33.361$ df=20 $p=.031$),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당활동 10-15년에서 매우 만족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정당활동 지속년도가 같은 집단내에서는 남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당활동을 오래한 집단에서 '매우만족'에 응답한 응답률이 높았다.<표 III-2-6>.

<표 Ⅲ-2-6>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항 목	1-2년	3-4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이상	전체
매우 만족	8(12.3)	9(13.4)	9(14.5)	9(22.5)	17(32.7)	10(22.2)	62(18.7)
다소 만족	24(36.9)	35(52.2)	32(51.6)	13(32.5)	17(32.7)	17(37.8)	138(41.7)
그저그렇다	27(41.4)	18(26.9)	17(27.4)	13(32.5)	12(23.1)	9(20.0)	96(29.0)
다소 불만족	2(3.1)	3(4.5)	3(4.8)	4(10.0)	6(11.5)	5(11.1)	23(6.9)
매우 불만족	4(6.2)	2(3.0)	2(3.0)	1(2.5)	-	4(8.9)	12(3.6)
계	65(100.0)	67(100.0)	62(100.0)	40(100.0)	52(100.0)	45(100.0)	331(100.0)
평균값	3.46	3.69	3.74	3.63	3.87	3.53	3.65

$\chi^2=33.361$ df=20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당활동의 적극성과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상관계수 .301로 $p<.01$ 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말한다. 만족도에서 매우만족과 다소만족에 응답을 한 경우 활동의 적극성에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을 합하면 95%이상이 이에 해당되어 적극성을 알 수 있었다<표 Ⅲ-2-7>.

<표 Ⅲ-2-7> 정당활동의 만족도와 활동의 적극성 관계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매우 만족	적극적으로 참여	22(95.7)	34(85.0)	56(88.9)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1(4.3)	5(12.5)	6(9.5)
	주로 선거때만 일한다	-	1(2.5)	1(1.6)
	그저 가입만 했다	-	-	-
소계		23(100.0)	40(100.0)	63(100.0)
다소만족	적극적으로 참여	40(59.7)	32(45.7)	72(52.6)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26(38.8)	35(50.0)	61(44.5)
	주로 선거때만 일한다	1(1.5)	1(1.4)	2(1.5)
	그저 가입만 했다	-	2(2.8)	2(1.5)
소계		67(100.0)	70(100.0)	137(100.0)

* 활동의 적극성과 만족도 상관계수는 .301로 $p<.01$ 에서 유의미함.

정당활동이 만족스럽다고 표시한 응답자에게 본인이 어떠한 만족요인으로 인해 만족하는지 알아본 결과, 남녀당직자간에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chi^2=10.911$ $df=4$ $p=.028$). 남성당직자와 여성당직자 모두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남성 41.6%, 여성 44.0%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남성 37.1%, 여성 26.6%, 그리고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 19.1%, 여성 14.7%가 응답하였다. 한편, 여성당직자의 경우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에 11.0%의 응답을 보인 반면, 남성당직자에서는 1.1%로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정당활동의 만족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8>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요인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7(19.1)	16(14.7)	33(16.7)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33(37.1)	29(26.6)	62(31.3)
적당한 수입/활동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1(1.1)	4(3.7)	5(2.5)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1(1.1)	12(11.0)	13(6.6)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	37(41.6)	48(44.0)	85(42.9)
계	89(100.0)	109(100.0)	198(100.0)

 $\chi^2=10.911$ $df=4$ $p<.05$

그리고, 정당활동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35명에게 어떠한 점이 불만인지를 물었다($\chi^2=11.839$ $df=6$ $p=.066$). 이 중에서 남성당직자는 뚜렷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서에 40.0%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여성당직자의 경우는 남녀간의 차별 때문에 40.0%, 뚜렷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서에 36.0%가 응답하였다. 정당활동의 불만족 요인으로 남녀 공통적인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은 뚜렷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며, 여성당직자의 경우는 남녀차별적 관행이나 행동양식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표 Ⅲ-2-9> 정당활동의 불만족 요인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낮은 수입/활동비를 보장받지 못해서	-	2(8.0)	2(5.7)
뚜렷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서	4(40.0)	9(36.0)	13(37.1)
적성에 안 맞아서	1(10.0)	-	1(2.9)
당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2(20.0)	-	2(5.7)
남녀간의 차별때문에	-	10(40.0)	10(28.6)
장래성이 없어서	1(10.0)	1(4.0)	2(5.7)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	-	-
기 타	2(20.0)	3(12.0)	5(14.3)
계	10(100.0)	25(100.0)	35(100.0)

$\chi^2=11.839$ df=6 $p>.05$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마. 정당내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정당내에서 정하는 당론이나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당직자의 대응태도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chi^2=6.063$ df=3 $p=.109$). 조사결과 <표 Ⅲ-2-10>와 같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 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에 남녀 각각 36.8%, 36.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에 남녀 각각 36.0%, 27.5%가 응답하였다.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 본다’에는 남성은 12.0%인 반면, 여성은 21.8%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비교에서 남성의 경우($\chi^2=.642$ df=3 $p=.887$)는 중앙당직자와 지방당직자의 응답이 동일한 분포를 보였지만, 여성당직자($\chi^2=12.300$ df=3 $p=.006$)는 중앙과 지방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에 중앙은 29.3%, 지방은 40.4%, ‘당의 지도부가 하는일이므로 그냥두고 본다’에 중앙은 13.3%, 지방은 26.5%가 응답함으로써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에 중앙 33.3%, 지방 22.1%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정당의 의사소통의 채널이 공식적 채널만큼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접근이 많다는 점과, 여성당직자의 경

우 중앙의 여성당직자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조직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의 여성당직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Ⅲ-2-10>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단위: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 본다	8 (12.7)	7 (11.3)	15 (12.0)	10 (13.3)	36 (26.5)	46 (21.8)	61 (18.2)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다	11 (17.5)	8 (12.9)	19 (15.2)	15 (20.0)	15 (11.0)	30 (14.2)	49 (14.6)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22 (34.9)	24 (38.7)	46 (36.8)	22 (29.3)	55 (40.4)	77 (36.5)	123 (36.6)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조직에 전달 되도록 한다	22 (34.9)	23 (37.1)	45 (36.0)	28 (37.3)	30 (22.1)	58 (27.5)	103 (30.7)
계	63 (100.0)	62 (100.0)	125 (100.0)	75 (100.0)	136 (100.0)	58 (100.0)	336 (100.0)

* $\chi^2=.642$ $df=3$ $p>.05$ (남성은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12.300$ $df=3$ $p<.01$

바. 정당의 여성당직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평가

당직자가 보는 자신의 소속정당의 여성당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남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chi^2=1.921$ $df=3$ $p=.589$). <표 Ⅲ-2-11>와 같이 남성당직자 81.6%, 여성당직자 77.0%가 소속 정당이 여성당원의 능력개발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2.2%, 새정치 국민회의 50.0%, 자유민주연합 32.1%로 나타났다<부표 13>. 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볼 경우, 중앙 여성당직자의 69.8%, 지방 여성당직자 81.1%로 지방에서 여성능력개발 및 활용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부표 14>.

<표 Ⅲ-2-11> 정당의 여성당직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가능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53(42.4)	95(44.6)	148(43.8)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다	49(39.2)	69(32.4)	118(34.9)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18(14.4)	38(17.8)	56(16.6)
잘모르겠다.	5(4.0)	11(5.2)	16(4.7)
계	125(100.0)	213(100.0)	338(100.0)

$\chi^2=1.921$ df=3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사. 남녀당직자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정당활동에 있어서 남성당원과 여성당원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어느점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1순위 응답에서 남녀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라는 응답으로 남녀 각각 37.4%, 48.5%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당직 임명’ 22.6%, ‘업무부여’ 15.7%로 나타나고, 여성은 ‘후보자 공천을 받을 때’ 22.5%, ‘당직임명’ 21.0%로 나타났다. 한편, 2순위 응답($\chi^2=8.753$ df=4 $p=.068$)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이 ‘당직임명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당직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남녀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야

단위 : 명(%)

항 목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43(37.4)	97(48.5)	140(44.4)	12(11.1)	29(15.7)	41(14.0)
당직임명에 있어서	26(22.6)	42(21.0)	68(21.6)	35(32.4)	49(26.5)	84(28.7)
보수나 활동비 면에서	3(2.6)	6(3.0)	9(2.9)	3(2.8)	20(10.8)	23(7.8)
후보자 공천을 받을 때	25(21.7)	45(22.5)	70(22.2)	28(25.9)	48(25.9)	76(25.9)
업무부여에 있어서	18(15.7)	10(5.0)	28(8.9)	30(27.8)	39(21.1)	69(23.5)
계	115(100.0)	200(100.0)	315(100.0)	108(100.0)	185(100.0)	293(100.0)

* $\chi^2=11.494$ df=4 $p<.05$

** $\chi^2=8.753$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한편, 남녀차별이 이루어지는 분야 1순위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구분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중앙($\chi^2=10.545$ df=4 $p=.032$)과 지방($\chi^2=6.318$ df=4 $p=.177$)의 차이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남녀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하여는 중앙당직자와 지방당직자간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음도 알 수 있다.

<표 Ⅲ-2-13> 남녀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1순위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19(33.9)	24(40.7)	43(37.4)	32(42.7)	65(52.0)	97(48.5)
당직임명에 있어서	12(21.4)	14(23.7)	26(22.6)	19(25.3)	23(18.4)	42(21.0)
보수나 활동비 면에서	3(5.4)	-	3(2.6)	1(1.3)	5(4.0)	6(3.0)
후보자 공천을 받을 때	11(19.6)	14(23.7)	25(21.7)	20(26.7)	25(20.0)	45(22.5)
업무부여에 있어서	11(19.6)	7(11.9)	18(17.7)	3(4.0)	7(5.6)	10(5.0)
계	56(100.0)	59(100.0)	115(100.0)	75(100.0)	125(100.0)	200(100.0)

* $\chi^2=10.545$ df=4 $p<.05$

** $\chi^2=6.318$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3. 여성당직자 진출에 대한 의견

가. 당직자 여성비율 증대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비율이 10% 미만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당직자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표 Ⅲ-3-1>에서와 같이 남녀간에는 현격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경우에도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남녀당직자의 의견은 현재수준(10%)이 적당하다에 남녀 각각 18.5%, 6.2%, 2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남 39.5%, 여 20.0%,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남 29.8%, 여 53.8%, 4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남 6.5%, 여 6.2%, 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남 1.6%, 여 12.9%로 나타났다.

30%이상-50%까지 여성당직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남성당직자는 전체의 37.9%인 반면, 여성당직자는 72.9%가 5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만을 보았을 때 남성은 1.6%, 여성은 12.9%가 응답함으로써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당직자도 여성당직자의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확대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지방 남성당직자의 경우에 더 많은 응답률(23.0%)을 보여 지방에서 여성의 당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임이 나타난다<부표 18>.

<표 Ⅲ-3-1> 여성당직자 확대의 적정비율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현재 수준(10%)이 적당하다.	23 (18.5)	13 (6.2)	36 (10.8)
2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49 (39.5)	42 (20.0)	91 (27.2)
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37 (29.8)	113 (53.8)	150 (44.9)
4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8 (6.5)	13 (6.2)	21 (6.3)
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2 (1.6)	27 (12.9)	29 (8.7)
기 타	5 (4.0)	2 (1.0)	7 (2.1)
계	124 (100.0)	210 (100.0)	334 (100.0)

$\chi^2=46.811$ df=5 $p<.01$

나.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정당내 여성당직자가 확대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남녀당직자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남성과 여성응답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표 Ⅲ-3-2>와 같이 남성당직자는 '여성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 '여성문제의 해결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에 각각 32.5%의 응답을 보였고, 여성당직자는 '정치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에 31.1%, '여

성문제의 해결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에 28.8%, '여성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에 27.4%가 응답을 하였다.

여성당직자가 '정치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사회 정치문화의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에 응답을 한 응답자가 31.1%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1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현재의 정치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표 Ⅲ-3-2>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14 (11.1)	4 (1.9)	18 (5.3)
여성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	41 (32.5)	58 (27.4)	99 (29.3)
여성 후배 정치인 육성이 활발해 질 것이다.	15 (11.9)	23 (10.8)	38 (11.2)
여성 문제의 해결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41 (32.5)	61 (28.8)	102 (30.2)
정치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15 (11.9)	66 (31.1)	81 (24.0)
계	126 (100.0)	212 (100.0)	338 (100.0)

$$\chi^2=24.057 \quad df=4 \quad p<.01$$

다. 소속 정당의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정당내 당직자들은 현재의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여성당직자간에 중앙와 지방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3-3>에서와 같이 전체응답자의 3.6%만이 매우만족을 표시하고, 다소만족에도 24.0%가 응답하여, 전체응답자 중 27.6%만이 만족을 나타내어 만족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평균값으로 알아보면 남성은 평균값 3.05로 그저그렇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여성은 2.92로 다소 불만족한 편으로, 남성당직자의 만족도가 여성당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균값 2.97).

여성당직자의 경우 중앙에서는 매우만족 2.6%, 다소만족 11.8%, 지방의 경우는 매우만족 3.7%, 다소만족 29.6%로 나타나 만족도에서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경우를 보아도 중앙의 여성당직자 불만족률 36.8%, 지방의 여성당직자의 불만족률 26.7%로 중앙의 여성당직자가 지방당직자보다는 불만족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직자 총원 방식에 대하여는 중앙 여성당직자 보다는 지방의 여성당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3> 당직자 총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매우만족	2(3.1)	3(4.8)	5(3.9)	2(2.6)	5(3.7)	7(3.3)	12(3.6)
다소만족	16(25.0)	16(25.4)	32(25.2)	9(11.8)	40(29.6)	49(23.2)	81(24.0)
그저그렇다	34(53.1)	30(47.6)	64(50.4)	37(48.7)	54(40.0)	91(43.1)	155(45.9)
다소불만족	7(10.9)	10(15.9)	17(7.1)	20(26.3)	29(21.5)	49(23.2)	66(19.5)
매우불만족	5(7.8)	4(6.3)	9(7.1)	8(10.5)	7(5.2)	15(7.1)	24(7.1)
계	64(100.0)	63(100.0)	127(100.0)	76(100.0)	135(100.0)	211(100.0)	338(100.0)
평균값	3.05	3.06	3.05	2.70	3.05	2.92	2.97

* $\chi^2 = 1.083$ df=4 $p > .05$ (남성은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 = 10.084$ df=4 $p < .05$

◆ 평균값은 남성·여성당직자의 당직자 총원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에 5점, 다소만족에 4점, 그저그렇다에 3점, 다소불만족에 2점, 매우불만족에 1점을 주어 구함.

라. 여성당직자 진출 확대에 필요한 요인

여성이 당직자로 진출하기 위해서 개인적·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남녀 당직자의 의견을 물은 결과, 남성과 여성당직자 간에는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중앙과 지방의 남녀간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당직자는 여성당직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에 34.6%,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총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

어야 한다에 28.3%,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에 27.6%가 응답한 반면, 여성당직자는 48.4%의 높은 응답비율이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나타났고,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는 항목에는 26.8%, 여성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에 17.8%가 응답하였다<표 Ⅲ-3-4>. 이러한 응답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부표 21>, 중앙 여성당직자의 52.1%, 지방 여성당직자의 44.9%가 주요당직자의 인식변화를 가장 필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은 여성당직자 의견은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하여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남성당직자는 여성 스스로의 리더십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주요당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하여 남녀당직자 모두에게 있어서 주요당직자의 인식변화가 여성당직자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4> 여성당직자 진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당내 주요 당직자들이 여성 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36 (28.3)	103 (48.4)	139 (40.9)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44 (34.6)	38 (17.8)	82 (24.1)
남녀정당원 및 주요 당직자와의 대인관계를 넓힌다	10 (7.9)	12 (5.6)	22 (6.5)
여성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	35 (27.6)	57 (26.8)	92 (27.1)
자신의 지역구에서 세력을 키운다	2 (1.6)	3 (1.4)	5 (1.5)
계	127 (100.0)	213 (100.0)	340 (100.0)

$\chi^2=17.760$ df=4 $p<.01$

마. 여성당직자를 늘여나가는 제도적 방법

정당내 여성당직자가 현재 10%이하이므로 여성당직자를 늘여나가야 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동의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간에는 현저하게 의견차이가 있었다. 남성당직자는 매우 동의한다에 29.9%, 다소 동의한다에 43.3%가 응답을 하였지만, 여성당직자는 매우 동의한다에 60.5%, 다소 동의한다에 28.1%가 응답하여 여성당직자의 동의정도는 매우 강하며 제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남성당직자는 적극적인 동의는 30%미만이고, 소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수준에서 43.3%를 나타내었다. 남녀당직자 전체적으로는 82.8%가 동의한다는 응답률을 나타내 여성당직자를 확대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남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균값으로 알아보면 남성당직자는 평균값 3.92, 여성당직자는 평균값 4.46으로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여야 한다는 의견에 여성당직자가 훨씬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었다(전체 평균값 4.26).

<표 Ⅲ-3-5>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데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매우 동의한다	38(29.9)	127(60.5)	165(49.0)
다소 동의한다	55(43.3)	59(28.1)	114(33.8)
그저 그렇다	24(18.9)	19(9.0)	43(12.8)
동의하지 않는다	6(4.7)	3(1.4)	9(2.7)
반대한다	4(3.1)	2(1.0)	6(1.8)
계	127(100.0)	210(100.0)	337(100.0)

$\chi^2=31.887$ df=4 $p<.01$

◆ 평균값은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 데 대한 동의정도를 매우 동의한다에 5점, 다소 동의한다에 4점, 그저그렇다에 3점, 동의하지 않는다에 2점, 반대한다에 1점을 주어 구함.

위와 같이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다수의 당직자들이 동의를 하였는 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Ⅲ-3-6>와 같이 남성당직자는 당에서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50.5%, 당헌·당규에 여성에게 일

정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26.9%, 정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 정치인 인재은행을 구성한다 21.5%가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당직자는 당헌·당규에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42.9%, 당에서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36.4%, 정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 정치인 인재은행을 구성한다 14.1%가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당직자는 당헌·당규에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를 명문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직자가 많은 반면, 남성당직자는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에는 중앙과 지방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부표 25>.

<표 III-3-6> 여성당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당헌·당규에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25(26.9)	79(42.9)	104(37.5)
당에서 여성 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47(50.5)	67(36.4)	114(41.2)
정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 정치인 인재 은행을 구성한다	20(21.5)	26(14.1)	46(16.6)
외부영입인사의 비율만큼 정당 내 당원의 당직자 임명을 늘린다	1(1.1)	12(6.5)	13(4.7)
계	93(100.0)	184(100.0)	277(100.0)

$\chi^2=13.163$ df=3 $p<.01$

4. 여성당직자의 고위당직 참여에 대한 남녀당직자 의견

가. 여성의 고위당직 진출 저해 요인

여성이 정당내 주요당직에의 진출이 그 동안 왜 저조했는지에 대하여 당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성당직자는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에 29.1%,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에 26.0%,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20.5%인 반면, 여성당직자는 남성당직자에서 3순위로 나타난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에 4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과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함을 이유로 들었다<표 Ⅲ-4-1>.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남성 여성 모두 지방보다 중앙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하였는데, 주요당직자로의 진출은 중앙당의 당지도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여성당직자간에 중앙에서는 당지도부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여성의 리더십을 지적한 반면, 지방에서는 당지도부의 인식의 전환과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역구의 지지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지방에서 시·도지부/지구당 활동에서는 정당인들의 지지가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Ⅲ-4-1> 여성의 고위당직 진출 저해 요인

단위: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15 (23.4)	11 (17.5)	26 (20.5)	33 (44.0)	52 (38.5)	85 (40.5)	111 (32.9)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21 (32.8)	12 (19.0)	33 (26.0)	17 (22.7)	12 (8.9)	29 (13.8)	62 (18.4)
선거에 당선 경험이 없어서	4 (6.3)	4 (6.3)	8 (6.3)	2 (2.7)	5 (3.7)	7 (3.3)	15 (4.5)
여성의 경제력 부족해서	-	1 (1.6)	1 (0.8)	5 (6.7)	15 (11.1)	20 (9.5)	21 (6.2)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17 (26.6)	20 (31.7)	37 (29.1)	12 (16.0)	35 (25.9)	47 (22.4)	84 (24.9)
인맥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	3 (4.8)	3 (2.4)	2 (2.7)	3 (2.2)	5 (2.4)	8 (2.4)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서	3 (4.7)	10 (15.9)	13 (10.2)	3 (4.0)	13 (9.6)	16 (7.6)	29 (8.6)
기 타	4 (6.3)	2 (3.2)	6 (4.7)	1 (1.3)	-	1 (5.0)	7 (2.1)
계	64 (100.0)	63 (100.0)	127 (100.0)	75 (100.0)	135 (100.0)	210 (100.0)	337 (100.0)

* $\chi^2=11.742$ df=7 $p>.05$ (남자는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14.109$ df=7 $p<.05$

위에서 알아본 결과를 정당활동년도별로 의견을 알아본 결과, 활동년도는 달라
도 여성이 고위직 진출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다<부표 28>.
정당활동년도가 1년-7년 사이의 여성당직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이 여성
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었고, 10년 이상 활동을 한 당직자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론적으로는, 남성당직자의 입장은 여성당직자가 고위직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지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여성당직자의 의
견은 당 지도부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었다.

나. 남녀당직자의 자신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자신이 고위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당직자 스스로에게 물은
결과 <표 Ⅲ-4-2>에서와 같이 남성·여성당직자 모두 50%이상이 자신이 고위
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chi^2=.246$ df=1 $p=.620$). 이를 중앙과 지
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부표 31>, 남성 중앙당직자의 58.3%, 여성 중앙당직
자 60.0%가 주요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으며, 남성 지방당
직자의 50.8%, 여성 지방당직자의 46.9%가 주요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평가
하여 중앙당 조직에서 활동하는 당직자가 주요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는 응답률
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 당직자 본인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자질이 있다	35(58.3)	31(50.8)	66(54.5)	45(60.0)	61(46.9)	106(51.7)	172(52.8)
자질이 없다	25(41.7)	30(49.2)	55(45.5)	30(40.0)	69(53.1)	99(48.3)	154(47.2)
계	60(100.0)	61(100.0)	121(100.0)	75(100.0)	130(100.0)	205(100.0)	326(100.0)

* $\chi^2=.589$ df=1 $p>.05$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3.257$ df=1 $p>.05$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한편, 주요당직자로서의 자질은 정당활동 지속년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142$ df=5 $p=.004$), 정당활동을 오래한 집단에서 자질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당직자의 경우 5년이상 활동을 해 온 집단내에서 당직자들은 55.3%-73.9%까지 높은 빈도로 주요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여성당직자의 적극적인 정당활동 자세를 볼 수 있었다.

<표 Ⅲ-4-3>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단위 : 명(%)

항목	1-2년			3-4년			5-6년			7-10년			10-15년			15년 이상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자질이 있다	10 (47.6)	16 (36.4)	26 (40.0)	11 (42.3)	16 (40.0)	27 (40.9)	11 (52.4)	21 (55.3)	32 (54.2)	6 (46.2)	16 (59.3)	22 (55.0)	13 (72.2)	21 (62.5)	33 (66.0)	14 (66.7)	17 (73.9)	31 (70.5)
자질이 없다	11 (52.4)	28 (63.6)	39 (60.0)	15 (57.7)	24 (60.0)	39 (59.1)	10 (47.6)	17 (44.7)	27 (46.8)	7 (53.8)	11 (40.7)	18 (45.0)	5 (27.8)	12 (37.5)	17 (34.0)	7 (33.3)	6 (26.1)	13 (29.5)
계	21 100.0	44 100.0	65 100.0	26 100.0	40 100.0	66 100.0	21 100.0	38 100.0	59 100.0	13 100.0	27 100.0	40 100.0	18 100.0	32 100.0	50 100.0	21 100.0	23 100.0	44 100.0

$\chi^2=17.142$ df=5 $p<.01$

다. 고위 당직 임명의 저해 요인

당직자가 소속 정당에서 고위당직에 임명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당직자에게 물어본 결과, <표 Ⅲ-4-4>와 같이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에 남녀 각각 17.0%, 42.3% 응답하였고, ‘선거에 당선 경험이 없어서’는 남녀 24.5%, 11.5%, ‘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남녀 각각 20.8%, 3.8%로 나타나 남녀간의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여성당직자의 대다수는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42.3%)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선거에 당선 경험이 없어서’이었다. 반면, 남성당직자의 경우는 ‘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그리고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의 순으로 자신이 주요당직에 임명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당직자의 경우는 당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가 자신들이 고위당직에 임명될 수 있는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4> 자신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당 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9(17.0)	22(42.3)	31(29.5)
리더십이 부족해서	3(5.7)	2(3.8)	5(4.8)
선거에 당선 경험이 없어서	13(24.5)	6(11.5)	19(18.1)
경제력이 부족해서	5(9.4)	6(11.5)	11(10.5)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4(7.5)	5(9.6)	9(8.6)
인맥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11(20.8)	2(3.8)	13(12.4)
전문직 종사 경력이 부족해서	3(5.7)	5(9.6)	8(7.6)
기 타	5(9.4)	4(7.7)	9(8.6)
계	53(100.0)	52(100.0)	105(100.0)

 $\chi^2=15.266$ df=7 $p<.05$

5.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 전망

가. 선거 입후보자 희망 여부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 전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향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선출직/비례직)가 될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성 당직자와 여성당직자는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당직자보다는 남성당직자가 후보자가 될 의향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표 Ⅲ-5-1>. 남성당직자 중 64.8%가 후보자가 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여성당직자는 45.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중앙 당직자와 지방 당직자간에는 선거 입후보 의향에서 차이가 났는데 중앙당직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성당직자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중앙 여성당직자는 55.6%가 선거에서 입후보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지방 여성당직자는 38.6%에 지나지 않았다. 시·도지부/지구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당직자의 입후보 의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활동하는 여성당직자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1> 중앙·지방의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단위 : 명(%)

항 목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후보자 의향 있음	48 (73.8)	40 (55.6)	88 (64.2)	35 (56.5)	51 (38.6)	86 (44.3)
후보자 의향 없음	17 (26.2)	32 (44.4)	49 (35.8)	27 (43.5)	81 (61.4)	108 (55.7)
계	65 (100.0)	72 (100.0)	137 (100.0)	62 (100.0)	132 (100.0)	194 (100.0)

* $\chi^2=4.974$ df=1 p<.05

** $\chi^2=5.425$ df=1 p<.05

또한, 정당활동 지속년도별로 보았을 경우에는($\chi^2=27.367$ df=5 p=.000), 5년이 상 활동자 중에서 오래도록 활동한 당직자일수록 입후보 의사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5-2> 정당활동기간에 따른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 분	1 - 2년	3 - 4년	5 - 7년	7 - 10년	10 - 15년	15년 이상	전체
그 령 다	21(32.8)	28(42.4)	32(51.6)	25(61.0)	38(74.5)	30(66.7)	174(52.9)
아 니 다	43(67.2)	38(57.6)	30(48.4)	16(39.0)	13(25.5)	15(33.3)	155(47.1)
계	64(100.0)	66(100.0)	62(100.0)	41(100.0)	51(100.0)	45(100.0)	329(100.0)

$\chi^2=27.367$ df=5 p<.01

선거 후보자가 될 생각이 있는 당직자를 대상으로 어떤 공직에 입후보를 희망하는지 알아보았다<표 Ⅲ-5-3>. 남성과 여성당직자 사이에는 의견차이($\chi^2=26.577$ df=5 p=.000)가 나타나는 데, 남성당직자는 국회의원,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광역의회의원,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당직자 각각의 분포를 보면, 국회의원에 남녀 53.1%, 32.6%, 기초자치단체장에 남녀 21.0%, 5.4%, 광역의회의원에 남녀 14.8%, 33.7%, 기초의회의원에 남녀 3.7%, 17.4%를 나타내었다.

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에는 남성당직자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chi^2=11.392$ df=6 $p=.077$)는 분포상으로 광역의회의원에서 지방당직자의 분포가 크게 나타나는 것 이외에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성당직자의 경우($\chi^2=23.753$ df=6 $p=.001$)에서는 중앙은 국회의원의 비율이 52.4%로 높게 나타나고, 지방은 광역의회의원의 비율이 4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표 Ⅲ-5-3>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국회의원	28(60.9)	15(42.9)	43(53.1)	22(52.4)	8(16.0)	30(32.6)
광역자치단체장	2(4.3)	2(5.7)	4(4.9)	1(2.4)	6(12.0)	7(7.6)
기초자치단체장	10(21.7)	7(20.0)	17(21.0)	2(4.8)	3(6.0)	5(5.4)
광역의회의원	4(8.7)	8(22.9)	12(14.8)	11(26.2)	20(40.0)	31(33.7)
기초의회의원	2(4.2)	1(2.9)	3(3.7)	4(9.5)	12(24.0)	16(17.4)
기타	-	2(5.7)	2(2.5)	2(4.8)	1(2.0)	3(3.3)
계	46(100.0)	35(100.0)	81(100.0)	42(100.0)	50(100.0)	92(100.0)

* $\chi^2=10.641$ df=5 $p>.05$ (남성은 중앙·지방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18.442$ df=5 $p<.01$

나. 소속정당 공천가능성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의향이 있는 당직자 169명에게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았다($\chi^2=6.780$ df=3 $p=.079$). 남성당직자의 15.4%, 여성당직자 11.0%가 확실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공천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당직자 55.1%, 여성당직자 45.1%가 응답하였다<표 Ⅲ-5-4>. 이에 대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은 평균값 2.83, 여성은 평균값 2.55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5-4> 소속 정당의 공천 가능성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확실히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15.4)	10(11.0)	22(13.0)
아마도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3(55.1)	41(45.1)	84(49.7)
공천 받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21(26.9)	29(31.9)	50(29.6)
공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2(2.6)	11(12.1)	13(7.7)
계	78(100.0)	91(100.0)	169(100.0)
평균값	2.83	2.55	2.68

$\chi^2=6.780$ df=3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평균값은 확실히 공천을 받을 것이다에 4점, 아마도 공천을 받을 것이다에 3점, 공천받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에 2점, 공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에 1점을 주어 구함.

6. 남녀당직자의 성역할의식 비교

당직자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당직자간에는 의식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표 Ⅲ-6-1>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에 동의정도를 표기하도록 한 결과를 보면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은 조직의 장, 사회적 적응력에 있어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전체적으로 성역할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특히 정당활동을 해본 결과 정치는 남성에게 적합한 역할이다 라는 내용에는 강하게 부정을 나타내어 정치활동이 남성에게만 적합한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드러냈다.

<표 Ⅲ-6-1> 남녀당직자의 성 역할 의식 비교

단위 : 평균값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t값	df
조직의 장은 남성이어야 한다	2.67	3.91	3.43	-9.105***	326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가사 및 육아는 여성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3.07	3.93	3.60	-6.223***	324
정당활동을 해 본 결과, 역시 정치는 남성에게 적합한 역할이다	2.83	4.08	3.60	-9.751***	320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적응능력이 더 있다	2.57	3.41	3.09	-5.551***	316
만일 딸이 커서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겠다면 반대하겠다.	3.41	3.92	3.72	-3.313**	322
계	2.91	3.85	3.49	-6.789	321

*** p<001 ** p<01

◆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점수가 작을수록 성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위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①대단히 그렇다 ②어느정도 그렇다 ③그저그렇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고 표시함. 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한 것으로 본다.

7.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요구

가. 여성정당인 정치교육에 대한 당직자 의견

남녀당직자에게 여성당직자 확대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당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남성당직자와 여성당직자는 그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응답분포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당직자는 꼭 필요하다에 73.1%, 어느정도 필요하다에 24.5%가 응답한 반면, 남성당직자는 꼭 필요하다에 48.0%, 어느정도 필요하다에 41.6%로 여성당직자가 꼭 필요하다는 강한 필요성을 73%이상 표시한 것과 달리, 남성당직자는 48.0%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 평균값 3.36, 여성 평균값 3.70으로 여성당직자가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요구

가 높게 나타났다(전체 평균값 3.58). 여성정치인 특별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성 당직자 스스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1> 여성정당인 교육에 대한 남녀당직자의 요구

단위 : 명(%)

항 목	남성	여성	전체
꼭 필요하다	60(48.0)	155(73.1)	215(63.8)
어느 정도 필요하다	52(41.6)	52(24.5)	104(30.9)
필요치 않은 편이다	11(8.8)	4(1.9)	15(4.5)
전혀 필요치 않다	2(1.6)	1(5.0)	3(9.0)
계	125(100.0)	212(100.0)	337(100.0)
평균값	3.36	3.70	3.58

$\chi^2=23.767$ df=3 $p<.01$

◆ 평균값은 꼭 필요하다에 4점, 어느정도 필요하다에 3점, 필요치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필요치 않다에 1점을 주어 구함.

한편,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여성당직자에게만 질문한 결과 <표 Ⅲ-7-2>와 같이 '참여의사 있다'는 여성당직자가 82.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를 지위별로 보면 <부표 38>과 같이 여성당직자 중 고위당직자 87.1%, 일반당직자 93.1%, 전당대회 대의원 85.0%, 지구당 대의원 59.1%, 사무처 당직자 81.0%가 참여의사를 밝혀 당직에 관계없이 전체 당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표 Ⅲ-7-2> 여성정당인 교육에 대한 중앙·지방당직자 교육 참여 의사

단위 : 명(%)

참 여 의 사 여 부	중앙	지방	전체
참여의사 있다	60(82.7)	112(82.4)	172(82.3)
참여의사 없다	13(17.8)	24(17.6)	37(17.7)
계	73(100.0)	136(100.0)	209(100.0)

* 여성당직자만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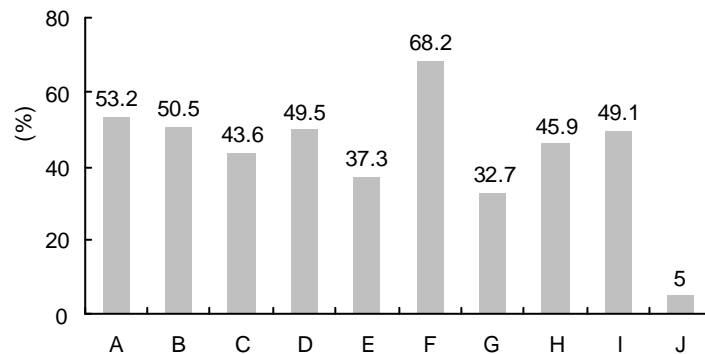
60) 당직에 대한 구분은 설문조사시 연구진이 임의로 구분한 것임.

나. 여성정당인에 대한 정치교육 요구도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남녀 당직자 모두에게 그 의견을 물어 필요성이 아주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성당직자에게는 참여의사를 물어 여성당직자의 82.3%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개설 될 경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하여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과목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중복표기하도록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영역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68.2%로 가장 많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53.2%, 국회운영의 실제 50.5%, 지방의회운영의 실제 49.5%, 세계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49.1%, 한국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45.9%, 정당운영의 실제/정당발달사 43.6%, 통일한국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37.3%, 외국정당의 여성정치인 모범사례 32.7% 순으로 요구도를 나타냈다<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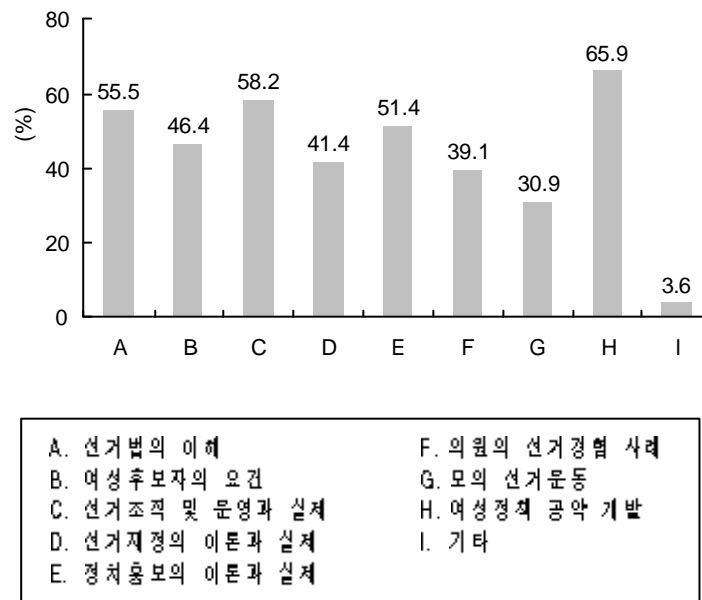
<도표 1> 정치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A.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F.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B. 국회 운영의 실제	G. 외국정당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C. 정당 운영의 실제	H. 한국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D. 지방의회 운영의 실제	I. 세계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E. 통일한국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J.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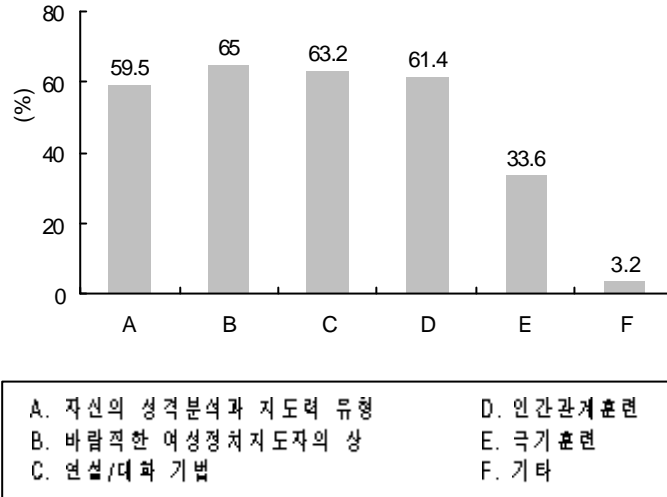
두 번째 영역으로는 선거에 대한 이해로 8개 과목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여성정책 공약개발 65.9%가 가장 요구도가 높으며,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58.2%, 선거법의 이해 55.5%,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 51.4%, 여성후보자의 요건 46.4%, 선거재정의 이론과 실제 41.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선거경험 사례 39.1%, 모의 선거운동 30.9% 순으로 요구를 하였다<도표 2>.

<도표 2>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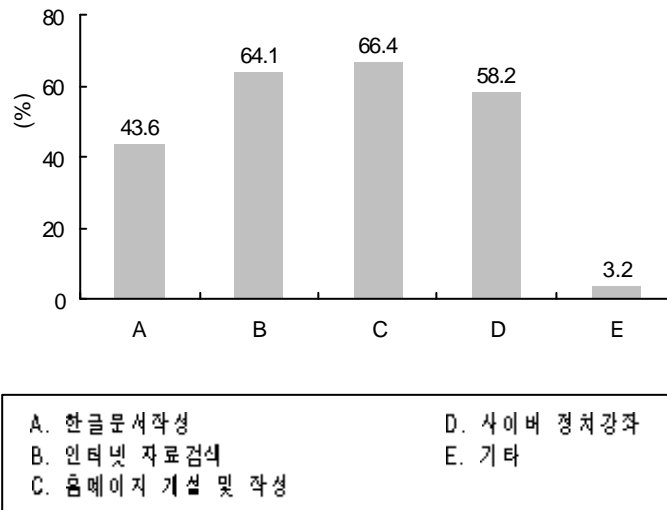
세 번째 영역은 리더십 개발로 5개 과목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의 상이 65.0%로 가장 요구도가 높으며, 연설/대화기법, 인간관계 훈련이 각각 61.4%,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59.5%, 극기훈련(반나절 하이킹/산행) 33.6%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났다<도표 3>.

<도표 3> 리더십개발 영역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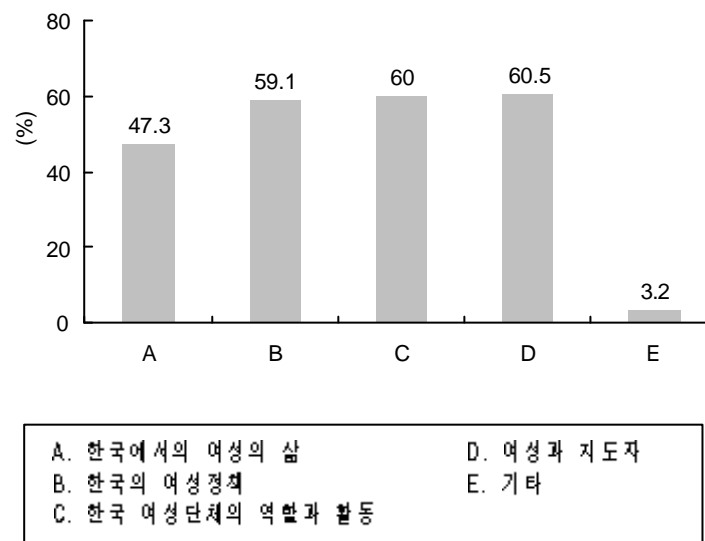
네 번째 영역은 남녀평등의식 개발 영역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여성과 지도자에 60.5%를 비롯하여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행동 60.0%, 한국의 여성정책 59.1%, 한국에서의 여성의 삶 47.3%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난다<도표 4>.

<도표 4> 남녀평등의식개발 영역 요구도



마지막은 정보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66.4%, 인터넷 자료검색 64.1%, 사이버 정치강좌 58.2%, 한글문서 작성 43.6%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났다<도표 5>.

<도표 5> 정보화 교육 요구도



여성정당인 교육에 대한 요구에서 50%이상의 요구도가 나타난 영역 및 과목을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이해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국회운영의 실제 3개 과목이고,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는 여성정책 공약개발,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선거법의 이해,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재를 들 수 있다. 또한, 리더십 개발 영역은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의 상, 연설/대화기법, 인간관계훈련,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4개 과목을 들 수 있고, 남녀평등의식 개발 영역에서는 여성과 지도자,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행동, 한국의 여성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영역은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인터넷 자료검색, 사이버 정치강좌 등이었다. 향후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8. 요약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을 보면,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으로는 남녀 공통적으로 본인 스스로 정당가입을 결정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으로 남성은 자영업 39.2%, 사무직 15.2%, 전문직 12.8%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 당직자는 무직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자영업, 전문직,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당직자의 정당활동의 적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에서 남성 당직자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당직자간에는 지방 당직자 보다는 중앙 당직자의 활동의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보면 만족하는 편에 남성 당직자는 71.5%가 응답하였고, 여성당직자는 53.6%가 응답하였다. 여성당직자의 만족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당활동의 적극성과 만족도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고, 정당활동에 만족을 표시한 당직자의 95%이상이 활동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는 일이므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정당에서 당론·정책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남녀 당직자 모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 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당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당직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이 여성당직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응답이 남성 당직자 81.6%, 여성당직자 77.0%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남녀 당원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라고 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당직 임명과 후보자 공천을 받을 때 남녀 차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여성의 당직자 진출에 대하여 당직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의 여성당직자의 비율이 10% 미만인 것에 대하여 남성당직자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에 18.5%가 응답하였고, 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39.5%,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29.8%, 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6.5%,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1.6% 인 반면, 여성당직자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6.2%, 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0.0%,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53.8%, 40%수준으로는 6.2%, 그리고 50% 수준까지에는 12.9%였다. 남성의 경우 20%-30%수준으로 여성당직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69.3%이고, 40%-50%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8.1%이고, 여성당직자는 20%-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3.8%이고, 40%-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로 전체적으로 남녀당직자의 의견은 여성당직자의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남녀당직자는 소속 정당의 당직자 충원 방식에 대하여 30%미만의 만족율을 보였고, 여성이 당직자 진출에 필요한 요인으로 남성당직자는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의 순으로 응답분포가 나타났지만, 여성당직자는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다음이 여성 스스로의 리더십,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지적함으로써, 여성당직자는 당내 주요당직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남성당직자는 여성스스로의 리더십과 주요당직자의 인식변화를 지적하여 남녀당직자 모두 주요당직자의 인식변화가 여성당직자 진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당직자는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늘려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방법으로는 당헌·당규에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여성당직자의 42.9%가 이 방법을 지지하며, 나머지는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세 번째는 여성당직자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주요직 진출 문제에 대하여 남녀당직자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우선, 여성이 주요당직 진출이 왜 저조했는가에 대하여 남성당직자는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와 여성이 리더십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여성당직자는 전자 보다 후자인 여성

정당인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성당직자들은 자신이 주요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질이 있다'라는 응답이 반수를 넘고 있었는데, 임명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여러 질문을 통해 알아본 것과 같이 당 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네 번째,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 전망에서는 향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의향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여성 당직자 보다는 남성당직자가 훨씬 높게 나타나, 남성은 64.8%가 후보자가 되겠다고 응답하고, 여성은 45.1%가 후보자가 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후보자 의향을 밝힌 응답자 중 자신이 후보자로 나갈 정치인의 역할로는 남성은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당직자는 광역의회의원,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순으로 응답해, 여성 당직자는 의회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속정당의 공천을 필요로 할 경우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응답자 169명에게 질문을 한 결과는 확실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에서 남성당직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마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에서도 여성보다 남성당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남성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보다는 공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남녀 성역할의식 비교 부분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에 동의정도를 표기하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당직자 보다는 남성당직자가 아직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은 조직의 장이나 사회적 적응력에서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정치활동이 남성에게 적합한 활동이라는 항목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정치가 남성영역이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인식과 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남녀평등적 의식이 남성에게도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당직자의 확대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당인에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았는데, 남녀당직자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특히 여성당직자는 여성정당인에 대한 정치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여성당직자 82.3%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위별로는 지구당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80%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보

면, 50%이상의 요구도가 나타난 영역 및 과목은 정치에 대한 이해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국회운영의 실제 3개 과목이고,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는 여성정책 공약개발,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선거법의 이해,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리더십 개발 영역은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의 상, 연설/대화기법, 인간관계훈련,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4개 과목을 들 수 있고, 남녀평등의식 개발 영역에서는 여성과 지도자,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행동, 한국의 여성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영역은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인터넷 자료검색, 사이버 정치강좌 등이었다. 향후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V. 외국정당의 여성 당직자 지원정책

본 장에서 다루게 될 외국정당의 사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의 정당들이다. 본 연구에서 택한 외국의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보수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의 사민당, 연맹90/녹색당, 기민/기사당, 자민당, 스웨덴의 사민당, 보수당, 기민당, 중앙당, 뉴질랜드의 노동당과 국민당 등이다.

외국정당의 선택기준으로는, 일단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국가로 북구의 스웨덴과 오세아니아주의 뉴질랜드를 꼽았고, 영국과 미국은 정당정치에 대표적인 국가로서 과거에는 여성의 참여가 낮았으나, 최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유럽국가들 가운데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국가로 독일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다당제 국가이면서 이들 정당이 이념정당으로, 정당간 정책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중, 우리 나라와 비슷한 대통령제국가로는 미국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정당에 대한 자료는 국내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당에 문의하여 그 정당의 정책공보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당의 공식적인 자료들이다. 특히 외국 정당의 당직자에서의 남녀비율 등은 해당 국가의 정책공보관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외국의 정당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얻기 어려울 때는 국내에 소개된 최근 문헌을 인용하였다.

1. 미국

가. 민주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민주당 여성기구

민주당내에는 팀으로 구성된 민주여성전국연합(NFDW)과 민주당전국위원회(DNC)⁶¹⁾내에 여성지도자포럼(WLF)이 여성의 정치참여⁶²⁾를 적극 권장하고 여

61)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4개의 실(Office)과 7개의 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국위원회 위원장실(Office of the National Chair), 사무총장실(Office of the General Chair), 집행위원실(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비서실(Office of the

성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주요기구라 할 수 있다.

가) 민주여성 전국연합(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Women : NFDW)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여성분과가 1977년에 활동을 중단한 이래로 NFDW는 민주당내에서 회원수와 활동면에서 계속 성장해오고 있다. NFDW의 설립은 민주당전국위원회의 여성분과가 1971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민주당 여성리더십회의'에서 출발하였다⁶³⁾. 이듬해인 1972년 5월 테네시주에서의 첫 연례회의에는 8개 주에서 온 민주당 여성들이 모였고, 이때 NFDW를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NFDW의 여성들은 18세에서 25세사이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창립자인턴십(Founder's Internship)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민주당전국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⁶⁴⁾.

1972-1977년 기간동안, NFDW는 민주당전국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여성조직이라는 인식을 얻었고, 결국 민주당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에 1석,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3석을 얻게 되었다. NFDW는 매년 연례대회를 가진다⁶⁵⁾.

Secretary), 정당업무 및 대의원공천분과(Party Affairs and Delegate Selection), 선거운동분과(Campaign), 재무분과(Finance), 공보분과(Communications), 연구분과(Research), 민주당정책업무분과(Compliance), 선거자금모금분과(Marketing)가 그 조직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 DNC), 공화당은 공화당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 RNC)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전국정당의 정책과 강령을 구성하고 전당대회의 명령을 수행하며 대통령선거를 관장하고 전국위원장을 뽑는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공백을 막기위한 필요성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별로 권위가 없으며, 다음 전국대회가 열릴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기본적인 임무는 이미지의 형성, 선거분위기 조성, 자금조달, 선거운동 관리, 정당본부의 행정관으로서 행동한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상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되지만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에 의해 지명된다.(따라서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주로 하며, 전국위원회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주하는 직원도 10명 안팎이다.) 대통령후보는 위원장을 통해 당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62) 2000년 4월 현재, 민주당 소속의 여성 국회의원은 상원 3명, 하원 39명이며, 공화당 소속에는 상원 1명, 하원 17명이 있다.

63) 당시 회의에는 27명의 여성이 참석하였으며, 이 모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64) http://www.nfdw.org/html/nfdw_history.html '99, 11, 14, 오전 11:39 검색.

65) http://www.nfdw.org/html/nfdw_about.html '99, 11, 14, 오전 11:38 검색.

전체 조직구조에서 보면, 민주당에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함께 공식적인 그룹들이 민주당 팀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 팀은 9개로, 민주 주 정당(Democratic State Parties), 민주주지사연합(Democratic Governors' Association), 민주 의회선거운동 위원회(Democratic Legislative Campaign Committee), 민주 연방하원 선거운동 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 민주 연방상원 선거운동 위원회(Democratic Senatorial Campaign Committee), 미국대학민주당원(College Democrats of America), 미국청년민주당원(Young Democrats of America), 해외민주당원(Democrats Abroad), 그리고 민주여성전국연합(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Women : NFDW)이 있다⁶⁶⁾.

NFDW 조직은 각 정당이 연방체제에 따르듯이 주연합(State Federations)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현재 중앙의 NFDW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대표, 5인의 부대표, 회계담당, 서기비서가 있다. 지역대표들은 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지역에서 각각 선출된 사람들이며, 임명직으로는 대표에 의해 임명되는 연락비서(corresponding secretary)와 의회담당이 있다. NFDW는 미국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와 같은 해에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2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당직의 임기는 NFDW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년이며, 선출된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위원은 4년이다. NFDW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의해서 민주당 여성에 대한 선거지명권이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여성지도자포럼(Women's Leadership Forum : WLF)⁶⁷⁾

1993년에 설립된 WLF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속해있는 전국적인 기구이다. 현재 WLF는 전국의 17개 주에 10,000명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에 지부(Regional Chapters)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수준의 이사회를 두고 있다. WLF는 미국내 여러 사회영역의 여성지도자들을 민주당에 입당시키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WLF는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66) http://www.nfdw.org/html/nfdw_organization.html '99. 11. 14. 오전 11:37 검색.

67) <http://www.wlf-online.org/wlf/about2.html> '99. 11. 14. 오후 1:47 검색.

2) 민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가) 성균형 의무화(gender balance requirement)정책

민주당전국위원회는 전회원에 대해 성균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즉, 각 주의 대의원은 주 정당대표, 주 정당부대표, 전국위원회의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비의 균형을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위의 사람들은 해당 각주에서 선출되고 이때 성균형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출되는 것이다. 즉, 만일 대표가 남성이면, 부대표는 여성이어야 하고, 대표가 여성일 경우, 부대표가 남성이 된다.

민주당내 여성정치 지원정책은 이처럼 기본적으로 성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NFDW는 민주당전국위원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매우 방대한 조직이다. NFDW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민주당의 기본적인 성균형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여성정치인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NFDW의 위상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당의 강령에 여성적 관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시에 여성후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후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NFDW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NFDW 규약은 1973년 5월에 채택되었고, 그 설립목적은 민주당 여성을 통합시키고, 민주당 각급직위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NFDW가 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민주당 여성이 공직에 출마하도록 독려
- 전당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공고
- 정당 강령의 결성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권장
- 젊은 여성들에게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에서 인턴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연간 2000달러와 1000달러의 장학금을 민주당여성전국연합의 창립인턴십(Founder's Internship)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
- 공직과 민주당여성 전국연합에서 뛰어난 민주당 여성을 발굴
- 선거자금을 모금하여 공직에 출마하는 민주당여성에게 기부

다) WLF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민주당 여성당직자를 정치세력화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그 주요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다.

- WLF 회원들에게 행사와 간략한 정보,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이슈에 대해 교육을 통해 능력있는 정치인 육성
- 민주당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
- 각급 정부에 민주당 후보자 당선지원
- 민주당전국위원회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
- 영향력있는 전국 여성네트워크 확대 및 현 회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근의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2000년 대비 100,000명 모으기'(100,000 for 2000⁶⁸⁾)가 진행중에 있다. '100,000 for 2000'은 2000년에 실시될 각급 선거에서 100,000명의 여성 민주당원을 모아, 이들을 훈련시키고 참여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민주당후보자들의 승리를 위하여 선봉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민주당은 지난 5년동안 여성당원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고, 이들 스스로가 토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왔다⁶⁹⁾.

나. 공화당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공화당 여성기구 : 공화여성전국연합(NFRW)

공화여성전국연합(the National Federation of Republican Women : NFRW)은 1938년에 설립되었다. NFRW는 나이와 계층에 관계없이 여성들을 정치과정내에서 세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NFRW는 약 110,000명의 여성과 2,100개의 단위조직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풀뿌리 조직이다.

68) <http://www.wlf-online.org/wlf/100KDetail.htm>

69)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 기부금으로 125달러를 내야한다. 회원들의 재정적 후원은 프로그램 교육과 회원간의 의사교류, 특표행사에 쓰여진다. 회원으로서의 혜택은, 전국 민주당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하는 100,000 for 2000 연례 전략 회의에의 초대, 고위급 민주당 전략가들이 주도하는 승리하는 선거에 대한 워크샵과 세미나에 초대, 정기적으로 이슈의 전달, 주요 캠페인과 행동경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29개의 전당대회가 전국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매년 대회마다 미국대통령과 부통령, 영부인 각료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여성표를 모으려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NFRW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이들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의원으로 대표되거나 또는 대의원공천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공화당전국위원회(RNC)내, 여성당직자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최고집행위원회에는 총 9명 중 여성이 2명 있으며, 공화당전국위원회 위원장실(Chairman's Office)에는 총 17명 중 5명의 여성이 있다. 최고집행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예산위원회 위원장, 일반공보관, 재무위원장, 공화당 자문위원회 위원장, 서기, 재무담당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실(Chairman's Office)의 17명은 행정, 공보, 상담, 의회업무, 인터넷온라인업무, 지역구담당, 재무담당, 인력담당, 회원관리담당, 정치보좌, 언론서기, 선거구서비스, 연구, 주지사협회업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공화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WomenCare

공화당은 여성배려(WomenCare)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공화당의 정책제언에 여성을 포함시킨 부분들이다. 그중 주요한 몇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여성과 정치 : 여성의 잠재적 지도력을 개발시킨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프로그램은 여성을 정치과정의 후보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ii) 교육 : 공화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가하는 검토와 함께, 모든 인종과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부모들에게 선택범위를 제공해주고 있다.
- iii) 여성과 직업 : 앞으로 세금개혁에 대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토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업주부들을 위한 연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iv) 여성과 가족 :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족의 가치와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

고, 우리사회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입법적 논의들은 남녀근로자의 선택시간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NFRW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선거운동관리학교(Campaign Management Schools), 여성후보자세미나(Women Candidates Seminars), 득표학교(Polling Schools)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수천명의 공화당 여성과 남성들을 훈련시켜서 당선을 돕기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전국적으로 자치시는 NFRW의 '미국을 돌보는 프로그램'(Caring for America)의 자원봉사 서비스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최근 1997년에 총선을 치렀고, 이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20명 당선되어 1992년 총선결과와 비교해볼 때, 여성당선자가 두배로 증가되었다. 이처럼 여성당선자가 두배로 증가할 수 있었던데는 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지역구 공천을 남녀 비율 50%로 맞추었다. 따라서 120명의 여성의원 중 노동당 소속이 101명으로 압도적이다. 이에따라 1997년 총선을 중심으로 노동당에 어떠한 정책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노동당의 조직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정당조직

노동당의 조직체계는 전국조직, 지역조직, 선거구조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동당의 전국조직으로서 당대회가 전국집행위원회와 함께 당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는 당헌의 제정 및 개정과 전국집행위원회위원을 선출하며 당대회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당지도자를 선출하고 당정책을 채택한다. 당대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며

회의기간은 약 5일정도 지속된다. 당대회에서 투표권의 7/8은 노동조합이 행사하는데, 이것은 각 노동조합이 가입비로서 매년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투표권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의 관리기구로 2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전국집행위원회가 있다. 위원은 연례 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의회 밖의 노동당의 활동을 감독하고 활동상황을 당대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다수의 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한다.

노동당의 선거구조직은 노동당선거구(Constituency Labour Party)로 불려진다. 노동당선거구의 하부조직으로서 개인당원으로 이루어진 지부(Branch)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당선거구는 업무처리, 직원선출, 자금의 모금과 관리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며 전국조직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공직선거의 입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구 수준의 선거운동을 행한다. 노동당선거구의 운영은 가입조직과 노동당선거구의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General Committee)가 담당한다. 대의원들은 모두 개인당원이어야 한다. 노동당선거구의 임원인 회장, 2명의 부회장, 출납관등은 총회의 연례대회에서 선출된다. 총회는 당해 대의원들 중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당무를 집행할 수 있다⁷⁰⁾.

1992년 현재, 정당조직내 남녀비율을 보면, 남성은 당원의 60%를 차지하지만 사무장의 3/4, 선거구총회의 2/3, 선거구집행위원회의 2/3이 남성이다. 고위직에서는 전국집행위원회에 29석중 5석(17%)이 여성에게 배분되었을 뿐이다. 한편, 노동당소속 여성 의원은 1992년 37명(14%)으로 1987년에 비해 16명 증가하였다⁷¹⁾. 그리고 최근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에서 418명의 당선자중 101명이 여성으로 24.2%를 기록하면서 영국 총선역사상 여성의원을 가장많이 배출하였다. 한편, 영국의 주요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의 조직내 남녀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70) 한승철(1993), "영국과 독일의 정당제도", 『선거관리』(1993, 12) pp.37-39.

71) Pippa Norris and Joni Lovenduski(1992), "Gender and Party Politics in Britain", in Pippa Norris and Joni Lovenduski ed., *Gender and Party Politics* London : SAGE Publications, pp.36-37.

<표 IV-1> 영국 정당조직내 남녀비율(1992)

단위 : %

정당조직 \ 정당	노동당		보수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속의원(Parliamentary Party)*	75.8	24.2	92.2	7.8
전국연합(National Union)	83	17	80	20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62	38	65	35
선거구집행위원회 (Constituency executive committee)	68	32	54	46
선거구총회 (Constituency general committee)	65	35	69	31
지역구사무소(Branch officers)	67	33	52	48
당원(Members)	60	40	52	48
정당지지유권자(Voters)	52	48	47	53

출처 : British Candidate Study, 1992 in Pippa Norris & Joni Lovenduski, *Gender and Party Politics*, London : SAGE Publications, 1993.

* 의원의 현황은 1999년 12월 현재 노동당은 총의원수 418명중 여성 101명, 보수당은 총의원수 165명중 여성 13명, 이밖에 여성의원은 자유민주당에 3명, 기타정당에 3명이 있음.

노동당의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이미지는 남성중심의 당원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연례 전당대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970년대의 한 조사는 노동당 대의원의 86%가 남성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동안 영국의 제조업의 감소와 화이트칼라의 서비스부문 노조회원들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조직된 노동운동내에서 여성참여의 기반이 변화되었다.

2) 노동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가) 노동당 당헌 : 여성할당의 내용 명시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무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당헌에 여성의 정당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노동당 당헌에 명시된 여성할당의 내용이다⁷²⁾.

72)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in Labour Party, '99, 12, 자료보냄

1. 노동당 선거구

- 1) 선거구 지부 사무원(Branch Officers) - 지역구 수준에서 4개의 주요직(의장, 부의장, 비서, 회계담당)중 2개의 직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8, IV, 1).
- 2) 선거구 지부 대의원(Branch Delegations) - 총회에 대표할 지부의 대의원은 적어도 5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만일 대의원수가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대표가 단 한사람으로 구성될 때는 2년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하도록 권장 된다. 지부의 비서(총회의 전 회원)와 청년 대표는 이 할당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3A, 1b).
- 3) 선거구 사무원(Constituency Officers) - 각 선거구 연차총회에서 선출된 7인의 정당직위(의장, 비서, 회계담당, 2명의 부의장, 여성담당, 청년담당) 중 3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7, IX, 2).
- 4) 전당대회 대의원(Conference Delegates) - 연례회의와 지역회의에 1인 이상의 대의원에서 여성이 50%가 되어야 한다. (만일 대의원이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노동당선거구가 한명의 대의원만을 보낼 때는 2년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 노동당선거구의 여성당원이 400인이거나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연례회의에 보내질 여성대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3A, 1b, c)
- 5) 기타 기구의 대의원(Delegations to other bodies) - 기타 기구에 보낼 대의원은 50%가 여성이어야만 한다.(만일 대의원이 홀수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대의원이 단지 한명일 경우 2년에 한 번은 여성을 선출하도록 권장된다. 지방정부총회, 유럽정당 그리고 지역의회(Regional Council)에 보낼 대의원이 이 요구된 할당에 할당되도록 하는 것은 총회의 책임이다.(7, XII, 3)
- 6) 노동당 선거구 집행위원회(CLP Executive Committees) - 노동당 당규에 집행위원회를 위해 특별히 할당을 명시해놓은 것은 없다. 총회의 모든 대의원들은 할당 요구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므로 평등한 대표성은 확보될 수밖에 없다. 집행위원회의 지부와 노동조합본부가 하나의 단위로 선출되는 곳에서, 할당제와 관련한 현행규칙의 의례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이 모든 지부, 선거구 할당에 할당을 충족시킬 만한 여성을 찾기 힘들 경우, 즉각적으로 그 직위는 공석으로 남겨지며, 여성당원으로 그 직을 승원할 것이 권장된다.

2. 소속 기구의 대의원(Affiliated organization delegations)

노동조합과 다른 관련기구로부터의 전국회의와 지역회의 대의원은 기구 전체구성원의 여성비율에 할당한 여성비율을 포함해야만 한다. 기구의 구성원이 5,000명 미만인 곳에서 만일 전체여성구성원이 400명이거나 이보다 조금 더 많을 때, 여성대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3A, 1a)

3. 지역 집행위원회(Regional Executive Committees)

모든 지역의 집행위원회에 구성원 중 적어도 40%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14, IX)

지역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역 규칙에 의한다.

4. 전국 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1998년 10월이래로 전국집행위원회는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적어도 12명은 여성이어야만 한다. 전국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

- 의장과 부의장
- 6명의 선거구대의원중 3명
- 12개 노동조합대표중 6명
- 2명의 지방정부 대표중 1명
- 3명의 평의원중 1명
- 1명의 유럽의회 노동당 대표
- 1명의 사회주의 사회 대표
- 1명의 청년대표
- 정당 회계담당

5. 전국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

전국 정책포럼은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72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

- 각 지역으로부터 5명의 선거구 대표중 2명(총 54명중 18명이 여성)
- 18명의 지역대표중 9명
- 30명의 노동조합 대표중 15명
- 9명의 노동당의원 대표중 4명
- 6명의 노동당 유럽의회대표중 3명
- 8명의 장관들(government ministers) 중 3명
- 3명의 사회주의 사회 대표중 1명
- 2명의 협력정당대표중 1명
- 4명의 흑인사회주의 사회 대표중 2명
- 9명의 지방정부 대표중 4명
- 전국집행위원회 총 32명 가운데 적어도 12명

6. 지방정부 공천(Local government selection)

지방의회 후보의 공천을 위해 현재 공식적인 할당은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 정당 후보자심사위원회에 여성을 50%로하여 구성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여성이 충분히 지명되지 못한 곳에서 정당은 여성당원 가운데서 심사위원회에 할당하도록 기회를 꼭 넓혀 공고해야 한다. 예비심사에서 합격한 지국들은 여성 50%가 되는 예비심사합격자 명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정부 공천은 당규 제5장에 의한다.)

7. 의회 공천(Parliamentary selection)

다음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이 1998년 정당대회에서 합의되었는데, 모든 예비심사 합격자 명단에 여성 50% 할당을 포함하고 있다.

8.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즈 의회(Scottish Parliament and Welsh Assembly)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노동당은 새로운 기구들에 대한 후보자 공천처거에 동의했다. 이는 노동당들의 2개 선거구가 짝을 이루고, 한명의 남성과 한명의 여성을 대표하도록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선거에서 여성은 웨일즈어는 50%를 조금 상회했고, 스코틀랜드어에서는 정확히 50%가 되었다.

나) 각급 의회참여에 있어 여성지원정책

① 의회: 여성만의 공천예비심사 합격자 명단 채택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몇몇 핵심 당선가능한 의석에 대해 여성만으로 공천예비심사 합격자 명단을 채택하는 정책을 취했다⁷³⁾. 이는 여성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수로 공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 그리고 전례없는 대승으로 노동당의 의원으로 여성이 101명 당선되어 노동당 소속 전체의원의 약 24%를 나타냈다.

이 제도하에서 선거구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은 여성 50%와 남성 50%로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특별한 의석에 공천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나, 공천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 제도에 덧붙여 정당은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현직 여성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새로운 후보들에게 공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술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다음번 총선을 위한 전략은 노동당 여성들이 1997년 선거에서 획득했던 것보다 더 앞서가도록 하려는데 있다. 제공될 훈련은 공석이 될 노동당의 당선가능지

73) 여성만의 공천예비심사 합격명단이 여성의원들의 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 한 번의 조치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1997년 총선전에 합의가 된 바 있다. 따라서 다음번(2002년) 의회선거에서 공천제도는 다를 것이다.

역에 여성이 공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당선가능지역에서 여성 의원의 선거는 노동당내 장기적인 여성대표성을 확실히해줄 진정한 소득이 될 것이라 관망하고 있다.

② 유럽의회 : 명부제도 채택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새로운 비례대표제도로 노동당은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명부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런던,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의회에서와 같이 이 새로운 제도는 정당이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명부의 반은 여성을 상위목록에 위치시키는데, 선거후보자의 43%가 여성이다.

영국의회에서 1992년 총선 때만해도 여성 의원의 비율은 9.2%에 불과해서, 유럽의 여러국가들 중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지난 1997년 선거에서 도약하여 유럽국가들 중 여성의원비율에 있어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③ 공천 : 공천신청 제도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선출직에, 노동당은 본인 스스로가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self-nomin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유망한 후보자들이 지방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되었던 것에서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천신청 제도는 기존에 남성들이 공천을 확실히해주어야만 했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능을 갖춘 여성은 재능을 갖춘 남성에 비하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보수적인 정치풍토 속에서 스스로를 공천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받았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타 지원정책

1980년대 동안, 노동당은 대중적 이미지를 변화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좀 더 많은 여성을 정당에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며, 급진적인 적극적 조치들도 채택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 예를들어 노동당의

정책홍보자료에 여성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등 잘 디자인된 걸표지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당여성조직으로부터 여성당원의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다른 좀더 실질적인 변화들은, 노동당 여성들이 정당조직 내에 성평등을 이루고 정당 강령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힐즈는 노동당의 개인당원의 40%가 여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1992년까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동당의 남성적 지배는 부분적으로는 오랜기간 지속된 노동조합과의 연대 때문이다. 남성당원의 약 1/5(19%)가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로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여성당원의 6%가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좋은 대조를 이룬다.

여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노동당은 1989년 연차대회에서 할당원칙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1990년 이래, 정당내 다양한 직위에 대한 선거에 있어서 할당의 사용을 확실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당의 원칙은 정당내 각급에서 남녀의 평등한 대표성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나. 보수당의 조직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보수당 정당조직

보수당의 조직체계는 노동당의 조직체계와 유사하다. 전국조직인 전국연합, 지역조직인 지역평의회, 선거구조직인 선거구협회, 그리고 선거구협회의 지부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하원의원선거구단위로 설치된 선거구협회가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수개의 선거구협회가 모여 지역조직을 이루고 그 상급조직으로 전국연합이 있다.

선거구협회(Constituency Association)는 일상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다. 협회는 직원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협회의 운영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방식으로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하원의원 및 지방선거에 임할

협회의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협회의 임원으로는 회장(President)과 의장(Chairman), 3명의 부의장 및 명예출납관이 있으며, 회장과 의장, 명예출납관은 매년 선거구협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협회의 관리기구는 집행평의회(Executive council)이다. 집행평의회는 총무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 선거구협회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며, 협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나 협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평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총회(General Committee)이다.

당대회는 전국연합의 중앙평의회 구성원 및 선거구협회마다 추가로 임명되는 각 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앙평의회는 전국집행위원회위원(200명), 각 선거구협회의 대표(의장, 여성위원회위원장, 명예출납관, 선거구대리인, 청년보수통일위원회위원장, 보수당 노동조합위원회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수당의 당대회는 당의 대표기관이나 정책결정권은 없으며, 당지도자에게 정책건의만 할 수 있다⁷⁴⁾.

2) 보수당내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정책

영국정치에 있어서 오래된 고정관념은 중년의 가정주부들이 모든 핵심적인 선거구의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보수당의 중추라는 것이다. 정당활동은 여성의 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체내에서 자발적 노동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것처럼 보여진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신빙성이 없는데, 개인당원의 기록은 선거구수준에서 자주 변하기 때문이다. 힐즈는 1970년대동안 여성이 보수당원의 51%를 구성했다고 하였다(Hills, 1981). 좀더 최근에는 1992년 BCS의 조사는 보수당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여성은 정당의 고위 정책결정기구에서보다 지구당 차원에서 좀더 활동적이라고 생각되어왔다. 그리고 BCS 자료가 이를 입증해주었다. 여성들은 지역선거구와 최소단위 지구당사무조직차원, 그리고 선거구 집행위원회에

74) 한승철(1993), 위의 논문, pp.36-39.

서 그 대표성이 잘 반영되었다(앞의 <표 IV-1> 참고). 오히려 지방정당사무소(Regional office)에는 여성이 거의 없었으며, 고위직의 수준인 전국연합(National Union)에는 50명(20%)의 여성이 있었고, 의회내에 보수당 소속의원 총 165명 중 여성 의원이 13명(7.8%)이다⁷⁵⁾.

가) 여성의원 300인(300Group) 목표⁷⁶⁾

1992년 현재 보수당의 50%가 여성당원인데, 영국 중년층의 여성들은 보수당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보수당의 여성들은 중앙당에서보다 지역의 당직자(branch officer : 선거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지방읍)로서 그리고 선거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당에서는 적은 수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연맹(National Union)의 상위직에는 20%(50명)의 여성이 있다.

1918년 30세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1928년 21세로 내린 이후 보수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여성운동과 정당의 비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당과 달리 보수당에서는 정당내의 여성들을 비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단계를 취하였지만 영향력있는 직위에서의 균형을 취하거나 성평등을 확실히 한다는 명백한 결의는 없었다. 단지 보수당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기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 여성의 의원수를 늘려나갔는데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정치훈련이나 의회시간의 변경 등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였으나, 노동당과는 달리 여성후보를 위한 재정지원에는 우호적이지 못하였다.

보수당은 장려를 통한 여성 의원 수를 늘려나가는 지원정책을 쓰고있는데, 특히 1980년 대처총리의 등장이후 여성 의원 300명을 내보낸다는 의미의 300집단(300Group)을 만들어 전당조직(all-party-group)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75) Pippa Norris and Joni Lovenduski, *ibid.*, pp. 42의 Table3.3 참고.

76) Joni Lovenduski & Pippa Norris(1993), pp.35-59; 장성자·김원홍(1995), 『정당내 여성 정치참여 지원방안』(한국여성개발원), pp.102-104에서 재인용.

이는 정당내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그후 1990년대 초에 보수당이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콘메이저총리가 그의 첫 번째 내각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자, 정당내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두 번째 내각구성시 두명의 여성을 각료로 임명하였다.

보수당의 성평등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정당의 후보선발 실천과정과 같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저항은 강하고 보수당 여성들이 그들의 자리를 요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그 성공여부는 달려있다. 1995년 현재 이 보수당은 두가지의 성격을 지닌 여성유권자들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가정내의 역할과 직업인의 역할을 가지고 정치적 야심을 키우는 현대적 취업여성들과, 전통적이고 나이든 지방의 여성회원으로서 임금을 받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조직에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능력있고 자격있는 여성들이 나서도록 장려하는 전략이 아마도 두가지 선거구민을 만족시키는 오직 한가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보수당여성에 관한 보고서⁷⁷⁾

최근에 보수당내 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발표한 보수당여성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nservative Women - Lines to Take, 1999)에서는 여성들을 격려하여 후보자로 나서게 하기까지 보수당의 노력이 약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당 여성들은 더 많은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이같은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비율은 단 10.4%였으나, 보수당의 이러한 방침이 있고 나서 여성이 후보자명부에 16.2%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여성후보자가 약 2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7) Steve Brine, Conservative Party Web Site Editor, 2000, 2, 24, 자료보냄

3. 독일

독일에서 정당가입은 보편화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유권자의 수에 비해 정당원의 수가 매우 적어 유권자의 단 3%만이 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1960년대 말까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여성 당원의 수는 매우 적어, 여성 당원의 비율은 20%미만이였다. 1996년 현재 정당가운데 사민당에 여성당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기민당, 민사당순이다. 여성들은 큰 정당에 가입을 선호하여 여성당원의 3/4가 사민당과 기민당에 몰려있다⁷⁸⁾.

독일의 주요정당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그리고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정을 포함하여 6개 정당이 있는데, 이중 자민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표 IV-4).

가. 사민당(SPD)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사민당의 조직을 살펴보면, 가장 최고기구가 연방정당의회(Federal Party Congress)로,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연방정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당의 연방집행부 소속 당원 뿐 아니라 지역차원의 정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갖는다.

연방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의장, 5명의 부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재무담당 그리고 그밖의 일반당원들로 구성된다. 전국집행부(National Executive)는 총 4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당업무를 총괄한다. 이 전국집행부는 여기에 속한 당원가운데 13명의 집행이사회의 최고간부회의(Presidium)의 임원을 선출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국집행부는 정당위원회(Party Council)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위원회는 소정당대회로 묘사되기도 한다. 정당위원회 구성은 110명의 대의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각 지역분과, 의회내 사민당집단을 대표하는 고문단, 연방정부를 이끄는 주의 대표, 그리고 유럽의회의 의원들로 이

78) 전복희(1999), "독일의 여성운동사와 여성정치참여", 『독일의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투어진다⁷⁹⁾.

1) 사민당 여성기구 : 사회민주주의 여성협의회(SF : The Working Group of Social Democratic Women)⁸⁰⁾

사회민주여성협의회(이하 : ASF)는 사민당내 9개 협의회 중 하나로서, 정당의 조직구조와 정치적 정책결정과정의 틀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ASF의 활동은 특정한 사민당의 목표집단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 활동의 내용은 정당에 의해 수행되는 토론과정에 여성의 이슈, 직위, 사업계획 등을 가져오고, 정당내에서 그리고 물론 선거구에서 여성의 다수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ASF의 활동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협의회는 정당과 사회에서 남녀의 평등 성취라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ASF의 업무는 다음의 내용에 기인한다.

-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이익과 요구를 증진시키고,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정당내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강화시킨다.
-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당원을 발굴하면서, 정당의 정책과 목표에 여성을 일반화시킨다.
- 독일 국제여성운동 뿐 아니라 노동조합, 정당소속연합체, 조직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요구를 형성하고 실행해 나간다.

사민당의 모든 여성당원들은 자동적으로 ASF의 일원이 된다. 1997년 현재 ASF의 회원은 240,000명 정도 된다. ASF는 사민당에 독립적인 조직이다. ASF는 사민당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ASF만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ASF만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 ASF의 하위조직은 사민당의 전국조직과 주조직에서 지부들이 설립되었다. ASF는 각각의 정당수준에서 행동조치를 제기하며,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79) <http://www.spd.de/english/organization/index.htm> '99. 11. 06. 오전 11:00. 검색.

80) IPU(1997),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 Inter-Parliamentary Union, January 1997, pp22-23.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전당대회는 ASF의 최고 통치기구라 할 수 있다.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ASF 전국집행위원회 위원들(위원장, 부위원장, 11명의 위원회 위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형성된 21명이 전국수준의 ASF의 업무를 관장하고 전당대회의 결정을 실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맥락에서 ASF 전국위원회의 후원을 받는다. ASF 전국위원회는 지부의 대표자들과 주조직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사민당의 여성정책은 모두 ASF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또한 ASF의 정책이 사민당의 기본적인 목표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SF는 사민당의 기본 정강에서 조금 앞서가는 정책을 제시하며, 얼마동안의 시기를 거쳐서 곧 사민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잡는다. ASF는 계간지로 '여성의 이슈'(Frauenthemen)를 발간한다.

ASF는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사민당은 남녀후보자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후보자에게는 특별히 세미나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 세미나는 ASF가 후원하기도 하고 사민당의 다양한 조직에서 후원하기도 한다.

2) 사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사민당은 당헌 IV, 1에서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⁸¹⁾.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사민당은 1988년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당내 조직과 의원에 양성이 최소한 40%이상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할당제를 당규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민당내 여성당원의 비율은 28%이다.

사민당 조직내 여성비율을 보면, 2000년 현재 최고간부회의에는 총 11명의 간부 중 여성은 4명으로 36.4%이다. 집행위원회(총 45명)중 임원은 7명인데, 이중 여성은 3명으로 42.8%이다⁸²⁾. 한편, 집행위원회 전체 45명 중 23명(1997년)이 여

81) <http://www.spd.de/english/programme.htm> 2000, 2, 18, 오전 11:19 검색.

82) <http://www.spd.de/english/organization/presidium.htm> '99, 11, 06, 오전 11:03, 검색.
<http://www.spd.de/english/committee/index.htm>, '99, 11, 06, 오전 11:02, 검색.

성으로 51.1%의 비율을 보여준다. 한편, 전당대회 대의원 여성비율은 1970년 20.8%에서 1998년 46.6%로 증가되었다. 또한 사민당 소속의 여성의원 비율은 35.2%로, 독일전체의 여성의원비율인 30.0%보다 높다. 최근 사민당의 간부급에 여성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내 여성당원의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여성들은 정당의 의사형성과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⁸³⁾.

나.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⁸⁴⁾

연합90/녹색당(이하 녹색당)은 사민당과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당의 여성당원비율은 57.4%(1999년)이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집행부차원에서 여성비율은 현재 53-57%이며, 최소할당 50%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고위직에도 최소할당 50%규정에 따라 대부분 53-57%사이에 있는 상황이다.

녹색당의 여성정관(women statute)⁸⁵⁾에 따른 여성기구는 연방여성회의, 여성평의회, 연방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 여성정관을 바탕으로 기구의 기능과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녹색당 여성기구

가) 연방여성회의(Bundesfrauenkonferenz : BFK)

- ① 녹색당은 매년 연방여성회의에 소집하며, 연방여성회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처리한다.
- ② 여성평의회는 연방여성회의를 준비한다.

83) 전복희(1999), 위의 논문, p.139.

84) Marion Boeker, Bundesfrauenreferentin, Bündnis90/Die Grünen, 2000, 2, 20, 자료보냄

85) <http://www.gruene.de/durch/satz/S-Frauen.htm> 2000, 02, 27, 검색.

나) 여성평의회(Frauenrat)

여성평의회는 정당총회 다음으로 최고기구이다. 이 여성평의회에는 여성당원과 정당원이 아닌 여성들이 함께 구성되는 여성정책 실무자 그룹이 있고, 이들은 2명의 대변인을 두며, 일년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의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서 NGO출신의 여성들, 전문가들이 모여 실제적인 문제와 새로운 지침, 그리고 전략 등을 토론한다.

- ① 여성평의회는 연방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동안 당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노선에 관하여 결정한다. 여성평의회는 당의 위원회들, 당사무처, 주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조율하기도 한다. 여성평의회는 정치적인 발의(발안)들을 계획하고 발전시킨다. 여성평의회는 또한 당총재를 자문한다.
- ② 여성평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방수뇌부의 두 명의 여성 당원
 - 주정부단체들의 여성 대표자 2명씩, 그 중 한 명은 주정부 노동조합에서 추천^{BB)}.
 - 원내 2명의 여성당원과 사무처에서 유럽 의회 내에 파견하는 당 소속의 여성 당원 2명
 - 연방노동조합에서 결성된 여성정책 대표자 2명과 여성동성애자정책 대표자 2명
 - 연방여성담당관 1명, 자문역할로 국회녹색당의 여성담당관 1명, 주정부 여성담당관들.
- ③ 여성평의회의 회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유임이 가능하다.
- ④ 여성평의회는 매년 최소한 2회 개최된다. 여성평의회는 녹색당 당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만약 회원의 1/5이나 당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여성평의회는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한다.
- ⑤ 여성평의회는 일반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여성평의회는 과반수 찬성

BB) 4천명 이상의 회원들일 때 주정부단체들은 한 명의 여성 대표자를 계속해서 파견하고, 8천명 이상의 회원일 때는 2명의 여성 대표를 파견한다.

으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 ⑥ 여성평의회는 사무규칙을 정한다.

다) 연방여성정책담당관(Bundesfrauenreferat)

- ① 여성정책담당관은 중앙당사무실에 마련되고, 여기에 당총재는 여성을 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한다. 연방여성정책담당관의 선출은 여성평의회에서 제정한 하나의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다. 위원회는 2명의 주정부 대표자들, 연방 수뇌부의 2명의 여성, 그리고 여성정책 및 여성동성애자의 연방노동조합에서 보낸 각각의 1명씩으로 구성된다.
- ② 주단위 수준에서 큰 주의 경우, 정당차원의 중앙사무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둔다. 즉, 16개 중에 5개의 큰 주에서만 여성담당관을 둔다. 여성정책에 관한 실무자 집단이 있는 대부분의 주에는 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비당원에게도 공개적이다.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기구, 대변인, 담당관, 회의 등은 모두 정당 예산내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행하게되므로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 ③ 연방여성정책담당관은 매년 여성평의회에 하나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2) 녹색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 당직할당 50% 규정

녹색당은 정당의 당규에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핵심사항은 1986년부터 여성당원의 당직에 대해 최소할당 50%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당의 모든 기관, 조직, 그리고 선거후보자 명부에 여성이 5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정관⁸⁷⁾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정관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87) <http://www.gruene.de/durch/satz/S-Frauen.htm> 2000. 02. 27. 검색.

§1 최소출당자

선거 후보자명단은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채워지는데, 여기서는 출수의 자리가 여성에게 마련된다(최소 혹은 최저 동수제). 여성은 역시 짝수석에서도 입후보할 수 있다.

§2 회의

(1) 연방회의들의 의장들은 여남동석(女男同席)으로 구성된다. 회의의 진행은 여성과 남성이 교대하여 맡는다. 연설 순위(順位)는 따로 만들며, 연설은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

§3 위원회

(1) 녹색당의 모든 위원회들이나 녹색당에서 파견하는 대표들은 여남 동수(同數)로 채워진다.

다. 기민/기사 연합(CDU/CSU)의 여성당직자 현황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기민연내 여성참여현황⁸⁸⁾

가) 연방 차원

1998년 9월 현재 기민당 당원 수는 625,769명이고 (구서독 564,723명, 구동독 60,963명) 그 중 여성당원 수는 156,411명 (구서독 136,627명, 구동독 19,768명)이어서, 여성 비율은 25%에 이른다 (구서독 지역 24.2%, 구동독지역 32.4%). 연방 여성 대의원 수는, 1998년 9월 현재, 336명으로서 전체 연방 대의원 수의 33.6%를 차지한다. 당전문위원회 소속 여성 수는 94명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 수의 18.7%이다. 당에서 과장급(Abschleissleiter) 이상 지위에 있는 여성 수는 3명으로서 이는 전체 9명 중 33.3%에 해당한다. 참모급 지위(Referentenebene)에 있는 여성 수는 13명으로서 전체 28명 중 46.4%에 이른다.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 : CDU)과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 CSU)(이하 ‘기민/기사연합’)의 연합인 기민연 내 여성 의원 수는 1980년대까지 기민/기사연합 소속

88) CDU(1999), *Frauenbericht* 자료보낸

여성의원 비율은 줄곧 6% 내지 7% 대 수준에 머물렀다. 1990년대에 이 비율은 13%를 넘어섰으며, 14대 의회(1998년)가 구성된 후 소속당 여성의원 비율은 18.4%(45명)로서, 다른 당에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발전 양상은 기민당(CDU)에서 1998년 총선거 전 전당대회에서 목표했던 30% 여성할당제 달성에 기인한다. 기민당만 놓고 볼 때 연방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은 19.7%이며, 기사당(CSU) 소속 여성 의원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

2) 주조직 차원(Landesverbände)

1998년 9월 현재, 기민당의 주조직 차원에서 여성 당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5%에 이른다. 지구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여성은 1998년 9월 현재, 지구당위원장 가운데는 한명도 없고, 지구당부위원장 중에는 몇몇 주⁸⁹⁾에서 50% 이상에 이른다.

3) 기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기민당은 당헌 제3장 1의 '남녀간 평등과 동반자관계'에서 동반자관계에 기초한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제시하고 있다⁹⁰⁾. 최근 기민당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지낸 안젤라 메르켈(여성)을 당총재직에 지명한바 있다⁹¹⁾. 기민당은 1988년 결정된 '기민당에서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기본노선'에 따라 당직과 의원에 여성당원의 비율에 비례하여 여성이 임명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대표성의 증진에 대한 권고가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고, 또한 현저하게 감소되는 젊은 여성 당원 수에 자극을 받아 1994년 연방 전당대회에서 최소한 당내 직책과 의원에 여성의 비율을 33%로 하는 정족수(Quorum)제도

8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함부르크, 헤센 주, 라인란트-팔츠 주 등.

90) <http://www.cdu.de/english/gru-prog/gp2.htm> 2000. 2. 18. 오전 10:40 검색.

91) 안젤라 메르켈은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볼프강 쇼이블레 당수의 후임으로 당수에 지명되었다. 중앙일보, 2000. 3. 21.

의 도입을 격렬한 토론 끝에 결정하였다. 1995년의 연방 전당 대회에서 이를 위한 당규의 변경이 부결되기도 했지만, 1년 후인 1996년 10월 정족수 제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그래서 선거명부에서 최소한 후보자 3명마다 1명의 여성이 포함되게 되었다.

4) 기사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

① 기사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기사당 주요 당직중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2> 독일 기사당(CSU)의 여성 당직자 비율

기사당 주요당직	여성당직자 비율(%)
연방의회 소속의원	12.7
주정부(도) 지도부	35.9
지구별(시) 지도부	20.8
군지역(군) 지도부	22.3
지방단위(면) 지도부	15.2
당 전체	17.0

출처 : <http://www.csu.de/diecsu/arbeitsgeundkreise/arbeitsgemeinschaften/fu/linkpage907.htm> 2000, 03, 27.

② 기사당의 여성관련 당헌

기사당의 당헌의 내용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에 관한 내용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

§15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

- (1) 당총재와 당의 주정부-, 지구별-, 군지역-, 시/공동체- 그리고 시지구별 자치단체나 지방 단체들, 모든 전국의 그에 상응한 조직단체들과 기민당의 특수조직들은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여남의 평등지위를 그 때마다 책임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2) 여성들은 기독교사회당 내의 당직이나 공식적인 의석에 최소한 1/3로 참여해야 한다.
- (3) 당사무처를 위한 선거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후보자추천은 국가기본법 조항 2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속고해야만 한다. 후보자추천이 여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 읍, 면 수뇌부층의 당사무소 집단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 있어서 여성의결정족수 1/3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투표는 무효이다. 그러면 계속적인 추천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의 투표는 결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이미 달성한 여성비율과는 관계 없이 유효하다.
- (5) 독일연방국회나 유럽의회에 들어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시, 군, 읍, 면)선거나 주정부(도)선거를 위한 후보자 명단을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권리가 있는 위원회는 3명의 연속적 명단자 중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선거구여성입후보자들은 그곳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명단추천에 관하여 위원회들이 갖는 결정적인 권리는 명단배치에서 여성이나 남성들을 반대추천이나 보결추천으로 부르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추천 권리가 있는 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성을 명단추천에서 배려할 것인데, 이는 결정권이 있는 회의 이전에 명시할 수 있고 근거를 낼 수 있다.
- (7) 새로운 질 C.(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나 §15(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의 삽입은 만약 중앙전당대회가 기존의 정관규정들의 지속적인 효력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정관의 분명한 개정이 필요 없이 2001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라. 자민당(FDP)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자민당은 여성정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정당내에 여성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젊은 세대의 여성유권자나 당원들이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할당제 역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의 여성할당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의 자의식은 몰라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정치와 경제에 관한 권력행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강한 몫을 가지려고 한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배양을 바탕으로 요구한다.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할당제여성(할당제실시를 통해서 들어온 여성)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현상을 지원하며 지도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를 요망한다. 우리는 여성정책을 시대의 과제로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분야는 특별성과들을

여성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배려하도록 한다. 여성이 관련된 특수한 부분들은 모든 분야에로 연계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⁹²⁾.

자민당이 할당제 대신에 취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해마다 점검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전국 기구는 1987년 4월에 여성발전계획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자민당내 고위직에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다.

첫 단계로서 이 여성발전계획은 5년 이상동안 정당내 여성비율(87년 당시 25%)에 따라 의사결정직의 여성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주, 연방주, 전국 차원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실무그룹, 발의권, 전문위원회를 신설, 지원했다. 본(Bonn) 소재의 전국 본부에 여성부서를 창설, 자유주의 경향에 근거해 남녀를 위한 여성정책 문제관련 워크숍을 만들고 촉진시켰으며 가정의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정당의 주요사건의 일정과 의제를 계획했다.

여성발전계획에 따라 각 지역구(district), 주(regional), 연방주(federal state) 협회의 의장을 비롯해 정당 지도부는 정기적인 정당회의에서 일년에 한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됐다⁹³⁾.

- 의원 수와 여성의 대표성의 증대
- 현 정당회의에서의 여성대표자의 수와 비율
- 최고위직 선출명부와 정부기구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증진문제

그 결과 1994년 11월 30일 현재 자민당의 당원수는 약 9만명이며 이중 20%가 여성이다. 그리고 최근 1998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의회의 43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중 9명이 여성이고 비율로는 20.9%이다. 이처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92) F.D.P. BUNDESTAGSFRAKTION Positionen, *Liberal Frauenpolitik* brochure, 1998, 7.

93) Christine Lemke(1994), "Women and Politics: The Ne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rbara Nelson and Najma Chowdhury(eds),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pp.261-284.

것은 정당에 느슨하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당내 외곽단체인 ‘자유여성연맹’(FALW, Federal Association of Liberal Women)이 중심이 되어 여성들이 당안에서 권리를 요구하고 남녀간의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고,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치철학을 만든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여성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성평등과 가족정책위원회(the Commission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는 여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전국집행위원회에 특별한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며, 전국집행위원회 또는 전당대회에 제출할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행동조치들을 형성한다. 자유여성연맹은 자민당과 총재단 수준에서 정기적인 교섭을 갖고 있다⁹⁴⁾.

4. 스웨덴

스웨덴에 현존하는 10여개 정당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사회민주당으로 1889년에 창당되었다. 스웨덴의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흔히 사회주의계와 비사회주의계로 구분되며 사민당과 좌파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온건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교민주당, 녹색당이 보수계(비사회주의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가.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 정책⁹⁵⁾

1) 사민당 여성기구 : 사민당여성(Social Democratic Women in Sweden)

사민당내에는 ‘사민당여성’이라는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민당여성은 약 15,000명의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정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 사민당여성의 조직은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그리고 26개의 지역조직(regional/county)과 430개의 지방조직(local)으로 이루어져 있다.

94) IPU(1997), *ibid.*, p.24.

95) http://www.sap.se/utl/utl_eng3.sap '99. 11. 6. 오후 1:41 검색

사민당여성의 주요역할은 사민당의 정치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사민당내 각 집행위원회 수준에 여성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민당은 전체적으로 240,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1%가 여성이다. 지방단위로는 약 2,700개의 지방정당연합(지부branch)이 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정당지부의 내부회의, 연구, 대외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당활동과 업무는 주로 당원들을 위한 정치활동의 채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 등 광범위하다.

2) 사민당의 여성지원정책

사민당의 여성당원비율은 41%이며, 할당비율은 50%로 정하고 있다. 사민당은 현재 다수당으로, 스웨덴 전체의원의 절반이상이 사민당 소속이다. 1994년 사민당은 남녀의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기본취지에서 남녀후보자의 순서를 번갈아 배치시키는 교차순번의 명부(layered lists)를 도입한 첫번째 정당이다. 또한 모든 연령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많은 후보자들이 후보자명부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

나. 보수당(Moderaterna)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⁹⁶⁾

보수당내 여성의원비율은 35%로 스웨덴내 다른 정당에 비해 여성당원비율이 낮은 편이며, 할당규정을 당헌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20%가 될 것은 권고하고 있다.

보수당내 조직은 16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16개 위원회는 정부의 16개 부처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해당 정부부처에 제시한다. 각 정부 부서에는 4명의 보수당 당직

96) Tanja Rasmusson, the political Secretary of the Moderate Women's Network, 자료보냄

자들이 있다. 정당위원회의 종류와 여성당직자의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3> 스웨덴 보수당의 위원회와 여성당직자

위원회명칭	전체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비율%
헌법위원회	9	2	22.2
재무위원회	10	3	30.0
세무위원회	8	3	37.5
사법위원회	8	5	62.5
법률위원회	8	4	50.0
문화위원회	10	3	30.0
교육위원회	9	3	33.3
사회기간산업 및 교통위원회	10	2	20.0
농업위원회	10	3	30.0
외무위원회	10	3	30.0
시장위원회	4	1	25.0
국방위원회	10	2	20.0
사회보장위원회	9	3	33.3
사회복지위원회	16	4	25.0
주택위원회	7	3	42.8
노동위원회	8	3	37.5
전 제	146	47	32.2

출처 : Tanja Rasmusson, the political Secretary of the Moderate Women's Network.
참고 : 몇몇 여성위원은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1) 보수당 여성기구 : 보수당여성네트워크(Moderate Women's Network)

보수당의 여성조직은 여성네트워크가 있다. 보수당여성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보수당과 연합하여 있고 여성유럽연합의 한 회원단체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는 1997년 재정비되기전에 보수당만의 조직이었으며, 명칭도 보수당 여성연합(Moderate Party Women's Association)이었다. 네트워크는 정당통합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정당의 정치의제의 전체범위에 있어서 평등의 반영을 주로 모니터한다. 이렇게 정당에 소속된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조직으로 남게된 이유는 '성평등이란 자연스럽고 자명한 것'이라는 이들 네트워크의 신념

때문이다. 이들은 전체 각급수준의 정치적 영역에서 성평등이 주류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있다.

가) 집행기구

네트워크의 집행기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며, 각기 다른 지역의 여성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각 지역(region)의 책임을 맡고있는 27명의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정당의 지구당사무직에 대한 지역 옴브즈만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들 27명의 여성들은 네트워크의회(Council of the network)를 구성하는데, 이는 1년에 2회 개최되고 주요정책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사무처와 옴브즈만

네트워크의 중앙사무처는 보수당 중앙사무처에 소속되어있는데, 여기에 옴브즈만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행정담당과 정부비서는 정치적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성평등과 관련해서 국가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한다. 또한 정당내에 고위여성정치인에 대한 네트워크의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내용도 책임지고 있다.

다) 보수당여성네트워크의 주요기능

네트워크의 주요역할을 각급 수준에 여성정치인들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일이다. 보수당내에 여성정치인들을 위한 후원과 자극을 제공하려 하며,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지역적으로 활동한다. 또 다른 측면은, 다양한 종류의 성과 관련된 정치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성평등과 여성문제에 대해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2) 보수당여성네트워크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보수당 소속 의회의원의 수를 보면, 보수당 전체의원 82명 의원 중 여성의원수는 25명으로 30.5%가 여성이다. 보수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각급의 정치적 임명직에 능력있고 경쟁력있는 여성을 채용시키고 준비시키

는 것이다.

보수당여성네트워크는 스웨덴의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여성정치인들을 위한 고위자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사무처는 1년에 한 번 훈련과정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신청자들을 접수한다. 그리고 20명씩 한 그룹을 선별하여 과정을 교육시킨다. 각 그룹은 1년에 2회모이고, 전체적으로 다섯 번 정도의 회의를 갖는다. 교육과정은 주말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린다. 교육과정 내용은 연설기법훈련, 인적개발과 정치와 정당이데올로기에 대한 리더십훈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보수당은 적극적 조치를 당헌에 취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이나 소수민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는 시간을 두고 태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고쳐지는 것이지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여성은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보수주의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할당비율을 20%로 권고하고 있다.

다.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기민당의 여성당원은 약 30%이며, 할당제를 당헌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헌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권고안에 적어도 여성이 40% 이상이 포함될 것을 장려하고 있다.

1) 기민당의 여성기구⁹⁷⁾

여성기구의 조직 구조는 곧 정당의 구조라 할 만큼 정당과 여성기구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간다. 그만큼 여성기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민당 여성기구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역구(region) 모임과 지방(local)모임으로 형성되어있다. 중앙에는 중앙위원회를 두고

97) Ulla-Britt Hagstrom, Chairman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s Organization
자료보낸, 2000, 1, 13/2000, 2, 5.

있다.

주요 역할은 여성적 관점에서 가족, 어린이, 젊은 세대들에 특별히 관심을 두면서 기민당의 정치를 형성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편부모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정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남성과 동일한 직종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평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건강과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기민당의 여성당직자 현황과 지원정책

기민당 당원의 남녀구성을 보면, 반수이상이 여성이다. 총 당원수는 추정치로 30,000명 정도이다. 의회에는 기민당소속 의원들이 총 42명이며 이중 18명이 여성이다. 정당위원회에는 정규위원(ordinary members) 17명 중 8명이 여성이며, 비정규위원(substitute members) 14명 중 6명이 여성이다. 유럽 의회에는 2명의 의원이 모두 남성이다. 기획위원회(Idea Institute)에는 11명 중 4명이 여성이며, 당 신문 기자는 3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있다. 수석위원회(Senior Organization's Board)에는 10명 중 4명이 여성이다.

기민당은 도의회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위원장 가운데 25%가 여성이며, 지방위원회(the local boards) 지구당에는 23%가 여성 위원장이다. 기민당 소속의 도의회(county council) 의원의 43%가 여성이며, 자치시의회는 37%가 여성의원이다.

기민당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두고있지 않지만, 각각의 성(sex)에 대해 적어도 40%를 충족시킬 권고안(recommendation)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 권고안은 정당의 당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기민당의 자문위원들과 기민당 여성기구가 기획을 공동으로 하며, 연구와 회의의 기회를 자주 갖고있으며,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민당은 스웨덴내 포괄적 여성단체인 샘(Sams), 그리고 이 샘이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여성 단체인 유럽여성로비(European Women's Lobby)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민당 여성기구도 이 조직의 일원이다.

라. 중앙당(Centerpartiet)의 여성당직자 지원 정책

1) 중앙당 여성기구 : 중앙여성(Centerkvinnorna)⁹⁸⁾

중앙당의 여성당원비율은 약 40%이며, 40%여성할당을 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4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즉 정당, 중앙여성, 청년연합 그리고 학생연합이며 이 조직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중앙여성⁹⁹⁾은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34,000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스웨덴 정당가운데서는 가장 큰 여성정치 조직이다.

전반적으로 정당의 전국위원회(the national board)에는 8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있다. 한명의 부위원장은 여성이며, 중앙여성의 대표가 한명 포함되어있다. 부위원중 5명이 여성이고 5명이 남성이다. 중앙당은 1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10명이 여성이고 8명이 남성이다. 중앙여성대표는 정당내에 비중있는 계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중앙당에서는 1985년-1987년에 한번 여성 당대표를 선출한 경험이 있다.

2) 중앙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중앙당 소속의 여성 의회의원은 중앙당소속 전체의원 18명중 10명으로 55.6%이다. 여성에 대한 할당비율을 40%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여성당직자의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는 제도이다. 중앙당은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각급 선거에서 여

98) Kristina Karlander, Political Secretary of Centerwomen in Centerpartiet 자료보낸 2000, 1, 21./2000, 2, 5.

99) 중앙여성은 1932년에 설립되었고, 중앙당(창당 1910년) 당원들과 청년조직(1919년 설립) 당원들이 공동으로 추진을 시작하였다. 중앙당의 여성연합을 조직하자는 논의는 1921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조직이 형성된 것은 1932년이였다. 1932년 가을, 전국적으로 2000명의 당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1933년, 스웨덴 농촌여성연합(SLKFF)이 형성되었다. 스웨덴 농촌청년연맹(SLU)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조직은 이렇게 형성되었고,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여성조직의 명칭은 1962년에 중앙당 여성연합(Women's Association of the Center Party : CKF)으로, 1989년에는 중앙여성(Center women : Centerkvinnorna)으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성후보를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앙당은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 총선에 출마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앙여성의 주요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갖고, 직업의 기회와 조건들을 동등하게 가지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의 의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국제적 연대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평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여성으로 하여금 정치적 문제에 관심갖도록 하는 일
- 성역할에 관련된 태도와 편견을 바꾸는 일
- 사회적 관련된 저반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지식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일
- 여성을 지도자로서 훈련시키는 일
- 정치적 임명직에 있어서 남녀간 균형을 위해 여성의 임명직 지명을 권고하는 일
- 공직에 있는 여성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
- 남녀가 똑같은 기회와 조건을 가지는 사회를 위해 정당의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는 일

마. 녹색당¹⁰⁰⁾의 여성당직자 지원 정책

녹색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녹색당¹⁰¹⁾ '순수 녹색개혁주의 정당들'의 집단에 속하며, 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치적 갈등에 관여하기를 원치않는 입장이다. 기존 사회에 대한 원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웨덴 환경운동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확산시켰고, 실용적 수준에서 노력해왔다. 따라서 스웨덴 환경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합의지

100) <http://www.mp.se/english>

101) 스웨덴에서의 초기 환경운동은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아 위축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녹색당들은 환경과 인간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스웨덴과 독일 녹색당을 차별성을 가진 대표적인 다른 그룹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녹색당의 지지자들은 교육받은 새로운 중간계급인 고급노동자, 전문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럽녹색당 지지자들의 직업 및 연령별 특성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다시말하면, 스웨덴의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과 달리 좌익 지향적이지 아니라는 말이다.

스웨덴 녹색당의 조직구조는 상하의 관료적 구조로 되어있는 기존 정당들과 다르다. 녹색당의 지도원리는 분권화(관료적·위계적 구조타파, 기능집중 방지), 지역의 영향력 증대, 직접민주주의(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권력의 분산(당직순환제)을 반영하고 있다. 당은 지역(local), 지방(regional, 28개), 전국(national)조직 간의 3자 연대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당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17명의 정치위원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루고 있고, 남녀 각 1명씩의 당대변인을 두고 있다. 대변인은 당과 언론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성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녹색당 구조의 특징이다. 4개의 국민위원회(national committees)의 구성은 여성 6명당 남성 5명의 성비율을 명시하여, 남성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⁰²⁾.

스웨덴을 포함하여 유럽의 3개 국가에 대해 살펴본바, 유럽지역에 속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여성할당제를 당헌이나 당규,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권고안의 형식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 국가의 여성할당제는 각급 선거시에 후보자에 대한 할당이며,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는 당직의 할당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할당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이들 정당의 특징은 정당의 여성당원비율에 맞게 할당제의 비율을 정하거나,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성당원비율에 관계없이 할당비율을 40-50%까지 정하고 있었다.

102) 이현근(1998), "녹색당과 스웨덴 정당체계의 변화," 『부산정치학회보』 제8집 2호, pp. 293-294.

<표 IV-4> 유럽국가의 주요 정당내 여성당원비율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당규정

국가	정 당	창당연도	여성당원비율	할당제 채택여부	할당비율
영국	노동당(Labour)	1906	40%	○	-
	보수당(Con)	1762	50%	×	-
	자유민주당(LibDem)	1988	50%	○	33%
독일	사민당(SPD)	1863	28%	○	40%
	기민당(CDU)	1945	25%	○	33%
	연대90/녹색당(B90/Grünen)	1980	37%	○	50%
	녹색당(Graue)	1989	45%	○	50%
	민사당(PDS)	1990	46%	○	50%
	기사당(CSU)	1948	16%	×	-
	자민당(FDP)		25%	×	-
프랑스	사회당(PS)	1971	30%	○	30%
	공산당(PCF)	1920	40%	○	50%
	공화연합(RPR)	1976	40%	×	-
	민주연합(UDF)	1978	-	×	-
	민족전선(FN)	1972	36%	×	-
	녹색당(Verts)	1984	30%	○	50%
스웨덴	사민당(S)	1889	41%	○	50%
	보수당(M)	1904	35%	×	20%
	좌파당(V)	1917	55%	○	50%
	기민당(KD)	1964	30%	×	40%
	중앙당(C)	1916	40%	×	40%
	녹색당(MP)	1979	50%	×	-
노르웨이	노동당(Ap)	1887	40%	○	40%
	진보당(FrP)	1973	-	×	-
	보수당(H)	1884	38%	×	-
	기민당(KrF)	1933	-	×	-
	중앙당(Sp)	1920	-	×	-
	좌파당(Sv)	1961	51%	○	40%
	자유당(V)	1884	-	×	-
핀란드	사민당(SDP)	1903	39%	○	40%
	중앙당(KESK)	1906	12%	×	-
	보수당(KOK)	1918	46%	○	-
	좌익연맹(VAS)	1990	41%	○	40%
	녹색연맹(VIHR)	1988	51%	○	40%
	자유당(SFP)	1906	40%	○	-
	기민당(SKL)	1958	65%	○	40%

(계 속)

국가	정 당	창당연도	여성 당원비율	할당제 채택여부	할당비율
벨기에	자민당(VLD)	1846	25%	×	-
	기민당(CVP)	1884	40%	○	50%
	사회당(PS)	1885	35%	×	-
	자유개혁당(PFL)	1846	33%	×	-
	사회당(SP)	1885	42%	×	-
	녹색당(Ecolo)	1980	38%	○	50%
	녹색당(Agalev)	1979	39%	○	30%
	기민당(PSC)	1884	40%	×	-
	민족진보(VU)	1954	38%	×	-
오스트리아	사민당(SPO)	1889	33%	○	25%
	자유당(FPO)	1955	30%	×	-
	보수당(ÖVP)	1945	45%	○	33.3%
	녹색당(Green)	1986	60%	○	-

출처 : <http://db-decision.de/english/> 99, 12.

* 유럽연합국가들중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자료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음.

** 할당제는 각 정당의 당직과 선거시 후보자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 할당제를 당헌에서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안에서 비율을 언급한 정당은 할당비율에 그 수치만 제시함.

5. 뉴질랜드

가. 노동당(Labour Party)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노동당의 여성기구

노동당의 전국적인 여성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노동당여성위원회(Labour Women's Council : LWC)와 여성조정관(Women's Co-ordinator)이다. 여성조정관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정당의 직원이며, 웰링턴에 있는 정당 중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내 당직자중 여성당직자의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5> 뉴질랜드 노동당 당직의 여성비율

주요 당직	여성비율(%)
당소속 국회의원(MPs)	36.7**
핵심 고위당직자(front bench)*	42
당위원회(Ruling Party Council)	25
선거구사무장(Electorate Chairs)	25
선거구서기(Electorate secretaries)	45
지구당분과장(Branch Chairs)	39
지구당분과서기(Branch secretaries)	56
정당 당원(Party membership)	52

출처 : Lesley Soper, Labour Women's Vice-President, NZ Labour Party(2000, 2,10.)

* 핵심고위당직자는 정당의 국회의원(MP)으로서 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속당이 내각을 맡을 경우 내각에 입각하게 되는 사람들임.

** 노동당 소속 전체의원수 49명중 18명에 대한 비율임.

가) 노동당 여성위원회(Labour Women's Council : LWC)¹⁰³⁾

① 여성위원회(LWC) 구성

노동당여성위원회(이하 LWC)는 노동당내 15개의 위원회(Committee)와 2개의 위원회(Council)중 한 기구로서 노동당내 지원조직이다¹⁰⁴⁾. LWC는 선출직이며 비보수직 그룹이다. LWC는 투표권이 있는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8명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은 뉴질랜드위원회(NZ Council)¹⁰⁵⁾의 여성대표

103) Lesley Soper, Labour Women's Vice-President, NZ Labour Party 2000, 2,10, 자료보냄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Organisation/SupportingOrganisations/wo.htm>
'99, 11, 7, 오전 11:06 검색

104)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Organisation/SupportingOrganisations/index.htm>
2000, 3, 21, 오전 9:28 검색

105) 연례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뉴질랜드위원회(NZ Council)가 노동당의 통치기구이다. 뉴질랜드위원회는 위원장, 2명의 수석부위원장(1명은 마오리족), 3명의 부위원장(여성, 소속노조, 태평양군도대표), 7명의 지역대표, 1명의 정책위원회 대표, 3명의 간부회의대표와 1명의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져있다. 노동당의 뉴질랜드위원회는 정당의 운영을 하루단위로 점검하고 운영한다. 이들은 정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중요한 조직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보자들이 적절히 선출되고 대회와 기타 정당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한다.

들로서 이들은 여당위원회에서 정당의 부총재를 겸하고, 연례대회에서 정당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투표권이 없는 나머지 위원 가운데 4명의 여성은 정당의 여성들로부터 선출이 되는데 이 역시 주로 연례대회에서 선출되며, 2명의 마오리족 대표와 1명의 태평양군도 대표가 있다. 마오리족 대표와 태평양군도 대표들은 이들만의 연례총회에서 해당부문의 여성들로부터 선출된다.

모든 노동당 여성의회의원들은 노동당 여성간부회의(Labour Women's Caucus)를 구성하는데, 이는 의회가 열리는 동안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여성간부회의는 여성에 관한 의회안건을 LWC의 모든 회의에 보고한다.

② 여성위원회(LWC)의 주요활동

LWC의 주요활동을 보면, 노동당은 LWC를 통해서 여성들이 당직을 맡고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례대회에서 매년 노동당은 여성의 날(Women's Day)을 만들어 행사를 갖고있는데, 이 날은 노동당여성을 위한 채용과 훈련, 중진의 날로서 작용한다.

LWC는 다른 조직들이 여성조정관이나 노동당 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주요 연결통로이다. 다른 여성정치인들은 또한 노동당의 여성간부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LWC는 전국여성협의회(National Council of Women), 여성국, 뉴질랜드 연합노동조합, 여성의 쉼터, 유급부모휴가캠페인,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YWCA,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등과 같은 많은 기구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소식지 및 기타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 행사에 참석한다. 때때로 하나의 같은 이슈를 위해서 연대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유급부모휴가'가 그 예이다.

나) 노동당 여성 지구당분과(Labour Women's Branch)

여러 선거구는 노동당여성분과(Labour Women's Branch)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분과의 목적은 여성에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여성의 시각에서 모든 안전을 심의하는데 있다. 여성들은 일반분과와 여성분과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모든 분과는 지방선거조직위원회와 모든 지방 및 연례총회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

이 부여되고 있다. 한 분과는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인정되기 이전에, 적어도 정당 원 중 최소한 당비를 납부하는 10명의 당원을 두어야만 한다.

다) 여성연락담당관(Women's Liaison Officer : WLO)¹⁰⁶⁾

모든 선거구는 정당 당헌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선거구위원회(Local Electorate Committee)¹⁰⁷⁾에 여성 연락담당관(Women's Liaison Officer : WLO)을 임명하여 두도록 되어있다.

WLO는 여성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고취시켜 참여를 유도하는 일을 하고있는데, 지역공동체그룹 및 다른 정당의 여성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조정관(Women's Co-ordinator)은 매년 여성연락담당관(WLO)의 현황을 검토하고, WLO로부터 정보를 교환한다.

여러 선거구를 포함하고 있는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여성네트워크(Regional Women's Network)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여성네트워크는 포럼, 워크숍, 그리고 정책토론과 같은 지역활동을 조직한다.

2) 노동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노동당은 후보자를 위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명부를 작성할 때, 후보명부위원회는 형평을 고려하여 매 5석마다 성과 인종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있으며, 또한 전국에 걸쳐 지역적 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당헌에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노동당 대의원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회와 같은 큰 행사시에 가능한 보육시설을 갖

106) Lesley Soper, Labour Women's Vice-President, NZ Labour Party 2000, 2.10, 자료 보냄

107) 뉴질랜드는 총 67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있다. 각 선거구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여러 선거구에서 여성분과를 두고 있다. 이 분과의 개념은 선거구내에 여러 사람들의 모인 집단의 수준이다. 노동당선거구위원회(LEC)는 각 선거구의 모든 지구당분과 대의원과, 정당 소속의 노동조합 대의원, 그리고 선거구에 살고있는 정당원들로 구성된다. LEC는 선거구의 정당조직을 책임지고 있다.

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위원회(LWC)와 여성조정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여성들을 노동당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권고한다.
- 정당내에서 여성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한다.
- 여성에게 지식을 주고 연락을 하기 위한 매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여성들이 당직에 임명되도록 지원한다.
- 의회내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킨다. ('2001년에 여성의 수를 50%로 하기' Half-by-2001 위해 몇 년간 노력해오고 있다.)
- 여성들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 여성들을 위한 자치시, 지역, 그리고 전국단위의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미디어와 유권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회내 여성의원들의 리더십과 주요 노동당 정책을 증진시킨다. (여들면, LWC는 최근 개정된 뉴질랜드 선거법(MMP)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정책개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위원회(the Policy Council)¹⁰⁸⁾는 노동당여성위원회(LWC)에서 선출된 대표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당은 매 선거마다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한다. LWC와 여성간부회의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맡아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⁹⁾.

나. 국민당(National Party)의 여성기구와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국민당 여성기구 : 여성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¹¹⁰⁾

국민당의 여성기구는 여성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이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당내에서 국(Division) 수준에 준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위원회는 자금모금, 기능을 보조하는 일,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등을 많이 해왔다. 지난 10년간 국민당에 활발히 활동을 하는 여성의 수가 감소하였다. 주요 원인은 20대에

108) 매번 총선이후 3년임기로 위원이 선출된다.

109) <http://www.labour.org.nz/InfoCentre/Organisation/structure.html> '99. 11. 7. 오전 11:00 검색

110) Sue McKenzie, Woman Vice-President of National Party in New Zealand 2000, 2, B. 자료보냄.

서 40대의 많은 여성들이 가정밖에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조직에 참여할 만큼 시간과 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의 다수가 50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2) 국민당내 여성당직자 현황과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990년에서 1998년까지 국민당 전체의 여성당원비율은 52.4%이다. 한편,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정당원의 수를 보면, 운영위원회(Management Board)에 남성 7명·여성 4명, 정책위원회에 남성 5명·여성 5명, 재무위원회에 남성 4명·여성1명, 전략위원회에 남성 5명·여성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IV-6> 뉴질랜드 국민당 주요위원회 남녀구성원

단위 : 명

위 원 회	남성	여성
당소속 의원(MPs)	30	9
운영위원회(Management Board)	7	4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	5	5
재무위원회(Finance)	4	1
전략위원회(Strategy)	5	1

출처 : Sue McKenzie, NZ National Party(2000, 2, 8.)

국민당에는 신뢰기금(Trust Fund)으로, Dame Hilda Ross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내 여성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국민당은 여성당원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당은 다른 여성조직들과 네트워크를 맺지만 사적인 연락수준에 불과하며, 국민당이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조직은 전국여성협의회(National Council of Women)이다.

6. 요약 및 시사점

외국 주요정당들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은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권장하려는 국가들에서 볼 때, 몇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내 여성관련 기구 및 조직적 측면과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의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위에서 살펴본 정당내 여성기구와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내에서의 위상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민주여성 전국연합(NFDW), 독일과 스웨덴 정당의 여성기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정책노선을 따르지만, 여성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여성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여성당원의 비율이 우리 나라의 정당보다 적은 정당일지라도 정당내 지도부와 주요당직에 여성의 비율이 20-50%에까지 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당원들에 대한 훈련기회와 정책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 정당의 경우, 여성당원의 비율이 50%에 이르지만, 주요 당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참여가 극소수에 머물러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주요당직 참여에 또 한가지는 정당의 최고위급에 고정적인 여성의 자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대변인이라는 직위를 한 사람이 아닌 두사람으로 하여, 그 중 한사람은 여성을 임명하고 이 여성당대변인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당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정당에 부대변인으로 여성들이 임명되고 활동하기도 하지만, 여성문제에 있어 공식적으로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외국정당의 경우 당대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정당에서 여성문제 대변인을 별도로 두고있는 것을 주시해볼 만하다. 위에서 살펴본 정당들 가운데는 독일의 녹색당과 스웨덴의 녹색당에서 여성문제 대변인을 두고있었다.

셋째, 전국적으로 지구당에도 여성분과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각 지구당 차원에서부터 여성이 지구당대의원, 사무원에 일정정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당헌에서는 지역구 수준의 지방조직에까지도 여성의 일정수준 할당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시 여성의 당선보장이나 고위당직 참여에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서 훨씬 더 여성참여의 범위를 넓혔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처럼 풀뿌리 수준에서부터 여성의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 정치참여의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외국의 주요정당에는 선거시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금의 마련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지원정책의 내용면에서의 분석이다. 첫째, 정당의 여성지원 정책이 여성의 참여비율만을 증가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정당의 전반적인 사회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성당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여성의원수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본다.

세번째는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할당제 또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경우, 아예 공천과정에서 여성만의 예비심사합격명단을 작성하여 여성이 50%공천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주요 정당들은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를 거의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 의회 소속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표 IV-4), 주요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당내 여성당원의 비율에 따라 여성할당비율을 20%에서 50%까지 책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여성당원의 비율이 30%를 훨씬 넘게 차지할 경우, 여성할당비율을 여성당원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헌이나 당규에서 할당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당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권고안의 형식으로 할당비율을 정하고 있는 정당들도 볼 수 있었다.

V. 정당의 여성 당직자 확대 방안

이상으로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및 외국 정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여성당원 비율은 전체 당원의 50%가 넘지만, 당 간부라 할 수 있는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직책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10-20% 수준이었고, 특히 비중 있는 당직이나 고위당직에의 여성비율은 보다 낮았다. 아울러 여성당직자들은 일부만이 인권, 노동, 안보, 환경, 체육, 농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여성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주요 당무나 국정운영에 있어 소외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 각급 의회에 여성의 낮은 진출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정당내 여성당직자 수가 적고, 소수의 여성당직자들이 주로 여성 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로는 첫째, 정치를 남성 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리사회의 여성 배타적인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 정치지도자들이 비중 있는 당직에 여성을 임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둘째,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당직자 발굴 및 교육, 훈련 등의 노력 부족, 셋째, 우리 나라의 정치문화는 정당 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비용의 과열된 정치문화를 보이고 있어, 여성들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당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내용과 남녀당직자의 의견조사 및 외국의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 및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과제

가.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과 매력적인 정권정당으로의 변화

제16대 총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밀실 정치, 패거리 정치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울러 선거분위기도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이 혼탁한 지역주의 선거의 재연이었다. 이러한 구태 의연한 정치문화를 개선하고자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따라서 정당가입도 정치권과 이해 관계가 많은 일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선뜻 정당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혼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내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참여나 훈련 경험없이 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 최고책임자나 몇몇의 정당내 핵심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명 하달식 주종관계나 파벌주의 양태를 지녀왔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도 선진 정치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정당들은 실제 당원들에 의해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체제로 정당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당체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내 민주화는 후보 및 당직자 선출에 있어 여성들이 경선을 치루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경선과정에서 여성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할당제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여성에게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¹¹¹⁾ 이는 이미 영국이

111) 영국의 노동당의 경우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여성당직자나 공직선거의 후보를 선출하여도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 해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특히 중앙당 간부인 집행위원회는 경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우선 30% 의석은 여성 몫으로 배정하여 먼저 여성후보끼리 경선하여 선발하고 나머지

나 독일 등 정치선진국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다. 아울러 정당들은 당내 민주화와 함께 여성들이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매력적인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반듯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남성 정치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당내 여성당직자 비율이 낮은 원인중의 하나가 남성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여성당직자로 임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식 전환의 출발점은 기존의 가부장적 지배구조에서 고착화된 개념인 여성은 ‘주부’ 또는 ‘어머니’라는 관점에서의 탈피이다. 특히,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남성 정치지도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남성 정치지도자를 초청하여 여성정책토론회 및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회 내에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책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남성 국회의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의 연수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남녀평등 의식 강화를 설치하여 남성 당직자들에게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제언

가. 여성의 각급 의회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들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내용의 기본 골자는 각급 선거 시 어떻게 하면 당선 가능한 인물을 많이 발굴하여, 선거에서

70%의 의석에 대하여 떨어진 여성까지 포함하여 다시 남녀후보가 함께 경선하여 위원을 선출한다.

승리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 계획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정당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엘리트를 발굴하고, 충원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단지 금번 총선 시 비례대표제 후보에 여성할당 30%를 명시한 정당법의 개정과 민주당의 경우 대의원, 당무위원, 인사위원회에 한나라당의 경우 대의원, 부총재에 일정비율의 여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한 결과 금번 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5.9%로 늘어났으나, 아직 여성당직자 비율은 낮은 형편이다. 앞으로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각 정당은 당의 기본이념 및 정책이념에 근거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1) 정당들은 헌법, 여성발전기본법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한 정당의 의무를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당은 당헌·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의무규정으로 기본방향 설정과 함께 각급 선거 및 정당의 모든 조직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당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각급 의회 및 여성당직자에 대한 할당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관장하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매년 동 계획에 따라 당지도부는

- ① 각급 의회의 여성의원 수와 증가 상황
- ② 정당내 모든 직책에 여성당직자 수와 증가 상황
- ③ 여성당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상황

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국 대의원 대회시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각급 의회 및 당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확보

- 1) 각급 의회에 여성 대표성 확보 : 정당의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할당 의무화 및 이의 이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중앙의 당직자중 특히 부총재, 당무위원, 사무총장·부총장, 원내총무·부총무, 정책위의장·부의장, 대변인·부대변인 등의 고위당직에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성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을 주 이유로 들 수 있다. 물론 역으로 고위당직에 여성위원 수가 많을 경우 여성 의원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은 금년 2월 정당법에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할당 30%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극복하고 각급 선거에서 여성 의원 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비례대표후보에 여성후보 30%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에서 이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해야하며, 여성후보자의 공천 순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각급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비례대표제의 여성할당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대체로 그 공약을 지켜 오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금번 16대 총선에서도 새천년민주당만 전체 전국구 후보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여성후보 공천 30% 약속을 지켰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지방선거에 있어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난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은 거의 40%이상 여성들을 후보로 공천한 상태에 있어, 금번에 통과한 정당법 비례대표제 30% 여성할당의 경우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법 31조 4항의 내용중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대로 30%이상, 지방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4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헌·당규에 여성할당제의 순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¹¹²⁾.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여성후보 순위에 있어 1순위에서 15

112) 1998년 11월 창당한 청년진보당의 경우 금번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당헌에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진보당의 중앙당의 경우 15명의 당직자중 여성이 8명이다.

순위까지 여자, 남자의 교차순번으로 하고, 16번부터 남성 60%, 여성 40%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정부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의석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여성할당 30%의 이행여부 및 여성 의원 수와 연계하여 국고보조금을 삭감 또는 증액 지급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당 고위당직에 여성의 대표성 확보

가)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의 고위당직에 성균형화 정책 도입

현재 우리 나라 정당내 고위당직중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의 직책은 비중있는 직책이면서, 그 직책에 있는 인원 수는 2-3명에 불과하다. 현재 이들 당직에 여성은 전무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고위당직에 위원장이 남성이면, 부위원장은 여성으로, 위원장이 여성일 경우 부위원장은 남성으로 하는 성균형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당들도 특히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내지 간사 등의 고위당직에 있어 위원장이 남성일 경우, 부위원장은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성균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부총재, 당무위원, 원내 부총무, 부대변인, 연수원 부원장, 자문위원 고문, 정책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고위당직에 여성할당 30% 제도적으로 보장 제 도입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대의원에 여성 30% 할당제의 운영과 함께 부총재, 당무위원 등의 고위 당직에 부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대부분 부총재, 당무위원, 원내 부총무, 부대변인, 연수원 부원장, 자문위원, 고문, 정책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당직에 일부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구색맞추기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정당내 각종 고위당직에 있어 여성의 낮은 비율은 결국 여성의 낮은 각급 의회 진출과도 직접 연계된다. 정당내 고위당직에 여성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도 본 연구의 4장에서 보았듯이 당고위직에 여성의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각급 의회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그런데, 여성의 고위당직 참여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고위여성당직에 대한 대표성 보장방안으로, 당 운영기구에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 스웨덴, 독일, 영국의 경우 여러 정당들이 당내 고위직에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정당들이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총재, 당무위원 뿐 아니라, 원내 부총무, 부대변인, 연수원 부원장, 자문위원, 고문, 정책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임원 등에 있어 여성할당 30%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당고위직의 여성할당 30%의 근거는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에 근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당헌·당규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 고위직중 임명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를 여성으로 할당하여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출직인 경우 전체 인원의 30%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여성끼리 경선을 하도록 한 후 나머지 70%에 대하여, 낙선한 여성까지 포함하여 경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공천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정당내 후보를 공천하고 주요 당직의 임명을 결정하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권리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공직선거의 후

113) 1997년 현재 IPU가 전세계 국가의 정당을 대상으로 여성고위 당직자의 비율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6개국의 418개 정당 가운데 여성당수(총재 혹은 제1서기장)는 45명(10.8%), 여성부당수는 84개국의 402개 정당 가운데 75명(18.7%), 여성사무총장은 86개국의 383개 정당 가운데 30명(7.6%), 여성대변인은 85개국의 388개 정당 가운데 34명(9%), 여성당무위원이 있는 정당은 80개국 871개 정당 가운데 286개(33.1%)로 나타났다.

출처: IPU(1997), *Men and Women in Politics: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pp.127-130.

보공천에 있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로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천심사를 하고 있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단지, 16대 총선을 맞이하여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8명의 공천심사위원중 1명의 여성위원을 포함시켰으며, 한나라당의 경우도 6명의 공천심사위원중 외부인사로서 1명의 전직 여성장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앞으로도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대표성 확보

가) 중앙당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당직자 참여 확대

우리 나라의 정당내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중앙위원회와 정책위원회 각종 분과위원회, 상설·비상설 각종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성들이 주로 여성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당내에서 주로 제한된 여성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은 한정된 정보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며, 정당내 다양한 분야의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당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②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③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회 위원 교체시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④ 연도별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위원회에 대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개선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의 목표율 설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당안에 여성인력은행을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의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 조직국장, 직능국장 내지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여성국과 협의하여 여성위원을 추천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아 일정비율의 여성을 위원으로 충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우리 나라의 정당내 각종 위원회는 당 조직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이상 많은 위원회를 설치한 면도 없지 않다. 따라

서 각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이 활발치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도층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극복하고 위원회 위원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중앙당 사무처 여성당직자에 대한 채용, 배치 및 승진할당제 도입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중앙당의 유급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을 150명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무처 당직자의 숫자는 이 범주보다 다소 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당 내 사무처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고, 사무처내 여성당직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사무처 여성당직자에 대해 채용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아울러 여성들은 사무처 내에서도 비중없는 부서나 여성관련 부서에 제한하여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인사권자는 사무처 여성당직자를 기획조정실, 정책국, 조직국, 직능국, 선전국 등 비중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배치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부국장급(전문위원 포함) 이상의 당직에 여성들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승진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구당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에 일정 비율 여성할당

우리 나라의 정당 내 지구당의 당직에 있어 사무국장이나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고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성은 극소수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지방의회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내 의사결정과정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특히 지구당의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고문, 자문위원에 일정 비율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당내 여성당직자의 확대는 여성들의 정치훈련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당 정책 사업에 여성의 의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당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당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들은 선거 당시에만 여성정치인 훈련전담기구의 설치 내지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거의 그 공약은 없던 것이 된다. 현재 주요 정당의 연수원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당내 프로그램으로는 한나라당의 「여성정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정치 선진국을 구현하고 여성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여성당직자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여성의 당직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리더쉽 개발'(3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당내 지도층의 여성당직자에 대한 인식 변화'(28.3%), '여성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27.6%) 등의 순으로 꼽았다. 그리고 여성응답자의 경우 '당내 지도층의 여성당직자에 대한 인식변화'(48.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26.8%), '여성의 리더쉽 개발'(17.8%)을 꼽은 것으로 보아서도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당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당직자의 관심과 정치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내용을 차별화하고,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 과정 및 중·장기적으로 청년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과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청년층에 대한 정당 인턴제도의 확립

앞으로 정당이 보다 젊어지고 발전하기 위하여 여성 청년층의 정당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청년 여성들이 당직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당은 교육부와 대학과 연계를 가지고 여대생들이 정당에서 인턴으로 실습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대생 인턴을 대상으로 한 실습내용으로는 '정당의 활동', '국회의 활동',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성문제의 이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정치연수를 받거나 또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여성당직자 및 여성정치인 발굴·지원 강화

1) 당내 모범 여성당직자에 대한 임원(간부) 및 각급 의회 후보로 추천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질문에 응한 남성당직자의 59.1%, 여성응답자의 45%가 정당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당직자들은 정당활동에 있어 명예직으로 직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당 발전에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당에서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여성당직자를 발굴하여 당의 임원(간부)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부 여성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당직자 및 여성후보 발굴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가 개정되어 미약하나마 이제 여성 단체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여성조직은 우선 정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여성단체, 여성법조인, 여성 언론인, 여성경제인,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 등 여성집단과 연계하여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당직자 및 각급 공직선거의 후보로 추천한다. 이는 여성집단의 인력 순환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도 효율적이다. 이미 미국의 민주당과 독일의 녹색당, 사회민주당에서 보았듯이 정당의 여성조직과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여성세력을 결집하여 공동사항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으며, 여성의 당직 및 의회진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공개모집을 통한 여성당직자와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전문여성 인력이 당에 들어가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각급 후보도 공모하여 우수한 여성정치희망자에 대하여 정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정치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분야별 여성전문인력의 확보 뿐 아니라,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는데 있어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4)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 설치

미국의 에밀리 리스트처럼 정당내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을 설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여성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을 지원하면서 정당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매스컴 및 세미나 개최, 공약개발, 선거전략 제공 등을 통한 여성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마. 총계 직속의 독립된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

우리 나라 정당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조직으로는 중앙위원회 산하에 여성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여성정책위원회 내지 여성정책

전문위원이 있거나, 사무처 내 여성국이 있다. 이들 여성조직이 하고 있는 기능으로는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의원회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가 주이다. 이들 여성조직으로는 당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산발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이 적지 않다. 또한 여성문제가 노동, 교육, 정보, 과학 등 다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조직의 위상이 낮고, 기능상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과 협조체계 및 연계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총재직속의 독립된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총재 직속의 여성정책 전담기구에서는 ① 총재에 대한 여성정책 자문, ②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③ 당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 및 총괄·조정 ④ 국회에 제출하는 여성관련 법률(안)에 대한 사전 협의, ⑤ 국내 및 국제 여성조직과의 연대활동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바.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

현재 우리 나라의 정당들이 산출하고 있는 여성관련 통계의 경우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러한 각 정당의 여성관련 통계들은 공약으로 활용되어 그간 각 정당내 주요 여성당직자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는 여성당직자 뿐 아니라 당원, 유권자 관련 통계에 여성 현황을 산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정당들로부터 정당의 활동상황 및 당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성별 통계는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정당내 여성당원 및 여성당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의 미비는 여성당직자의 효율적 양성 및 활용, 그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커다란 저해요소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각종통계에 여성당원 및 여성당직자에 대한 현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정당내 여성의 당직참여 현황 및 지원정책과 여성의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금번 16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9%로 15대 총선시 3.0%에 비하여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나,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직책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10-20% 수준이었고, 특히 비중있는 당직이나 고위당직에의 여성비율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당직자들이 자기개발이나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며 특히 공직선거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여성의 의회참여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가 확대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고도산업화·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복지욕구 또한 증대될 전망이기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분야에의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란 점.

둘째,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가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셋째, 여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른 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유엔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30%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는데 한국은 유엔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강도 높은 여성 정치참여 및 당직참여 확대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비율이 적고, 여성당직자들이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여성의 정치 및 당직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정치에 불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둘째,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2. 제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가 확대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중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내 여성당직자 비율이 낮은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여성의 당직 임명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여성단체들은 각 당의 남성 정치지도자를 초청하는 여성정책 세미나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들에게 여성문제 및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내 여성정책연구회를 설치하고 남성 의원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당내 연수 프로그램에 남성당직자의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도 요구된다.

둘째, 정당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분야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고정관념이 강한 상황에서 정치분야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계획의 수립과 함께, 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 정당법에 도입한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의 정신을 살려,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의 도입 뿐 아니라, 각종 공직선거의 지역구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을 일정비율 공천하고, 정당 내 모든 당직에 여성을 일정비율

할당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당들은 보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당직자들의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차세대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위하여 정당내 여성 청년 인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외부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정당 안으로 유입해야 하는 과제 또한 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 및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의 남녀평등 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쟁취가 목적이므로 정당의 할당제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도록 여성정치인은 물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매스컴 등과 연대하여 남성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실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계와 연대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당위성을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 ② 여성단체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낙선운동 뿐 아니라, 특히 여성후보로 당선운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사항으로 ① 후보자 육성 및 정치리더쉽 훈련, ② 유권자의식 교육, ③ 여성 선거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④ 공명선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⑤ 선거법 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해나가도록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성 남성정치인들은 일상적으로 여성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이에 대비하여 여성정치인 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단체장의 정치참여는 여성지도자의 중간지도력의 육성과 여성단체의 민주화에도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다.

- ③ 여성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과 정치학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실례로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 ④ 매스컴의 역할로서 여성 언론매체종사자들은 여성계와 연대를 가지면서 이제는 언론매체가 올바른 사회의식, 시민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평등한 성역할 관념의 확산을 통해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결국 여성의 각급 공직선거의 의원과 정당내 고위당직 등에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성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를 통하여 정부 및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받아 대표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 외 문헌

- 김원홍(1995, 4, 2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현황과 확대방안”, 「대한 간호정의회지」, 서울 : 대한간호정의회.
- 김원홍(1996),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 · 김은경(1998),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 金恩敦, 金恩稟(1999), 「여고생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연구용역보고서(미간행).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1999 여성백서」.
- 백영옥(1999),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연구용역보고서(미간행).
- 새정치국민회의(1998.6), 「강령 · 당헌 · 당규집」.
-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2000), 「당헌 · 강령 · 기본정책(안)」.
- 새천년민주당(2000), 「당헌, 강령, 당규집」.
- 새천년민주당(2000, 3) 「새천년민주당 16대 총선 여성정책공약(8개분야 50개)」.
- 양무목(1983), 「한국정당정치론-정강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법문사.
- 이화영(1998), “한국여성정치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연구-정당의 성별 분업 형태의 잠재성과 한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현근(1998), “녹색당과 스웨덴 정당체계의 변화”, 「부산정치학회보」 제8집 2호
-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1999), 「정책위원 수첩」.
- 자유민주연합(1995, 6, 7), 「당 규정 제정(안)-제 2차 당무회의심의자료-」.
- 자유민주연합(1998, 7), 「당헌 · 당규집」.
- 장성자 · 김원홍(1995),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강석권(1997), “미국정당제도의 특수성”, 「미국헌법연구」 제8호 1997년,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 전경숙 · 노혜숙 · 김영란(1999), 「여성의 정치적 권리인식과 정치참여」, 서울 : 집문당.
- 전복희(1999), “독일의 여성운동사와 여성정치참여”, 「독일의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정당 · 정치자금제도연구자료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9), 「98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수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정당 · 정치자금법령집」.
- 최한수(1993), 「현대정당론」, 서울 : 을유문화사.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9 여성통계연보」,
 한나라당 여성위원회(1999, 12), 「여성광장 21」,
 한나라당(1998, 11, 26), 「당천 · 당규집」,
 한승철(1993), 「영국과 독일의 정당제도」, 「선거관리」(1993, 12)

Cathy Allen(1990), *Political Campaigning : A New Decad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Christine Lemke(1994), "Women and Politics : The Ne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rbara Nelson and Najma Chowdhury(eds.),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Fact Sheet of Women Candidates for Congress 1974-1998 : Party and Seat Summary for Major Party Nominees(1998, 11)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Fact Sheet of Women Candidates for State Legislatures Election Results 1988, 1992, 1994, 1996 & 1998(1999, 11),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Center for the American Woman and Politics, Rutgers University(1/99), *Status of Women in Politics*
 Janda · Berry · Goldman, *The Challenge of Democracy-Government in America*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7)
 IPU(1997),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 A World Comparative Study*, Inter-Parliamentary Union, January 1997,
 Marian Palley, 2000, 한국여성정치연맹 제29차 오찬포럼강연 프레지던트호텔, 2000, 3, 8,
 Pippa Norris and Joni Lovenduski(1992), "Gender and Party Politics in Britain", in Pippa Norris and Joni Lovenduski(ed.), *Gender and Party Politics*, London : SAGE Publications,

2. 외국정당에서 받은 자료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The Labour Party, Britain,
 Steve Brine, Conservative Party Web Site Editor, Britain,
 CDU(1999), *Frauenbericht* Germany,
 Marion Boeker, Bundesfrauenreferentin, Bündnis90/Die Grünen, Germany,
 F.D.P., BUNDESTAGSFRAKTION Positionen, *Liberal Frauenpolitik* brochure, Germany,
 Kristina Karlander, Political Secretary of Centerwomen in Centerpartiet, Sweden,
 Ulla-Britt Hagstrom, Chairman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s Organization, Sweden,

Tanja Rasmusson, the political Secretary of the Moderate Women's Network, Sweden,
 Sue McKenzie, Woman Vice-President of National Party, New Zealand,
 Lesley Soper, Labour Women's Vice-President, NZ Labour Party, New Zealand.

3. 인터넷 자료

1) 세계의 정당과 선거

<http://www.agora.stm.it>

2) 유럽연합 소속국가의 주요 정당의 각종 정보

<http://db-decision.de/english>

3) 미국의 정당과 여성조직

http://www.nfdw.org/html/nfdw_history.html

http://www.nfdw.org/html/nfdw_about.html

http://www.nfdw.org/html/nfdw_organization.html

<http://www.wlf-online.org/wlf/100KDetail.htm>

<http://www.wlf-online.org/wlf/about2.html>

<http://www.nfrw.org>

<http://www.rnc.org>

4) 영국의 정당

<http://www.labour.org.uk>

<http://www.conservative-party.org.uk>

5) 독일의 정당

<http://www.spd.de/english/organization/presidium.htm>

<http://www.spd.de/english/committee/index.htm>

<http://www.spd.de/english/organization/index.htm>

<http://www.csu.de/diecsu/arbeitsgemeindkreise/arbeitsgemeinschaften/fu/linkpage907.htm>

<http://www.cdu.de/english/gru-prog/gp2.htm>

6) 스웨덴의 정당

http://www.sap.se/utl/utl_eng3.sap
<http://www.centerpartiet.se/english>
<http://www.kristdemokrat.se>
<http://www.riksdagen.se/arbetar/siffror/kvinman.htm>
http://www.riksdagen.se/faktabl/f08_kvin_en.htm
<http://www.mp.se/english>

7) 뉴질랜드의 정당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Organisation/SupportingOrganisations/index.htm>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Organisation/SupportingOrganisations/wo.htm>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Organisation/structure.html>
<http://www.labour.org.nz/InfoCentre1/People/name.html>
<http://www.national.org.nz/contacts/index.html>
<http://www.national.org.nz/caucus/index.html>
<http://www.ps.parliament.govt.nz/mps.htm>
<http://www.executive.govt.nz/minister/index.html>

부록

부 표

<부표 1>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

단위 : 명(%)

구 분	중앙 ^a			지방 ^b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본인 스스로	35(52.2)	29(39.7)	64(45.7)	22(35.5)	32(23.2)	54(27.0)
후보자	3(4.5)	4(5.5)	7(5.0)	8(12.9)	23(16.7)	31(15.5)
지역유지	5(7.5)	8(11.0)	13(9.3)	3(4.8)	9(6.5)	12(6.0)
친척	2(3.0)	3(4.1)	5(3.6)	2(3.2)	11(8.0)	13(6.5)
동창/선후배/ 친구	15(22.4)	15(20.5)	30(21.4)	13(21.0)	35(25.4)	48(24.0)
정당원	6(9.0)	9(12.3)	15(10.7)	11(17.7)	27(19.6)	38(19.0)
기타	1(1.5)	5(6.8)	6(4.3)	3(4.8)	1(0.7)	4(2.0)
계	67 (100.0)	73 (100.0)	140 (100.0)	62 (100.0)	138 (100.0)	200 (100.0)

* $\chi^2=4.616$ df=6 $p>.05$ (겹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8.510$ df=6 $p>.05$ (겹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2>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75(59.1)	95(45.0)	170(50.3)
적극적으로 참여	44(34.6)	89(42.2)	133(39.3)
주로 선거때만 참여	4(3.1)	14(6.6)	18(5.3)
가입만함	4(3.1)	13(6.2)	17(5.0)
계	127(100.0)	211(100.0)	338(100.0)

 $\chi^2=7.485$ df=3 $p>.05$ (겹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3> 지위별 정당활동의 적극성 정도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27(61.4)	30(35.3)	14(50.0)	12(50.0)	82(61.7)	5(26.3)	170(51.1)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15(34.1)	38(44.7)	10(35.7)	9(37.5)	46(34.6)	10(52.6)	128(38.4)
주로 선거때만 일한다	1(2.3)	8(9.4)	2(7.1)	3(12.5)	2(1.5)	2(10.5)	18(5.4)
그저 가입만 했다	1(2.3)	9(10.6)	2(7.1)		3(2.3)	2(10.5)	17(5.1)
계	44(100.0)	85(100.0)	28(100.0)	24(100.0)	133(100.0)	19(100.0)	333(100.0)

 $\chi^2=26.405$ df=20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4> 남녀별 정당활동의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매우 만족	23(18.3)	40(19.3)	63(18.9)
다소 만족	67(53.2)	71(34.3)	138(41.4)
그저그렇다	26(20.6)	71(34.3)	97(29.1)
다소 불만족	7(5.6)	16(7.7)	23(6.9)
매우 불만족	3(2.4)	9(4.3)	12(3.6)
계	126(100.0)	207(100.0)	333(100.0)

 $\chi^2=13.178$ df=4 $p<.05$

<부표 5> 지위별로 본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고위당직자	일반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및시도지위/ 자유당시무처 당직자	기타	계
매우만족한다	10(22.7)	15(18.3)	6(21.4)	5(21.7)	23(17.6)	3(15.8)	62(19.0)
다소만족한다	16(36.4)	31(37.8)	8(28.6)	13(56.5)	61(46.6)	7(36.8)	136(41.6)
그저그렇다	11(25.0)	31(37.8)	11(39.3)	2(8.7)	31(23.7)	8(42.1)	94(28.7)
다소불만족한다	2(4.5)	3(3.7)	3(10.7)	2(8.7)	12(9.2)	1(5.3)	23(7.0)
매우불만족한다	5(11.4)			1(4.3)	4(3.1)		12(3.7)
계	44(100.0)	28(100.0)	28(100.0)	23(100.0)	131(100.0)	19(100.0)	327(100.0)

 $\chi^2=26.405$ df=20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6>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8(17.0)	5(13.5)	13(15.5)	10(23.3)	10(14.1)	20(17.5)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16(34.0)	12(32.4)	28(33.3)	16(37.2)	18(25.4)	34(29.8)
적당한 수입/활동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	2(5.4)	2(2.4)	1(2.3)	2(2.8)	3(2.6)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2(4.3)	1(2.7)	3(3.6)	-	10(14.1)	10(8.8)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	21(44.7)	17(45.9)	38(45.2)	16(37.2)	31(43.7)	47(41.2)
계	47(100.0)	37(100.0)	84(100.0)	43(100.0)	71(100.0)	114(100.0)

* $\chi^2=2.868$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8.898$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7> 중앙·지방의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전체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3(15.1)	20(16.9)	33(16.2)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28(32.6)	38(32.2)	66(32.4)
적당한 수입/활동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2(2.3)	3(2.5)	5(2.5)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3(3.5)	10(8.5)	13(6.4)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	40(46.5)	47(39.8)	87(42.6)
계	86(100.0)	118(100.0)	204(100.0)

 $\chi^2=2.576$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8> 중앙·지방의 남녀당직자 정당활동이 만족스러운 점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8(17.0)	5(13.5)	13(15.5)	10(23.3)	10(14.1)	20(17.5)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16(34.0)	12(32.4)	28(33.3)	16(37.2)	18(25.4)	34(29.8)
적당한 수입/활동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	2(5.4)	2(2.4)	1(2.3)	2(2.8)	3(2.6)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2(4.3)	1(2.7)	3(3.6)	-	10(14.1)	10(8.8)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	21(44.7)	17(45.9)	38(45.2)	16(37.2)	31(43.7)	47(41.2)
계	47(100.0)	37(100.0)	84(100.0)	43(100.0)	71(100.0)	114(100.0)

* $\chi^2=2.868$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8.898$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9> 남녀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단위: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 본다.	15(12.0)	46(21.8)	61(18.2)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 한다.	19(15.2)	30(14.2)	49(14.6)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46(36.8)	77(36.5)	123(36.3)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	45(36.0)	58(27.5)	103(30.7)
계	125(100.0)	211(100.0)	336(100.0)

 $\chi^2=6.063$ df=3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10> 지역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단위: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두고 본다	9(13.6)	9(12.5)	18(13.0)	7(11.5)	36(26.3)	43(21.7)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 한다	11(16.7)	15(20.8)	26(18.8)	8(13.1)	15(10.9)	23(11.6)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23(34.8)	21(29.2)	44(31.9)	23(37.7)	56(40.9)	79(39.9)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	23(34.8)	27(37.5)	50(36.2)	23(37.7)	30(21.9)	53(26.8)
계	66(100.0)	72(100.0)	138(100.0)	61(100.0)	137(100.0)	198(100.0)

* $\chi^2=.767$ df=3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chi^2=8.475$ df=3 $p<.05$

<부표 11> 활동년도별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단위: 명(%)

구 분	1-2년	3-4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이상	전체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본다	19(28.4)	15(23.1)	9(14.1)	6(14.6)	6(11.8)	6(13.0)	61(18.3)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다	13(19.4)	12(18.5)	9(14.1)	4(9.8)	9(17.6)	2(4.3)	49(14.7)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17(25.4)	23(35.4)	29(45.3)	18(43.9)	18(35.3)	16(34.8)	121(36.2)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	18(26.9)	15(23.1)	17(26.6)	13(31.7)	18(35.3)	22(47.8)	108(30.8)
계	67(100.0)	65(100.0)	64(100.0)	41(100.0)	51(100.0)	46(100.0)	334(100.0)

 $\chi^2=24.333$ df=15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12> 학력에 따른 당론·정책에 대한 대응력

단위: 명(%)

구 분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전체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본다	-	1(16.7)	15(17.6)	14(29.8)	27(18.2)	27(18.2)	1(33.3)	61(18.2)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다	-	1(16.7)	13(15.3)	6(12.8)	21(14.2)	21(14.2)	1(33.3)	49(14.6)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	-	40(47.1)	15(31.9)	59(39.9)	59(39.9)	-	129(36.3)
공식적 채널을 통해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	-	4(66.7)	17(20.0)	12(25.5)	41(27.7)	41(27.7)	1(33.3)	108(30.7)
계	-	6(100.0)	85(100.0)	47(100.0)	148(100.0)	149(100.0)	3(100.0)	336(100.0)

 $\chi^2=24.333$ df=15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13> 여성당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소속정당 평가

단위: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새정치 국민회의	가능한 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 고 적극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23(63.9)	23(41.1)	46(50.0)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10(27.8)	17(30.4)	27(9.3)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거의 관심이 없다	2(5.6)	10(17.9)	12(13.0)
	잘 모르겠다	1(2.8)	6(10.7)	7(7.6)
	소계	36(100.0)	56(100.0)	92(100.0)
자유민주 연합	가능한 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 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9(18.4)	33(40.2)	42(32.1)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24(49.0)	22(26.8)	46(35.1)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거의 관심이 없다	13(26.5)	24(29.3)	37(28.2)
	잘 모르겠다	3(6.1)	3(3.7)	6(4.6)
	소계	49(100.0)	82(100.0)	131(100.0)
한나라당	가능한 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 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21(52.5)	39(52.0)	60(52.2)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15(37.5)	30(40.0)	45(39.1)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거의 관심이 없다	3(7.5)	4(5.3)	7(6.1)
	잘 모르겠다	1(2.5)	2(2.7)	3(2.6)
	소계	40(100.0)	75(100.0)	115(100.0)

<부표 14> 지역별 여성당원 능력개발·활용에 대한 소속정당 평가

단위: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가능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24(36.4)	29(39.7)	53(38.1)	29(47.5)	66(47.8)	95(47.7)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다	30(45.5)	22(30.1)	52(37.4)	20(32.8)	46(33.3)	66(33.2)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7(10.6)	20(27.4)	27(19.4)	11(18.0)	18(13.0)	29(14.6)
잘모르겠다	5(7.6)	2(2.7)	7(5.0)	1(1.6)	8(5.8)	9(4.5)
계	66(100.0)	73(100.0)	139(100.0)	61(100.0)	138(100.0)	199(100.0)

* $\chi^2=8.918$ df=3 p<.05** $\chi^2=2.344$ df=3 p>.05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15> 남녀당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1순위

단위: 명(%)

구 분	남성*			여성**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19(33.9)	24(40.7)	43(37.4)	32(42.7)	65(52.0)	97(48.5)
당직 임명에 있어서	12(21.4)	14(23.7)	26(22.6)	19(25.3)	23(18.4)	42(21.0)
보수나 활동비 면에서	3(5.4)	-	3(2.6)	1(1.3)	5(4.0)	6(3.0)
후보자 공천 받을 때	11(19.6)	14(23.7)	25(21.7)	20(26.7)	25(20.0)	45(22.5)
업무 부여에 있어	11(19.6)	7(11.9)	18(15.7)	3(4.0)	7(5.6)	10(5.0)
계	56(100.0)	59(100.0)	115(100.0)	75(100.0)	125(100.0)	200(100.0)

* $\chi^2=4.909$ df=4 p>.05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4.192$ df=4 p>.05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16> 남녀당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야 2순위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중앙	지방	소계	중앙	지방	소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3(6.0)	9(15.5)	12(11.1)	12(16.7)	17(15.0)	29(15.7)
당직 임명에 있어서	17(34.0)	18(31.0)	35(32.4)	22(30.6)	27(23.9)	49(26.5)
보수나 활동비 면에서	-	3(5.2)	3(2.8)	1(1.4)	19(16.8)	20(10.8)
후보자 공천 받을 때	18(36.0)	10(17.2)	28(25.9)	23(31.9)	25(22.1)	39(21.1)
업무 부여에 있어	12(24.0)	18(31.0)	30(27.8)	14(19.4)	25(22.1)	39(21.1)
계	50(100.0)	58(100.0)	108(100.0)	72(100.0)	113(100.0)	185(100.0)

* $\chi^2=8.972$ df=4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12.275$ df=4 $p<.05$

<부표 17>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8 (12.1)	1 (1.4)	9 (6.5)	6 (9.7)	3 (2.2)	9 (4.5)
여성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	18 (27.3)	24 (32.9)	42 (30.2)	22 (35.5)	35 (25.5)	57 (28.6)
여성 후배 정치인 육성이 활발해 질 것이다.	9 (13.6)	6 (8.2)	15 (10.8)	7 (11.3)	16 (11.7)	23 (11.6)
여성 문제의 해결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20 (30.3)	13 (17.8)	33 (23.7)	23 (37.1)	46 (33.6)	69 (34.7)
정치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11 (16.7)	29 (39.7)	40 (28.8)	4 (6.5)	37 (27.0)	41 (20.6)
계	66 (100.0)	73 (100.0)	139 (100.0)	62 (100.0)	137 (100.0)	199 (100.0)

* $\chi^2=16.175$ df=4 $p<.01$ ** $\chi^2=15.674$ df=4 $p<.01$

<부표 18>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의 적정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현재 수준(10%)이 적당하다.	9 (13.8)	2 (2.7)	11 (8.0)	14 (23.0)	11 (8.1)	25 (12.8)
2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28 (43.1)	10 (13.7)	38 (27.5)	21 (34.4)	32 (23.7)	53 (27.0)
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23 (35.4)	43 (58.9)	66 (47.8)	16 (26.2)	68 (50.4)	84 (42.9)
4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2 (3.1)	8 (11.0)	10 (7.2)	6 (9.8)	5 (3.7)	11 (5.6)
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10 (13.7)	10 (7.2)	2 (3.3)	17 (12.6)	19 (9.7)
기 타	3 (4.6)	-	3 (2.2)	2 (3.3)	2 (1.5)	4 (2.0)
계	65 (100.0)	73 (100.0)	138 (100.0)	61 (100.0)	135 (100.0)	196 (100.0)

* $\chi^2=35.296$ df=5 $p<.01$ ** $\chi^2=21.958$ df=5 $p<.01$

<부표 19> 소속 정당의 당직자 총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매우 만족	2(3.0)	2(2.7)	4(2.9)	3(4.8)	5(3.7)	8(4.0)
다소 만족	17(25.4)	8(11.0)	25(17.9)	15(24.2)	41(30.1)	56(28.3)
그저 그렇다	34(50.7)	37(50.7)	71(50.7)	30(48.4)	54(39.7)	84(42.4)
다소 불만족	8(11.9)	19(26.0)	27(19.3)	10(16.1)	29(21.3)	39(19.7)
매우 불만족	6(9.0)	7(9.6)	13(9.3)	4(6.5)	7(5.1)	11(5.6)
계	67(100.0)	73(100)	140(100.0)	62(100.0)	136(100.0)	198(100.0)

* $\chi^2=7.682$ df=4 $p>.05$ (질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2.146$ df=4 $p>.05$ (질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20> 지위별 당직자 충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전체
매우 만족	2(4.5)	2(2.4)	-	2(8.3)	5(3.8)	-	11(3.3)
다소 만족	4(9.1)	24(28.2)	5(17.9)	6(25.0)	38(28.6)	2(11.1)	79(23.8)
그저 그렇다	19(43.2)	41(48.2)	16(57.1)	11(45.8)	55(41.4)	10(55.6)	152(45.8)
다소 불만족	13(29.5)	13(15.3)	7(25.0)	3(12.5)	27(20.3)	3(16.7)	66(19.9)
매우 불만족	6(13.6)	5(5.9)	-	2(8.3)	8(6.0)	3(16.7)	24(7.2)
계	44(100.0)	85(100.0)	28(100.0)	24(100.0)	133(100.0)	18(100.0)	332(100.0)

 $\chi^2=24.768$ df=20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21>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당내 고위 당직자들이 여성 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21 (31.3)	38 (52.1)	59 (42.1)	18 (29.0)	62 (44.9)	80 (40.0)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21 (31.3)	14 (19.2)	35 (25.0)	23 (37.1)	24 (17.4)	47 (23.5)
남녀정당원 및 고위 당직자와의 대인관계를 넓힌다	6 (9.0)	2 (2.7)	8 (5.7)	4 (6.5)	10 (7.2)	14 (7.0)
여성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	17 (25.4)	19 (26.0)	36 (25.7)	17 (27.4)	39 (28.3)	56 (28.0)
자신의 지역구에서 세력을 키운다	2 (3.0)	-	2 (1.4)	-	3 (2.2)	3 (1.5)
계	67 (100.0)	73 (100.0)	140 (100.0)	62 (100.0)	138 (100.0)	200 (100.0)

* $\chi^2=10.171$ df=4 $p<.05$ ** $\chi^2=11.168$ df=4 $p<.05$

<부표 22> 지위별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에 가장 필요한 요인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전체
당내 주요당직자들이 여성 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24 (54.5)	33 (38.4)	13 (46.4)	15 (62.5)	44 (33.1)	8 (42.1)	137 (41.0)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6 (13.6)	22 (25.6)	3 (10.7)	5 (20.8)	37 (27.8)	7 (36.8)	80 (24.0)
남녀정당원 및 고위 당직자와의 대인관계를 넓힌다	2 (4.5)	7 (8.1)	4 (14.3)	1 (4.2)	7 (5.3)	1 (5.3)	22 (6.6)
여성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	12 (27.3)	24 (27.9)	8 (28.6)	2 (8.3)	43 (32.3)	1 (5.3)	90 (26.9)
자신의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다	-	-	-	1 (4.2)	2 (1.5)	2 (10.5)	5 (1.5)
계	44 (100.0)	86 (100.0)	28 (100.0)	24 (100.0)	133 (100.0)	19 (100.0)	334 (100.0)

 $\chi^2=38.878$ df=20 $p<.01$

<부표 23> 지역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데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매우 동의한다	19 (29.7)	52 (68.4)	71 (50.7)	19 (30.2)	75 (56.0)	94 (47.7)
다소 동의한다	28 (43.8)	16 (21.1)	44 (31.4)	27 (42.9)	43 (32.1)	70 (35.5)
그저 그렇다	11 (17.2)	7 (9.2)	18 (12.9)	13 (20.6)	12 (9.0)	25 (12.7)
동의하지 않는다	2 (3.1)		2 (1.4)	4 (6.3)	3 (2.2)	7 (3.6)
반대한다	4 (6.3)	1 (1.3)	5 (3.6)		1 (0.7)	1 (0.5)
계	64 (100.0)	76 (100.0)	140 (100.0)	62 (100.0)	138 (100.0)	200 (100.0)

* $\chi^2=10.171$ df=4 $p<.05$ ** $\chi^2=11.168$ df=4 $p<.05$

<부표 24> 지위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는 데 대한 동의정도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전체
매우 동의한다	29(65.9)	43(50.6)	16(57.1)	13(59.1)	59(44.4)	2(10.5)	162(48.9)
다소 동의한다	11(25.0)	28(32.9)	7(25.0)	7(31.8)	48(36.1)	10(52.6)	111(33.5)
그저 그렇다	3(6.8)	9(10.6)	4(14.3)	2(9.1)	19(14.3)	6(31.6)	43(13.0)
동의하지 않는다	-	4(4.7)	-	-	5(3.8)	-	9(2.7)
반대한다	1(2.3)	1(1.2)	1(3.6)	-	2(1.5)	1(5.3)	6(1.8)
계	44(100.0)	85(100.0)	28(100.0)	22(100.0)	133(100.0)	19(100.0)	331(100.0)

 $\chi^2=28.158$ df=20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25> 중앙·지방의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당헌, 당규에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16(32.0)	29(44.6)	45(39.1)	11(24.4)	48(41.0)	59(36.4)
당에서 여성 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22(44.0)	24(36.9)	46(40.0)	25(55.6)	43(36.8)	68(42.0)
정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 정치인 인재은행을 구성한다.	12(24.0)	9(13.8)	21(18.3)	8(17.8)	17(14.5)	25(15.4)
외부영입인사의 비율만큼 정당내 당원의 당직자 임명을 늘린다.	-	3(4.6)	3(2.6)	1(2.2)	9(7.7)	10(6.2)
계	50(100.0)	65(100.0)	115(100.0)	45(100.0)	117(100.0)	162(100.0)

* $\chi^2=12.502$ df=4 $p<.05$ ** $\chi^2=13.972$ df=4 $p<.01$

<부표 26> 지위별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전체
당헌, 당규에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19(48.7)	26(36.6)	7(30.4)	11(55.0)	39(36.8)	2(16.7)	104(38.4)
당에서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12(30.8)	28(39.4)	11(47.8)	6(30.0)	48(45.3)	6(50.0)	111(41.0)
경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 정치인 인재은행을 구성한다	6(15.4)	12(16.9)	4(17.4)	2(10.0)	16(15.1)	3(25.0)	43(15.9)
외부영입인사의 비율만큼 경당내 당원의 당직자 임명을 늘린다	2(5.1)	5(7.0)	1(4.3)	1(5.0)	3(2.8)	1(8.3)	13(4.8)
계	39(100.0)	71(100.0)	23(100.0)	20(100.0)	106(100.0)	12(100.0)	271(100.0)

$\chi^2=10.234$ df=15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27> 중앙·지방의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15(22.4)	33(45.8)	48(34.5)	11(17.7)	52(38.2)	63(31.8)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22(32.8)	16(22.2)	38(27.3)	12(19.4)	12(8.8)	24(12.1)
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4(6.0)	2(2.8)	6(4.3)	4(6.5)	5(3.7)	9(4.5)
여성의 경제력 부족해서	-	5(6.9)	5(3.6)	1(1.6)	15(11.0)	16(8.1)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18(26.9)	11(15.3)	29(20.9)	20(32.3)	35(25.7)	55(27.8)
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1(1.5)	1(1.4)	2(1.4)	3(4.8)	3(2.2)	6(3.0)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서	3(4.5)	3(4.2)	6(4.3)	9(14.5)	14(10.3)	23(11.6)
기 타	4(6.0)	1(1.4)	5(3.6)	2(3.2)	-	2(1.0)
계	67(100.0)	72(100.0)	139(100.0)	62(100.0)	136(100.0)	198(100.0)

* $\chi^2=16.695$ df=7 $p<.05$

** $\chi^2=21.579$ df=7 $p<.01$

<부표 28> 활동년도별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항 목	1-2년		3-4년		5-7년		7-10년		10-15년		15년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	2 (9.1)	15 (34.1)	8 (30.8)	17 (42.5)	4 (18.2)	18 (42.9)	4 (26.7)	7 (26.9)	5 (26.3)	16 (48.5)	2 (9.1)	12 (50.0)
여성의 리더십 부족	4 (18.2)	3 (6.8)	3 (11.5)	4 (10.0)	8 (36.4)	9 (21.4)	5 (33.3)	2 (7.7)	9 (47.4)	7 (21.2)	4 (18.2)	4 (16.7)
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음	1 (4.5)	1 (2.3)	1 (3.8)	-	-	2 (4.8)	1 (6.7)	-	2 (10.5)	1 (3.0)	3 (13.6)	3 (12.5)
여성의 경제력 부족	-	8 (18.2)	1 (3.8)	1 (2.5)	-	1 (2.4)	-	6 (23.1)	-	3 (9.1)	-	1 (4.2)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 기반 부족	9 (40.9)	9 (20.5)	9 (34.6)	15 (37.5)	7 (31.8)	6 (14.3)	2 (13.3)	10 (38.5)	1 (5.3)	5 (15.2)	9 (40.9)	1 (4.2)
인덕 및 정보공유가 부족	2 (9.1)	2 (4.5)	1 (3.8)	1 (2.5)	-	2 (4.8)	-	-	-	-	-	-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음	3 (13.6)	6 (13.6)	3 (11.5)	2 (5.0)	2 (9.1)	4 (9.5)	2 (13.3)	-	1 (5.3)	1 (3.0)	2 (9.1)	3 (12.5)
기타	1 (4.5)	-	-	-	1 (4.5)	-	1 (6.7)	1 (3.8)	1 (5.3)	-	2 (9.1)	-
계	22 (100.0)	44 (100.0)	26 (100.0)	40 (100.0)	22 (100.0)	42 (100.0)	15 (100.0)	26 (100.0)	19 (100.0)	33 (100.0)	22 (100.0)	24 (100.0)

 $\chi^2=61.086$ df=35 $p<.05$

<부표 29> 지위별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전체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14(31.8)	34(40.0)	8(29.6)	10(41.7)	42(31.6)	3(16.7)	111(33.5)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13(29.5)	12(14.1)	5(18.5)	4(16.7)	26(19.5)	1(5.6)	61(18.4)
선거에 당선 경험이 없어서	2(4.5)	3(3.5)	1(3.7)	2(8.3)	6(4.5)	1(5.6)	15(4.5)
여성의 경제력이 부족해서	2(4.5)	6(7.1)	4(14.8)	2(8.3)	6(4.5)	1(5.6)	21(6.3)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6(13.6)	21(24.7)	4(14.8)	4(16.7)	36(28.6)	6(44.4)	81(24.5)
인맥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2(4.5)	1(1.2)	-	-	3(2.3)	2(11.1)	8(2.4)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서	4(9.1)	7(8.2)	4(14.8)	2(8.3)	6(6.0)	2(11.1)	27(8.2)
기 타	1(2.3)	1(1.2)	1(3.7)	-	4(3.0)	-	7(2.1)
계	44(100.0)	85(100.0)	27(100.0)	24(100.0)	1,360(100.0)	18(100.0)	331(100.0)

 $\chi^2=34.542$ df=35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30> 연령별 여성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14(37.8)	28(30.8)	27(23.9)	29(42.6)	13(48.1)	111(33.0)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2(5.4)	17(18.7)	27(23.9)	9(13.2)	7(25.9)	62(18.5)
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	3(3.3)	7(6.2)	3(4.4)	2(7.4)	15(4.5)
여성의 경제력 부족해서	1(2.7)	3(3.3)	8(7.1)	7(10.3)	1(3.7)	20(6.0)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13(35.1)	30(33.0)	25(22.1)	14(20.6)	2(7.4)	84(25.0)
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3(8.1)	1(1.1)	4(3.5)	-	-	8(2.4)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서	4(10.8)	7(7.7)	12(10.6)	5(7.4)	1(3.7)	29(8.6)
기 타	-	2(2.2)	3(2.7)	1(1.5)	1(3.7)	7(2.1)
계	37(100.0)	91(100.0)	113(100.0)	68(100.0)	27(100.0)	336(100.0)

 $\chi^2=41.467$ df=28 p<.05

<부표 31> 중앙·지방의 고위당직자로서의 자질 평가

단위 : 명(%)

구 분	중앙*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자질이 있다	36(58.1)	44(60.3)	80(59.3)	31(51.7)	61(46.6)	92(48.2)
자질이 없다	26(41.9)	29(39.7)	55(40.7)	29(48.3)	70(53.4)	99(51.8)
계	62(100.0)	73(100.0)	135(100.0)	60(100.0)	131(100)	191(100.0)

* $\chi^2=0.038$ df=1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2.252$ df=1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부표 32> 중앙·지방의 자신의 고위당직 임명의 저해요인

단위 : 명(%)

구 분	지방*			지방**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6(21.4)	8(38.1)	14(28.6)	3(12.0)	15(46.9)	18(31.6)
리더십이 부족해서	1(3.6)	2(9.5)	3(6.1)	2(8.0)	-	2(3.5)
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6(21.4)	2(9.5)	8(16.3)	7(28.0)	4(12.5)	11(19.3)
경제력이 부족해서	3(10.7)	1(4.8)	4(8.2)	2(8.0)	5(15.6)	7(12.3)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2(7.1)	2(9.5)	4(8.2)	2(8.0)	3(9.4)	5(8.8)
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6(21.4)	1(4.8)	7(14.3)	5(20.0)	1(3.1)	6(10.5)
전문직 종사경력이 부족해서	1(3.6)	2(9.5)	3(6.1)	2(8.0)	3(9.4)	5(8.8)
기타	3(10.7)	3(14.3)	6(12.2)	2(8.0)	1(3.1)	3(5.3)
계	28(100.0)	21(100.0)	49(100.0)	25(100.0)	32(100.0)	57(100.0)

* $\chi^2=10.806$ df=8 $p>.05$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chi^2=22.785$ df=8 $p<.01$

<부표 33> 남녀별 선거입후보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후보자 의향 있음	81 (64.8)	93 (45.1)	174 (52.6)
후보자 의향 없음	44 (35.2)	113 (54.9)	157 (47.4)
계	125 (100.0)	206 (100.0)	331 (100.0)

 $\chi^2=12.052$ df=8 $p<.05$

<부표 34> 지위별 선거 입후보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및시·도지 부·지구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후보자 의향있음	11 (34.2)	17 (54.8)	28 (65.0)	16 (61.5)	21 (65.2)	37 (64.0)	6 (65.0)	9 (47.4)	15 (55.6)	1 (50.0)	15 (56.0)	16 (72.0)	44 (63.8)	27 (63.8)	71 (64.2)	3 (30.0)	3 (22.3)	6 (34.6)
후보자 의향없음	1 (3.3)	14 (45.2)	15 (44.9)	10 (38.5)	37 (63.8)	47 (55.0)	2 (25.0)	10 (52.6)	12 (44.4)	1 (50.0)	5 (25.0)	5 (22.3)	25 (36.2)	35 (65.5)	60 (45.8)	5 (32.5)	8 (72.7)	13 (68.4)
계	12 (100.0)	31 (100.0)	43 (100.0)	26 (100.0)	58 (100.0)	84 (100.0)	8 (100.0)	19 (100.0)	27 (100.0)	2 (100.0)	20 (100.0)	22 (100.0)	69 (100.0)	62 (100.0)	131 (100.0)	8 (100.0)	11 (100.0)	19 (100.0)

 $\chi^2=12.321$ df=5 $p<.05$

<부표 35> 남녀별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단위 : 명(%)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국회의원	43(53.1)	30(32.6)	73(42.2)
광역자치단체장	4(4.9)	7(7.6)	11(6.4)
기초자치단체장	17(21.0)	5(5.4)	22(12.7)
광역의회의원	12(14.8)	31(33.7)	43(24.9)
기초의회의원	3(3.7)	16(17.4)	19(11.0)
기타	2(2.5)	3(3.3)	5(2.9)
계	81(100.0)	92(100.0)	173(100.0)

 $\chi^2=44.732$ df=10 $p<.05$

<부표 36> 지위별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명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 시·도지위/ 지구당 사무처 당직자		기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의원	9 (81.8)	11 (68.8)	9 (56.2)	7 (17.1)	3 (50.0)	2 (22.2)	-	2 (13.3)	20 (45.5)	7 (25.9)	2 (66.6)	1 (33.3)
광역자치 단체장	-	-	-	3 (7.3)	1 (16.6)	1 (11.1)	-	1 (6.7)	3 (6.8)	2 (7.4)	-	-
기초자치 단체장	-	-	3 (18.8)	2 (4.9)	1 (16.6)	1 (11.1)	-	-	12 (27.3)	2 (7.4)	1 (33.3)	-
광역의회의원	1 (9.0)	2 (12.5)	3 (18.8)	7 (17.1)	1 (16.7)	3 (33.3)	-	7 (46.7)	7 (15.9)	11 (40.7)	-	1 (33.3)
기초의회의원	1 (9.0)	1 (6.3)	1 (6.3)	2 (4.9)	-	2 (22.2)	1 (100.0)	5 (33.3)	-	4 (14.8)	-	1 (33.3)
기 타	-	2 (12.5)	-	-	-	2 (22.2)	-	-	2 (4.5)	1 (3.7)	-	-
계	11 (100.0)	16 (100.0)	16 (100.0)	41 (100.0)	6 (100.0)	9 (100.0)	1 (100.0)	15 (100.0)	44 (100.0)	27 (100.0)	3 (100.0)	3 (100.0)

 $\chi^2=44.732$ df=25 $p<.01$

<부표 37> 공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지위

단위 : 명(%)

구 분	고위당직자	일반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사무처 당직자	전체
남성	2(16.7)	4(33.3)	-	-	6(50.0)	12(100.0)
여성	2(20.0)	4(40.0)	2(20.0)	2(20.0)	-	10(100.0)
계	4(18.1)	8(36.4)	2(9.1)	2(9.1)	6(27.3)	22(100.0)

 $\chi^2=18.837$ df=4 $p<.01$

<부표 38> 지위별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참여 의사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사무처 당직자	기타
참여의사 있다	27(87.1)	54(93.1)	17(85.0)	13(59.1)	51(81.0)	8(80.0)
참여의사 없다	4(12.9)	4(6.9)	3(15.0)	9(40.9)	12(19.0)	2(20.0)
계	31(100.0)	58(100.0)	20(100.0)	22(100.0)	63(100.0)	10(100.0)

 $\chi^2=13.989$ df=5 $p<.05$

<부표 39> 지위별 여성정당인에 대한 교육 요구도

단위 : 명(%)

구 분	고위 당직자		일반 당직자		전당 대회 대의원		지구당 대의원		중앙당 / 시·도지부/ 지구당사무처 당직자		기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꼭 필요하다	6 (50.0)	27 (84.4)	15 (55.6)	48 (81.4)	3 (37.5)	17 (85.0)	-	16 (72.7)	38 (48.5)	39 (60.9)	3 (37.5)	5 (50.0)
어느정도 필요하다	6 (50.0)	4 (12.5)	8 (29.6)	11 (18.6)	3 (37.5)	3 (15.0)	2 (10.0)	5 (22.7)	29 (42.6)	26 (39.1)	4 (50.0)	3 (30.0)
필요치 않은 편이다	-	1 (3.1)	3 (11.1)	-	2 (25.0)	-	-	-	5 (7.4)	-	1 (12.5)	2 (20.0)
전혀 필요치 않다	-	-	1 (3.7)	-	-	-	-	1 (4.5)	1 (1.5)	-	-	-
계	12 (100.0)	32 (100.0)	27 (100.0)	59 (100.0)	8 (100.0)	20 (100.0)	2 (100.0)	22 (100.0)	68 (100.0)	64 (100.0)	8 (100.0)	10 (100.0)

 $\chi^2=26.236$ df=15 $p<.05$

<부표 40> 정치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도
정치에 대한 이해	1)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117 (53.2)
	2) 국회 운영의 실제	111 (50.5)
	3) 정당 운영의 실제/정당의 발달사	96 (43.6)
	4) 지방의회 운영의 실제	109 (49.5)
	5) 통일한국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82 (37.3)
	6)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150 (68.2)
	7) 외국 정당의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115 (52.7)
	8) 한국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101 (45.9)
	9) 세계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108 (49.1)
	10) 기타	11 (5.0)
		220(100.0)

* 여성당직자 220명 중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인원수와 빈도를 나타냄

<부표 41>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 요구도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도
선거에 대한 이해	1) 선거법의 이해	122 (55.5)
	2) 여성후보자의 요건	102 (46.4)
	3)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128 (58.2)
	4) 선거제정의 이론과 실제	91 (41.4)
	5)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	113 (51.4)
	6)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선거경험 사례	86 (39.1)
	7) 모의 선거운동	68 (30.9)
	8) 여성정책 공약개발	145 (65.9)
	9) 기타	8 (3.6)
		220(100.0)

* 여성당직자 220명 중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인원수와 빈도를 나타냄

<부표 42> 리더십 개발 영역 요구도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도
리더십 개발	1)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131 (59.5)
	2) 바람직한 여성정치지도자의 상	143 (65.0)
	3) 연설/대화 기법	139 (63.2)
	4) 인간관계훈련	135 (61.4)
	5) 극기훈련(반나절 하이킹/산행)	74 (33.6)
	6) 기타	7 (3.2)
		220(100.0)

* 여성당직자 220명 중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인원수와 빈도를 나타냄

<부표 43> 남녀평등 의식개발 영역 요구도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도
남녀평등 의식개발	1) 한국에서의 여성의 삶	104 (47.3)
	2) 한국의 여성정책	130 (59.1)
	3)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활동	132 (60.0)
	4) 여성과 지도자	133 (60.5)
	5) 기타	7 (3.2)
		220(100.0)

* 여성당직자 220명 중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인원수와 빈도를 나타냄

<부표 44> 정보화 교육 영역 요구도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도
정보화 교육	1) 한글문서작성	96 (43.6)
	2) 인터넷 자료검색	141 (64.1)
	3)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146 (66.4)
	4) 사이버 정치강좌	128 (58.2)
	5) 기타	7 (3.2)
		220(100.0)

* 여성당직자 220명 중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인원수와 빈도를 나타냄

질 문 지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은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여성정책 전담 연구기관입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국가발전 및 사회발전에 중요한 정책결정자로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 아직도 정치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공식적 통로에서 여성이 배제됨으로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어 본원에서는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서는 동 연구의 일환으로 정당내 남녀 당원 및 당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정치연구팀 :

김원홍 연구위원

김혜영 연구원

김은경 연구원

연락처 : 02-356-0070

(교환 310,325,312)

Fax : 02-384-7164

* 귀하의 의견을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본인의 정당활동에 관하여

1. 귀하가 정당에 가입하신 가장 큰 이유는?
 - ① ___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 ② ___정당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 ③ ___정당 가입에 따른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 ④ ___취업을 목적으로
 - ⑤ ___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2. 귀하에게 현재 활동중인 정당에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___본인 스스로
 - ② ___후보자
 - ③ ___지역유지
 - ④ ___친척
 - ⑤ ___동창, 선후배, 친구
 - ⑥ ___정당원
 - ⑦ ___기타_____

3. 귀하가 현재활동 중인 정당에 가입하기 직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___전문직(예: 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 ② ___행정/관리직(예: 고위공무원, 고위직 회사원)
 - ③ ___사무직 (예: 일반공무원, 일반회사원)
 - ④ ___판매/서비스직(예: 외판원, 영업사원 등)
 - ⑤ ___자영업(예: 사업가)
 - ⑥ ___생산직(예: 노동/일용직 등)
 - ⑦ ___무직
 - ⑧ ___기타_____

4. 정당에서 귀하의 활동은 어떠하십니까?
 - ① ___당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___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 ③ ___주로 선거때만 일한다
 - ④ ___그저 가입만 했다

5. 귀하는 자신의 정당 활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 매우 만족한다 ☐ (5-1로 가시오)
 ② ☐ 다소 만족한다 ☐
 ③ ☐ 그저그렇다
 ④ ☐ 다소 불만족한다 ☐ (5-2로 가시오)
 ⑤ ☐ 매우 불만족하다 ☐

5-1. '만족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② ☐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③ ☐ 적당한 수입/활동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④ ☐ 주변인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⑤ ☐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어서

5-2. '불만인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 낮은 수입/활동비를 보장받지 못해서
 ② ☐ 뚜렷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서
 ③ ☐ 적성에 안맞아서
 ④ ☐ 당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⑤ ☐ 남녀간의 차별때문에
 ⑥ ☐ 장래성이 없어서
 ⑦ ☐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⑧ ☐ 기타 _____

6. 귀하의 정당활동이 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 약간 미치고 있다
 ③ ☐ 보통이다 ④ ☐ 별로 미치고 있지 못하다
 ⑤ ☐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하다

7. 당에서 정하는 당론이나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귀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 ① ☐ 당의 지도부가 하는 일이므로 그냥 두고 본다
 ② ☐ 동료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다
 ③ ☐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④ ☐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당조직에 전달되도록 한다.

8. 귀하가 속한 정당은 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을 위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가능한 여성당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
- ② ____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다
- ③ ____여성당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 ④ ____잘 모르겠다

9. 여성당원이 남성당원과 비교할 때,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어느점이라 생각하시는지 차별이 가장 심한 것부터 **두가지만** 아래에서 지적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____중요한 일을 결정할때 ② ____당직임명에 있어서
- ③ ____보수나 활동비면에서 ④ ____후보자 공천 받을때
- ⑤ ____업무부여에 있어

여성의 당직자진출에 대하여

10. 정당내 당직자 중 여성비율은 10%이하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____현재수준이 적당하다
- ② ____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③ ____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④ ____4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⑤ ____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⑥ ____기타_____

11. 정당내 당직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리라 보십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____정치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 ② ____여성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
- ③ ____여성문제의 해결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 ④ ____여성후배 정치인 육성이 활발해 질 것이다.
- ⑤ ____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12. 귀하는 소속된 정당의 당직자 충원방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___ 매우 만족
- ② ___ 다소 만족
- ③ ___ 그저그렇다
- ④ ___ 다소 불만족
- ⑤ ___ 매우 불만족

13. 여성이 정당내 당직자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 당내 고위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② ___ 여성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 ③ ___ 남녀정당원 및 고위당직자와의 대인관계를 넓힌다
- ④ ___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다
- ⑤ ___ 자신의 지역구에서 세력을 키운다

14.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제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___ 매우 동의한다
- ② ___ 다소 동의한다
- ③ ___ 그저그렇다
- ④ ___ 동의하지않는다
- ⑤ ___ 반대한다

(14-1로 가시오)

14-1. 여성을 당직자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 당헌·당규에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 ② ___ 당에서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한다
- ③ ___ 정당차원에서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정치인 인재은행을 구성한다
- ④ ___ 외부영입인사의 비율만큼 정당내 당원의 당직자 임명을 늘린다

고위당직자로 진출에 대하여

15. 정당내 고위당직(총재단, 당무위원, 고문, 정책위원, 국책위원, 중앙위원회 임원, 공천심사위원회 등)에 여성비율(현재 10%미만)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여성정당인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 ② ____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 ③ ____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 ④ ____여성의 경제력 부족해서
- ⑤ ____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
- ⑥ ____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 ⑦ ____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서
- ⑧ ____기타_____

16. 귀하는 자신이 고위 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그렇다 (16-1로 가시오) ② ____아니다

16-1. 귀하는 현재 고위당직자이십니까?

- ① ____예 ② ____아니오 (16-2로 가시오)

16-2. 고위당직에 임명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당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
- ② ____리더십이 부족해서
- ③ ____선거에 당선경험이 없어서
- ④ ____경제력이 부족해서
- ⑤ ____지지기반이 부족해서
- ⑥ ____인맥 및 정보공유가 부족해서
- ⑦ ____전문직 종사 경력이 부족해서
- ⑧ ____기타_____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17. 귀하는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선출직/비례직 포함)가 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____그렇다 (17-1, 17-2로 가시오) ② ____아니다

17-1. 후보자가 되실 경우 어떠한 선거에 입후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____국회의원
 ② ____광역자치단체장
 ③ ____기초자치단체장
 ④ ____광역의회의원
 ⑤ ____기초의회의원
 ⑥ ____기타_____

17-2. 입후보를 하실 경우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확실히 공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② ____아마도 공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③ ____공천받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④ ____공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남녀에 대한 성의식에 대하여

18.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동의정도에 따라 v표 해주십시오

내 용	동의 정도				
	대단히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조직의 장은 남성이어야 한다					
2.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가사 및 육아는 여성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3. 정당활동을 해 본 결과, 역시 정치는 남성에게 적합한 역할이다					
4.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적응능력이 더 있다					
5. 만일 딸이 커서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겠다면 반대하겠다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교육에 대하여

19. 귀하는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____ 목 필요하다
② ____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____ 필요치 않은 편이다
④ ____ 전혀 필요치 않다

* 20번, 21번의 질문 사항은 여성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여성만 응답하는 문항임>

만약에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귀하는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_____ 있다 ② _____ 없다

21. <여성만 응답하는 문항임 >

다음 지도력 육성을 위한 교육내용 중, 앞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요구안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영역	교육내용	교육요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여 모두 V표
정치에 대한 이해	1)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2) 국회 운영의 실제	
	3) 정당 운영의 실제 /정당의 발달사	
	4) 지방의회 운영의 실제	
	5) 통일한국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6)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7) 외국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	
	8) 한국 여성정치인의 모범사례	
	9) 세계 여성정치인 모범사례	
	10) 기타 ()	
선거에 대한 이해	11) 선거법의 이해	
	12) 여성후보자의 요건	
	13)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14) 선거제정의 이론과 실제	
	15)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	
	16)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선거경험 사례	
	17) 모의 선거운동	
	18) 여성정책 공약개발	
	19) 기타 ()	
리더십 개발	20)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21) 바람직한 여성정치지도자의 상	
	22) 연설/ 대화 기법	
	23) 인간관계훈련	
	24) 극기훈련(반나절 하이킹/ 산행)	
	25) 기타 ()	
남녀평등 의식개발	26) 한국에서의 여성의 삶	
	27) 한국의 여성정책	
	28)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활동	
	29) 여성과 지도자	
	30) 기타 ()	
정보화 교육	31) 한글문서작성	
	32) 인터넷 자료검색	
	33)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34) 사이버 정치강좌	
	35) 기타 ()	

- 자

- ③ ____40-49세

- 고등학교졸
대학원졸 ⑦ 기타

- 배우자사망 ④ _____이혼

- 수준) ⑤ ____하류층(곤란한 편)

- ③ ____5-7년
- ⑥ ____15년이상

습니까?

- 다

29. 정당내에서의 현재의 지위는?

- ① ____ 고위당직자(총재단, 당무위원, 고문, 정책위원, 국책위원, 중앙위원회 임원
공천심사위원회 등)
- ② ____ 일반당직자
- ③ ____ 전당대회 대의원
- ④ ____ 지구당 대의원
- ⑤ ____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처 당직자
- ⑥ ____ 기타 _____

30. 귀하가 현재의 당직이외의 다른 직업이 있으시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 다른 직업없음
- ② ____ 전문직(예: 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 ③ ____ 행정/관리직(예: 고위직 회사원)
- ④ ____ 사무직(예: 일반회사원)
- ⑤ ____ 판매/서비스직(예: 외판원, 영업사원 등)
- ⑥ ____ 자영업(예: 사업가)
- ⑦ ____ 생산직(예: 노동/일용직 등)

31.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____ 서울 ② ____ 인천 ③ ____ 부산 ④ ____ 강원 ⑤ ____ 대전 ⑥ ____ 충남
- ⑦ ____ 충북 ⑧ ____ 광주 ⑨ ____ 전남 ⑩ ____ 전북 ⑪ ____ 대구 ⑫ ____ 경남
- ⑬ ____ 경북 ⑭ ____ 경기 ⑮ ____ 제주 ⑯ ____ 울산